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김 유 선

목 차

제1장 머리말	1
제2장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실태와 결정요인	4
1. 주요 고용지표	4
2. 취업과 임금·비임금 근로실태	8
가. 남녀	8
나. 남자	11
다. 여자	13
3.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16
가. 전연령	16
나. 베이비붐 세대	19
4. 소결	22
제3장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	24
1. 비취업자 활동상태	24
2.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활동 포기 이유	26
3. 실업자 구직활동	28
가. 실업자 구직경로	28
나. 실업자 구직방법	29
다. 실업자 희망 고용형태	31
4. 비취업자 이직사유	31
5. 소결	33
제4장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실태	35
1. 노동력 구성	35
가. 인적 구성	35
나. 일자리 구성	36

2. 고용안정	38
가. 비정규직	38
나. 근속년수	40
3. 임금	41
가. 임금수준	41
나. 저임금계층	43
4. 노동조건	45
가. 노동시간	45
나. 사회보험 가입 및 기타 노동조건	47
5. 자발적 취업 여부	50
6. 소결	50

제5장 고령자 취업과 구직 실태 53

1. 취업실태	53
가. 현재 취업상태	53
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근속기간과 이직연령	54
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56
라. 이직사유별 이직자수와 이직연령	57
2.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59
가.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59
나. 구직-취업 성공률	60
다. 구직경로	60
라. 비구직 비취업자의 비구직 사유	62
마. 직업훈련 경험	63
바.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관련성	64
3. 계속근로 희망	65
가. 계속근로 의사와 취업동기	65
나. 계속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68
다.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69
라.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임금수준	70
4. 연금 수령	72
5. 소결	74

제6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	77
1. 추계 인구	77
2. 고용률 변화(2005~2010년)	79
3. 베이비붐 세대 은퇴규모	82
가. 추계 1 (2010년 고용률 적용)	82
나. 추계 2 (2010년 고용률 + 추세 적용)	84
4. 소결	86
제7장 베이비붐 세대 고용서비스 실태	87
1. 고용보험 가입	87
2. 국민연금 가입	89
3. 취업알선	91
4. 직업훈련	92
5. 소결	92
제8장 맺는 말	94
참고문헌	104

표 목 차

<표 2-1>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남녀, 2010년 8월)	5
<표 2-2>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남자, 2010년 8월)	7
<표 2-3>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여자, 2010년 8월)	8
<표 2-4>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1 (2010년 8월, 남녀)	10
<표 2-5>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 (2010년 8월, 남녀)	10
<표 2-6>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1 (2010년 8월, 남자)	12
<표 2-7>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 (2010년 8월, 남자)	13
<표 2-8>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1 (2010년 8월, 여자)	15
<표 2-9>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 (2010년 8월, 여자)	15
<표 2-10>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남녀, 비취업자 기준)	16
<표 2-11>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남자, 비취업자 기준)	18
<표 2-12>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여자, 비취업자 기준)	19
<표 2-13>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남녀, 베이비붐 세대)	20
<표 2-14>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남자, 베이비붐 세대)	21
<표 2-15>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 (여자, 베이비붐 세대)	22
<표 3-1>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1 (2010년 8월, 남녀)	25
<표 3-2>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2 (2010년 8월, 남녀)	26
<표 3-3> 베이비붐 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와 즉시취업 가능자(2010년 8월)	27
<표 3-4>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안한 이유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27
<표 3-5> 실업자 구직 경로(2010년 8월, 남녀, 복수응답)	29
<표 3-6> 실업자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고용형태 (2010년 8월, 남녀, 복수응답)	30
<표 3-7> 비취업자 이직 사유(2010년 8월, 남녀)	32
<표 4-1> 성별 연령과 학력 구성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6
<표 4-2> 성별 혼인과 가구주관계 구성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6
<표 4-3> 성별 산업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7
<표 4-4> 성별 직업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7
<표 4-5> 성별 종사자규모별 분포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8
<표 4-6> 성별 노조 및 조합원 분포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8
<표 4-7>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9
<표 4-8> 비정규직 결정요인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 로짓분석, 관측치 5,933개)	40
<표 4-9> 성별 근속년수(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41
<표 4-10> 성별 임금수준(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41
<표 4-11> 임금 결정요인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 회귀분석, 관측치 5,933개)	42
<표 4-12> 법정최저임금 미달자와 저임금계층 비율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43
<표 4-13> 저임금-고임금계층 결정요인 분석결과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관측치 5,933개)	44
<표 4-14> 성별 주당 노동시간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45
<표 4-15> 노동시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관측치 5,933개)	46

<표 4-16> 성별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47
<표 4-17>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조건적용 결정요인 분석결과 (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관측치 5,933개, 로짓분석) ..	48
<표 4-18> 성별 취업동기(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50
<표 5-1>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2009년 5월)	54
<표 5-2>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근무기간과 이직연령 (2009년 5월)	55
<표 5-3>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2009년 5월) ..	56
<표 5-4> 이직사유별 이직자수와 이직연령(2009년 5월)	58
<표 5-5>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및 구직-취업 성공률(2009년 5월)	59
<표 5-6>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자의 구직경로(2009년 5월)	62
<표 5-7>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 (2009년 5월)	63
<표 5-8>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 경험(2009년 5월)	64
<표 5-9>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의 관련성 (2009년 5월)	65
<표 5-10> 계속근로 의사와 주된 동기(2009년 5월)	66
<표 5-11> 계속근로 의사와 주된 동기(2009년 5월, 취업자)	67
<표 5-12> 계속근로 의사와 주된 동기(2009년 5월, 미취업자)	68
<표 5-13> 계속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기준(2009년 5월)	69
<표 5-14>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2009년 5월)	70
<표 5-15> 계속근로 희망자의 월평균 희망 임금수준 분포 (2009년 5월)	72
<표 5-16> 연금수령자 비율과 월평균 연금수령액 (2009년 5월)	73
<표 5-17>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 분포(2009년 5월)	73
<표 6-1> 연도별 연령계층별 추계인구(남녀)	78
<표 6-2> 연도별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79
<표 6-3> 고용률 변화(남녀, 2005.8~2010.8, 생산가능인구 대비)	80
<표 6-4> 고용률 변화(남자, 2005.8~2010.8, 생산가능인구 대비)	81

<표 6-5> 고용률 변화(여자, 2005.8~2010.8, 생산가능인구 대비)	81
<표 6-6> 은퇴규모 추계1 (남녀, 2010년 8월 고용률 적용)	82
<표 6-7> 은퇴규모 추계1 (남자, 2010년 8월 고용률 적용)	83
<표 6-8> 은퇴규모 추계1 (여자, 2010년 8월 고용률 적용)	83
<표 6-9> 은퇴규모 추계2 (남녀, 2010년 8월 고용률+추세 적용)	84
<표 6-10> 은퇴규모 추계2 (남자, 2010년 8월 고용률+추세 적용)	85
<표 6-11> 은퇴규모 추계2 (여자, 2010년 8월 고용률+추세 적용)	85
<표 6-12>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종합)	86
<표 7-1>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2010년 8월)	88
<표 7-2>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2010년 8월,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90
<표 8-1>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	102

그림 목차

[그림 2-1] 베이비 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2010년 8월)	4
[그림 2-2] 학력별 고용률(2010년 8월)	6
[그림 2-3] 성별 학력분포(2010년 8월)	6
[그림 2-4] 성별 혼인상태(2010년 8월)	7
[그림 2-5]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남녀, 2010년 8월)	9
[그림 2-6]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남자, 2010년 8월)	11
[그림 2-7]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여자, 2010년 8월)	14
[그림 2-8] 연령별 취업확률 곡선(남녀)	17
[그림 3-1] 베이비붐 세대의 비취업자 인적 속성 분포(2010년 8월) ..	24
[그림 3-2]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 분포(2010년 8월)	25
[그림 3-3] 실업자 구직경로(2010년 8월)	28
[그림 3-4] 실업자 구직방법(2010년 8월)	30
[그림 3-5] 비취업자 이직사유(2010년 8월)	31
[그림 5-1] 구직활동-취업 성공률	60
[그림 5-2] 구직경로	61
[그림 5-3]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임금수준 분포(2009년 5월)	71
[그림 6-1] 연도별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78
[그림 6-2] 연령계층별 고용률 변화	80

제1장

머리말

6.25 전쟁 이후 출산 붐을 타고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에 이르는 거대한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2010년 올해는 베이비붐 세대의 만형인 1955년생이 만55세가 되면서 정년이 빠른 대기업부터 집단 퇴직을 맞는 해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4.19세대니 386세대니 하는 정치사 측면에서 세대 구분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어도, 인구사회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베이비붐 세대 정년퇴직 시작’이라는 이벤트성 기획 기사가 언론을 장식했고, 이런 흐름과 맞물려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베이비붐 고용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고령화는 노동연구원, 고용서비스는 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주로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이루어졌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2009년)과 삼성경제연구소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2010년)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2009)”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해마다 30~4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으로, 이들의 은퇴 러시는 이미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한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한다.

이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 조기은퇴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1)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와 이후 세대의 조세부담 증가, (2) 제조업 숙련 노동력 부족 현상 심화, (3)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4)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가치 하락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1)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늦추기 위한 제도 보완(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고령자 고용유지 장려금 인상), (2)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노인 일자리 질 개선, 실버산업 등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 (3) 조기은퇴자의 직무경험을 중소기업으로 전수하는 사업 확대, (4)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 정비(복지재정, 연금, 거주 등 재정지원 체계 정비), (5) 지원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책효율성 개선을 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베이비붐 세대 대량퇴직에 대해 적극적인 대비를 주문한 것이라면, 삼성경제연구소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2010년)은 이러한 진단과 언론 보도가 심각성을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한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69만 명으로 연평균 7만 명 정도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이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실태를 심층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규모를 추계하고, 두 연구소의 상반된 주장 중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밝히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8월) 원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를 살펴보고,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태를 살펴본 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자 결정요인과 임금근로-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의 구직활동과 활동상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8월) 원자료를 사용하여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실태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2009년 5월) 원자료를 사용하여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구직실태,

계속근로 희망 등을 분석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5년 뒤, 10년 뒤를 전망하려면 유의미하다고 판단해 분석했다.

제6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와 은퇴 규모를 추계하고, 제7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고용서비스 실태를 살펴본다. 끝으로 제8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제2장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실태와 결정요인

1. 주요 고용지표

2010년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가능 인구가 731만 명이고, 경제활동인구가 565만 명(경제활동참가율 77.2%), 비경제활동인구가 166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 553만 명(고용률 75.6%)과 실업자 12만 명(실업률 2.1%)으로 구성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베이비 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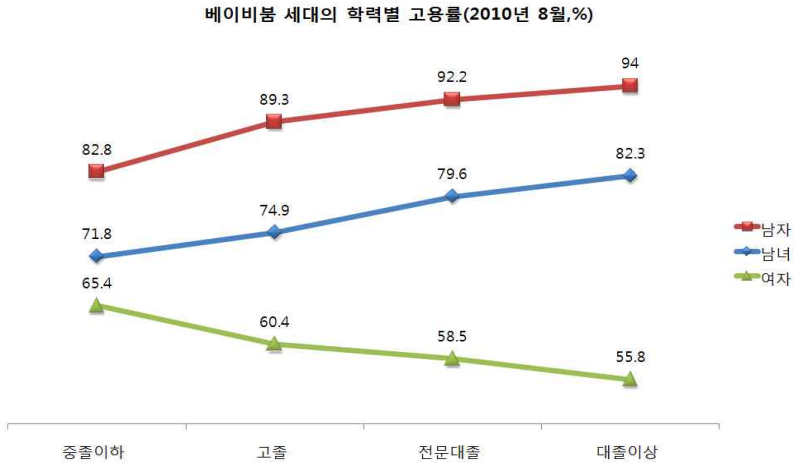
성별 고용률은 남자 89.3%, 여자 61.7%로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 학력별 고용률은 중졸이하(71.8%), 고졸(74.9%), 전문대졸(79.6%), 대졸이상(82.3%)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다. 베이비붐 세대 중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87.4%이고, 이혼(6.2%)과 사별(4.0%)이 10.2%다. 학력별 인구구성은 고졸(45.4%)과 중졸이하(30.2%)가 3/4, 대졸이상(19.4%)과 전문대졸(5.0%)이 1/4을 차지한다(<표 2-1> 참조).

<표 2-1>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남녀, 2010년 8월)

	수(천 명)			지표(%)			비중(%)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전체	7,312	5,648	5,530	77.2	75.6	2.1	100.0	100.0	100.0
남자	3,691	3,374	3,296	91.4	89.3	2.3	50.5	59.7	59.6
여자	3,621	2,274	2,234	62.8	61.7	1.8	49.5	40.3	40.4
미혼	175	102	92	58.3	52.6	9.8	2.4	1.8	1.7
유배우	6,390	4,968	4,883	77.7	76.4	1.7	87.4	88.0	88.3
사별	292	222	213	76.0	72.9	4.1	4.0	3.9	3.9
이혼	456	356	342	78.1	75.0	3.9	6.2	6.3	6.2
가구주	4,366	3,946	3,866	90.4	88.5	2.0	59.7	69.9	69.9
배우자	2,746	1,594	1,561	58.0	56.8	2.1	37.6	28.2	28.2
기타가구원	200	108	103	54.0	51.5	4.6	2.7	1.9	1.9
45-49세	2,915	2,317	2,269	79.5	77.8	2.1	39.9	41.0	41.0
50-54세	3,937	2,985	2,920	75.8	74.2	2.2	53.8	52.9	52.8
55-59세	458	345	341	75.3	74.5	1.2	6.3	6.1	6.2
중졸이하	2,209	1,627	1,586	73.7	71.8	2.5	30.2	28.8	28.7
고졸	3,316	2,540	2,485	76.6	74.9	2.2	45.4	45.0	44.9
전문대졸	367	295	292	80.4	79.6	1.0	5.0	5.2	5.3
대졸이상	1,418	1,185	1,167	83.6	82.3	1.5	19.4	21.0	21.1

남자는 학력별 고용률이 중졸이하(82.8%), 고졸(89.3%), 전문대졸(92.2%), 대졸이상(94.0%)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낮다. 그렇지만 여자는 중졸이하(65.4%), 고졸(60.4%), 전문대졸(58.5%), 대졸이상(55.8%)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이는 남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 가능성이 낮지만,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일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그림 2-2]와 <표 2-2>, <표 2-3> 참조).

[그림 2-2] 학력별 고용률(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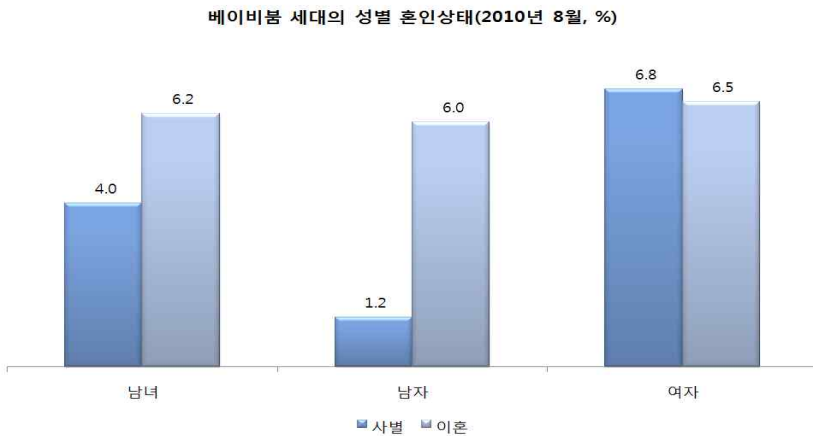
학력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대졸이상(26.7%)과 전문대졸(6.3%)이 33.0%인데, 여자는 대졸이상(11.9%)과 전문대졸(3.7%)이 15.6%로 남자의 절반에 못 미친다([그림 2-3]과 <표 2-2>, <표 2-3> 참조).

[그림 2-3] 성별 학력분포(2010년 8월)



인구구성에서 남자는 이혼(6.0%)과 사별(1.2%)이 7.2%인데, 여자는 이혼(6.5%)과 사별(6.8%)이 13.3%다. 이처럼 사별한 여성이 많은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그림 2-4]와 <표 2-2>, <표 2-3> 참조).

[그림 2-4] 성별 혼인상태(2010년 8월)



<표 2-2>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남자, 2010년 8월)

	수(천 명)			지표(%)			비중(%)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남자	3,691	3,374	3,297	91.4	89.3	2.3	100.0	100.0	100.0
미혼	121	69	62	57.0	51.2	10.1	3.3	2.0	1.9
유배우	3,304	3,091	3,035	93.6	91.9	1.8	89.5	91.6	92.1
사별	44	36	32	81.8	72.7	11.1	1.2	1.1	1.0
이혼	222	178	168	80.2	75.7	5.6	6.0	5.3	5.1
가구주	3,447	3,247	3,183	94.2	92.3	2.0	93.4	96.2	96.5
배우자	145	67	57	46.2	39.3	14.9	3.9	2.0	1.7
기타가구원	100	60	57	60.0	57.0	5.0	2.7	1.8	1.7
45-49세	1,485	1,380	1,349	92.9	90.8	2.2	40.2	40.9	40.9
50-54세	1,977	1,792	1,749	90.6	88.5	2.4	53.6	53.1	53.0
55-59세	229	202	199	88.2	86.9	1.5	6.2	6.0	6.0
중졸이하	804	688	666	85.6	82.8	3.2	21.8	20.4	20.2
고졸	1,669	1,532	1,490	91.8	89.3	2.7	45.2	45.4	45.2
전문대졸	231	214	213	92.6	92.2	0.5	6.3	6.3	6.5
대졸이상	985	938	926	95.2	94.0	1.3	26.7	27.8	28.1

〈표 2-3〉 베이비붐 세대의 주요 고용지표(여자, 2010년 8월)

	수(천 명)			지표(%)			비중(%)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취업자
여자	3,619	2,273	2,233	62.8	61.7	1.8	100.0	100.0	100.0
미혼	52	32	30	61.5	57.7	6.3	1.4	1.4	1.3
유배우	3,086	1,877	1,848	60.8	59.9	1.5	85.3	82.6	82.8
사별	247	186	181	75.3	73.3	2.7	6.8	8.2	8.1
이혼	234	178	174	76.1	74.4	2.2	6.5	7.8	7.8
가구주	918	698	683	76.0	74.4	2.1	25.4	30.7	30.6
배우자	2,602	1,528	1,505	58.7	57.8	1.5	71.9	67.2	67.4
기타가구원	100	48	46	48.0	46.0	4.2	2.8	2.1	2.1
45-49세	1,431	938	921	65.5	64.4	1.8	39.5	41.3	41.2
50-54세	1,961	1,194	1,172	60.9	59.8	1.8	54.2	52.5	52.5
55-59세	230	143	142	62.2	61.7	0.7	6.4	6.3	6.4
중졸이하	1,406	939	920	66.8	65.4	2.0	38.9	41.3	41.2
고졸	1,647	1,008	994	61.2	60.4	1.4	45.5	44.3	44.5
전문대졸	135	80	79	59.3	58.5	1.3	3.7	3.5	3.5
대졸이상	432	247	241	57.2	55.8	2.4	11.9	10.9	10.8

2. 취업과 임금·비임금 근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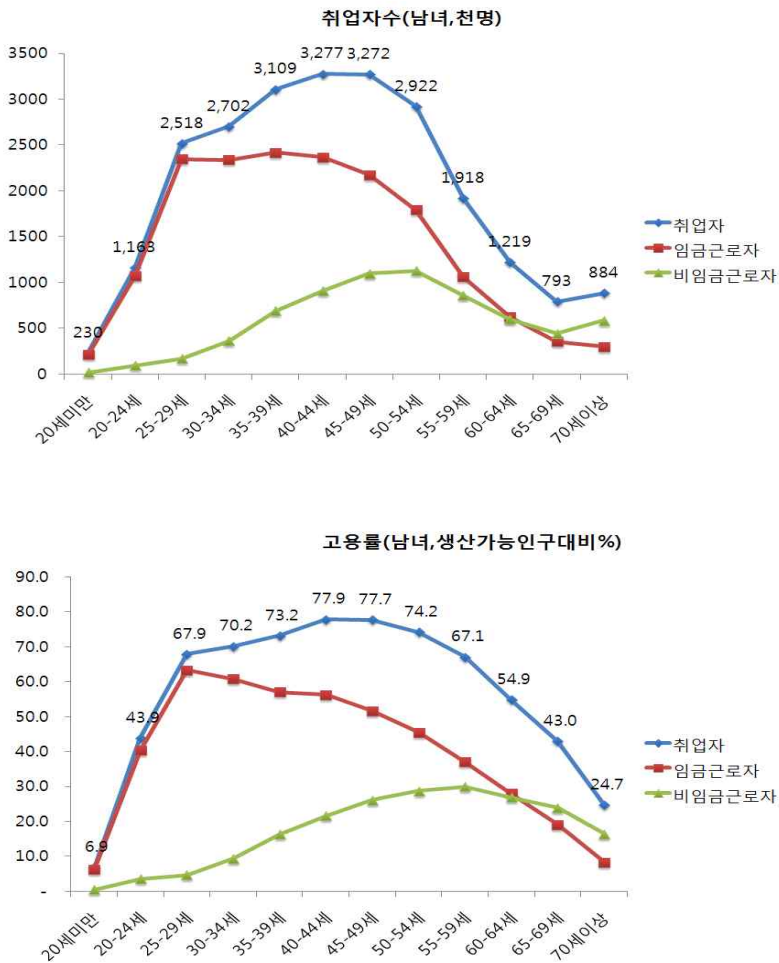
가. 남녀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에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연령층을 이루고 있다. 연령별 취업자에서 40대 후반(327만 명)은 40대 초반(328만 명)과 함께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292만 명)은 취업자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임금근로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234~242만 명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40대 후반(217만 명)부터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 40대 후반(110만 명)과 50대 초반(113만 명)에 정점을 이루고 있다(그림 2-5]와 <표 2-4> 참조).

연령별 고용률에서 40대 후반(77.7%)은 40대 초반(77.9%)과 함께 고

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74.2%)은 고용률이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임금근로자는 20대 후반(63.3%)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50대 후반(30.0%)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정에 변함이 없다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 임금근로자에서 비취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그림 2-5]와 <표 2-5> 참조).

[그림 2-5]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남녀, 2010년 8월)



〈표 2-4〉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1 (2010년 8월, 남녀)

(단위: 천 명)

	생산 가능인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40,654	24,839	24,007	17,048	6,959	832	15,815
베이비붐 비중(%)	7,310 18.0	5,646 22.7	5,529 23.0	3,453 20.3	2,076 29.8	117 14.1	1,664 10.5
20세미만	3,343	244	230	212	18	14	3,099
20-24세	2,647	1,271	1,163	1,068	95	108	1,376
25-29세	3,707	2,691	2,518	2,347	171	173	1,016
30-34세	3,847	2,821	2,702	2,339	363	119	1,026
35-39세	4,245	3,210	3,109	2,418	691	101	1,035
40-44세	4,208	3,362	3,277	2,367	910	85	846
45-49세	4,211	3,345	3,272	2,173	1,099	73	866
50-54세	3,939	2,987	2,922	1,793	1,129	65	952
55-59세	2,860	1,958	1,918	1,059	859	40	902
60-64세	2,222	1,253	1,219	622	597	34	969
65-69세	1,846	808	793	352	441	15	1,038
70세이상	3,579	889	884	298	586	5	2,690

〈표 2-5〉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 (2010년 8월, 남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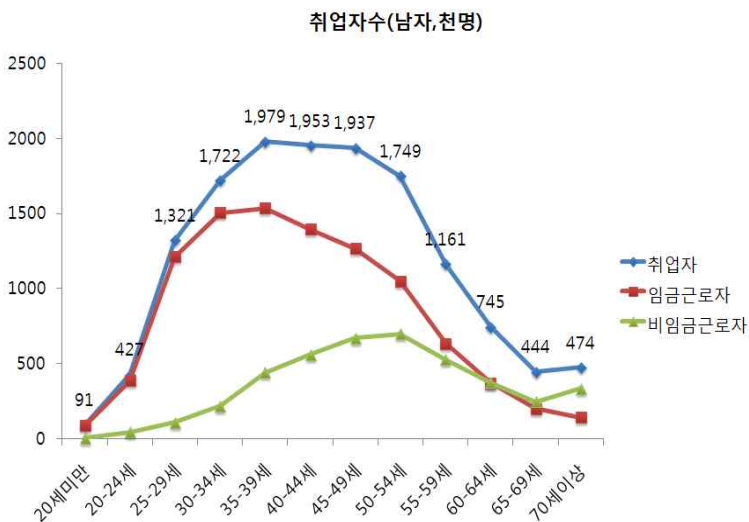
	생산 가능인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임노동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100.0	61.1	59.1	41.9	17.1	2.0	38.9
베이비붐	100.0	77.2	75.6	47.2	28.4	1.6	22.8
20세미만	100.0	7.3	6.9	6.3	0.5	0.4	92.7
20-24세	100.0	48.0	43.9	40.3	3.6	4.1	52.0
25-29세	100.0	72.6	67.9	63.3	4.6	4.7	27.4
30-34세	100.0	73.3	70.2	60.8	9.4	3.1	26.7
35-39세	100.0	75.6	73.2	57.0	16.3	2.4	24.4
40-44세	100.0	79.9	77.9	56.3	21.6	2.0	20.1
45-49세	100.0	79.4	77.7	51.6	26.1	1.7	20.6
50-54세	100.0	75.8	74.2	45.5	28.7	1.7	24.2
55-59세	100.0	68.5	67.1	37.0	30.0	1.4	31.5
60-64세	100.0	56.4	54.9	28.0	26.9	1.5	43.6
65-69세	100.0	43.8	43.0	19.1	23.9	0.8	56.2
70세이상	100.0	24.8	24.7	8.3	16.4	0.1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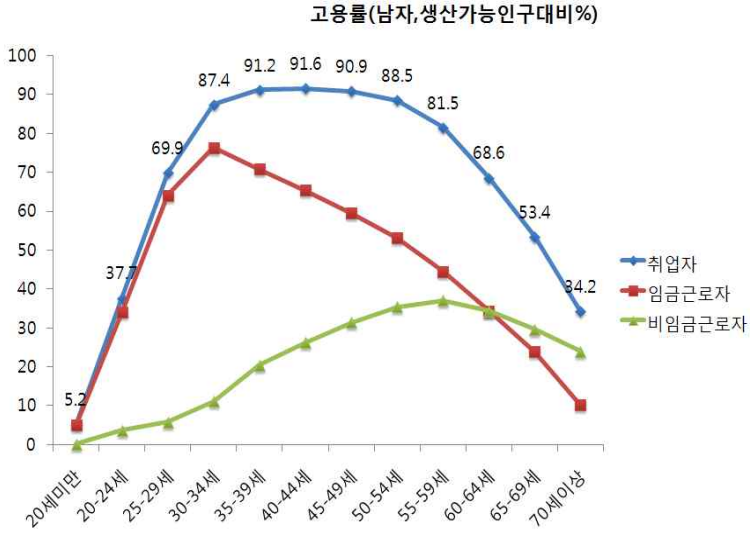
나. 남자

연령별 취업자에서 40대 후반(194만 명)은 30대 후반(198만 명), 40대 초반(195만 명)과 함께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175만 명)은 취업자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임금근로자는 30대 후반(15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40대 후반(67만 명)과 50대 초반(70만 명)에 정점을 이루고 있다([그림 2-6]과 <표 2-6> 참조).

연령계층별 고용률에서 40대 후반(90.9%)은 30대 후반(91.2%), 40대 초반(91.6%)과 함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88.5%)은 고용률이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임금근로자는 30대 초반(76.3%)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50대 후반(37.1%)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른 사정에 변함이 없다면 앞으로 베이비붐 남자 중 임금근로자에서 비취업 또는 비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그림 2-6]과 <표 2-7> 참조).

[그림 2-6]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남자, 2010년 8월)





〈표 2-6〉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1 (2010년 8월, 남자)

(단위: 천 명)

	생산 가능인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임노동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19,878	14,527	14,003	9,781	4,222	524	5,351
베이비붐 비중(%)	3,691 18.6	3,374 23.2	3,297 23.5	2,010 20.6	1,287 30.5	77 14.7	317 5.9
20세미만	1,746	99	91	87	4	8	1,647
20-24세	1,133	476	427	385	42	49	657
25-29세	1,890	1,431	1,321	1,212	109	110	459
30-34세	1,971	1,801	1,722	1,504	218	79	170
35-39세	2,170	2,047	1,979	1,537	442	68	123
40-44세	2,133	2,002	1,953	1,394	559	49	131
45-49세	2,130	1,985	1,937	1,268	669	48	145
50-54세	1,977	1,792	1,749	1,050	699	43	185
55-59세	1,424	1,190	1,161	633	528	29	234
60-64세	1,086	771	745	372	373	26	315
65-69세	832	455	444	198	246	11	377
70세이상	1,386	478	474	141	333	4	908

〈표 2-7〉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 (2010년 8월, 남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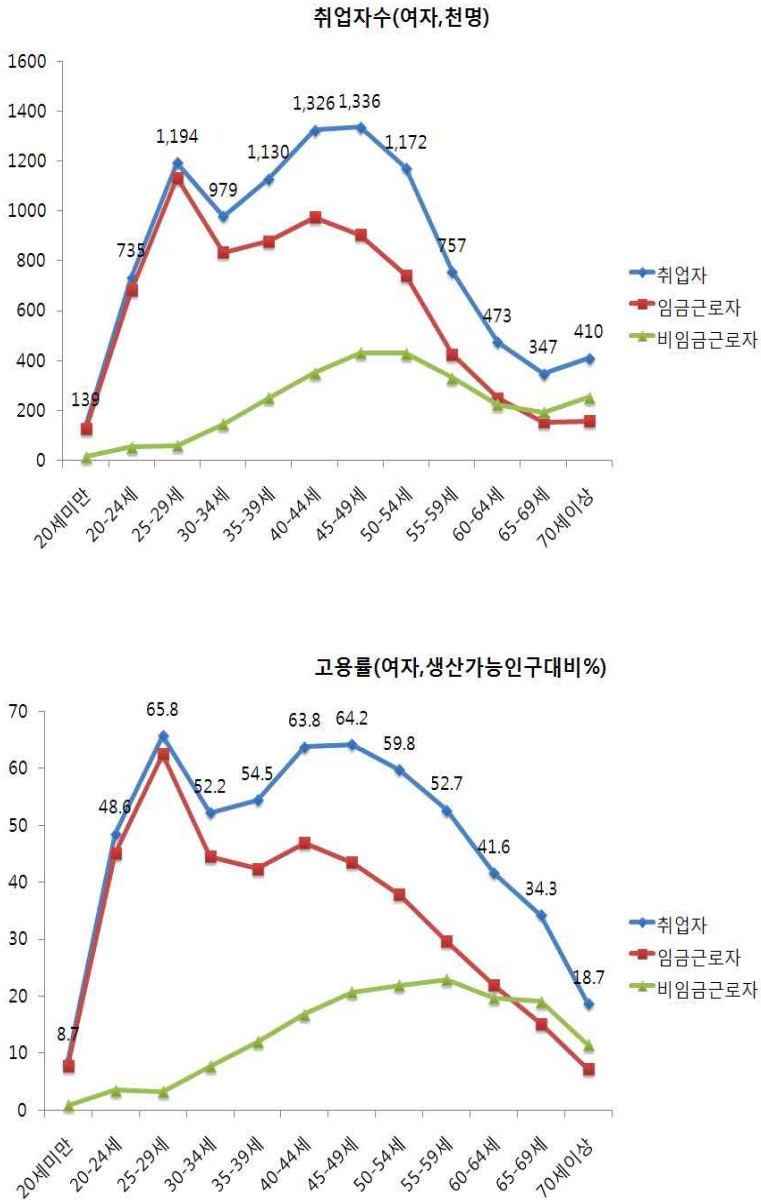
	생산 가능인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임노동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100.0	73.1	70.4	49.2	21.2	2.6	26.9
베이비붐	100.0	91.4	89.3	54.5	34.9	2.1	8.6
20세미만	100.0	5.7	5.2	5.0	0.2	0.5	94.3
20-24세	100.0	42.0	37.7	34.0	3.7	4.3	58.0
25-29세	100.0	75.7	69.9	64.1	5.8	5.8	24.3
30-34세	100.0	91.4	87.4	76.3	11.1	4.0	8.6
35-39세	100.0	94.3	91.2	70.8	20.4	3.1	5.7
40-44세	100.0	93.9	91.6	65.4	26.2	2.3	6.1
45-49세	100.0	93.2	90.9	59.5	31.4	2.3	6.8
50-54세	100.0	90.6	88.5	53.1	35.4	2.2	9.4
55-59세	100.0	83.6	81.5	44.5	37.1	2.0	16.4
60-64세	100.0	71.0	68.6	34.3	34.3	2.4	29.0
65-69세	100.0	54.7	53.4	23.8	29.6	1.3	45.3
70세이상	100.0	34.5	34.2	10.2	24.0	0.3	65.5

다. 여자

연령별 취업자에서 40대 후반(134만 명)은 40대 초반(133만 명)과 함께 취업자가 가장 많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117만 명)은 취업자가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임금근로자는 40대 초반(98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40대 후반(43만 명)과 50대 초반(43만 명)에 정점을 이루고 있다([그림 2-7]과 <표 2-8> 참조).

연령별 고용률에서 40대 후반(64.2%)은 20대 후반(65.8%) 및 40대 초반(63.8%)과 함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59.8%)은 고용률이 감소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생산가능 인구 대비) 임금근로자는 40대 초반(46.9%)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50대 후반(23.0%)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른 사정에 변함없다면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여자 중 임금근로자에서 비취업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그림 2-7]과 <표 2-9> 참조).

[그림 2-7] 연령계층별 취업자와 고용률(여자, 2010년 8월)



〈표 2-8〉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1 (2010년 8월, 여자)

(단위: 천 명)

	생산 가능인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임노동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20,771	10,306	9,998	7,264	2,734	308	10,465
베이비붐 비중(%)	3,621 17.4	2,274 22.1	2,234 22.3	1,443 19.9	791 28.9	40 13.0	1,347 12.9
20세미만	1,597	145	139	125	14	6	1,452
20-24세	1,513	794	735	682	53	59	719
25-29세	1,814	1,257	1,194	1,134	60	63	557
30-34세	1,874	1,019	979	834	145	40	855
35-39세	2,075	1,163	1,130	880	250	33	912
40-44세	2,077	1,362	1,326	975	351	36	715
45-49세	2,082	1,361	1,336	905	431	25	721
50-54세	1,961	1,194	1,172	743	429	22	767
55-59세	1,437	768	757	426	331	11	669
60-64세	1,136	481	473	249	224	8	655
65-69세	1,012	351	347	154	193	4	661
70세이상	2,193	411	410	157	253	1	1,782

〈표 2-9〉 연령계층별 주요 고용지표2 (2010년 8월, 여자)

(단위: %)

	생산 가능인구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임노동자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체	100.0	49.6	48.1	35.0	13.2	1.5	50.4
베이비붐	100.0	62.8	61.7	39.9	21.8	1.1	37.2
20세미만	100.0	9.1	8.7	7.8	0.9	0.4	90.9
20-24세	100.0	52.5	48.6	45.1	3.5	3.9	47.5
25-29세	100.0	69.3	65.8	62.5	3.3	3.5	30.7
30-34세	100.0	54.4	52.2	44.5	7.7	2.1	45.6
35-39세	100.0	56.0	54.5	42.4	12.0	1.6	44.0
40-44세	100.0	65.6	63.8	46.9	16.9	1.7	34.4
45-49세	100.0	65.4	64.2	43.5	20.7	1.2	34.6
50-54세	100.0	60.9	59.8	37.9	21.9	1.1	39.1
55-59세	100.0	53.4	52.7	29.6	23.0	0.8	46.6
60-64세	100.0	42.3	41.6	21.9	19.7	0.7	57.7
65-69세	100.0	34.7	34.3	15.2	19.1	0.4	65.3
70세이상	100.0	18.7	18.7	7.2	11.5	0.0	81.3

3.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가. 연령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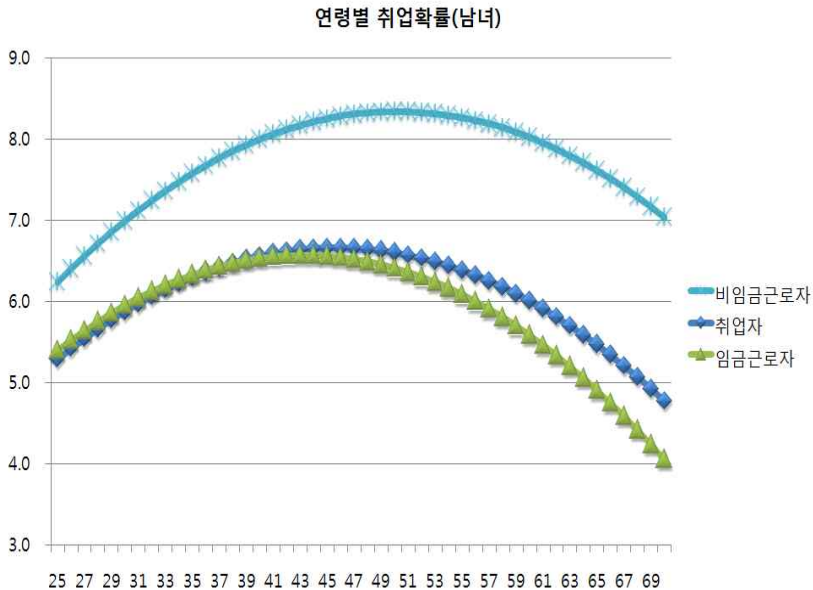
<표 2-10>에서 (모형1)은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취업할 확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높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가구주 관계별로는 ‘가구주>기타가구원>배우자’ 순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만46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

(모형2)에서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취업자 결정요인과 거의 동일하다. 만43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등 계수 값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고, 전문대졸 이외에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만50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표 2-10>과 [그림 2-8] 참조).

<표 2-10>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남녀, 비취업자 기준)

	(모형1) 로짓분석		(모형2) 다항로짓분석			
	취업자		임금		비임금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여자	-0.305	0.000	-0.158	0.000	-0.704	0.000
기혼	-0.210	0.000	-0.158	0.004	0.127	0.080
배우자	-1.618	0.000	-1.831	0.000	-1.185	0.000
기타가구원	-1.150	0.000	-1.083	0.000	-1.297	0.000
연령	0.292	0.000	0.304	0.000	0.333	0.000
연령제곱	-0.003	0.000	-0.004	0.000	-0.003	0.000
중졸이하	-0.539	0.000	-0.726	0.000	-0.005	0.916
고졸	-0.341	0.000	-0.438	0.000	0.033	0.425
전문대졸	0.329	0.000	0.292	0.000	0.349	0.000
상수	-3.381	0.000	-3.809	0.000	-6.720	0.000
관측치	67,766		67,766			
로그우도비	-34,796		-55,996			
모형 설명력	0.241		0.199			

[그림 2-8] 연령별 취업확률 곡선(남녀)



<표 2-11>에서 (모형1)은 남자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는 남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남자가 취업할 확률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가구주 관계별로는 '가구주>기타가구원>배우자' 순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만43~44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

(모형2)에서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취업자 결정요인과 거의 동일하다. 만41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등 계수 값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전문대졸>고졸>대졸이상>중졸이하' 순으로 높고, 만48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표 2-11> 참조).

<표 2-11>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남자, 비취업자 기준)

	(모형1) 로짓분석		(모형2) 다항로짓분석			
	취업자		임금		비임금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기혼	0.768	0.000	0.729	0.000	1.101	0.000
배우자	-2.706	0.000	-2.762	0.000	-2.618	0.000
기타가구원	-1.165	0.000	-1.114	0.000	-1.348	0.000
연령	0.297	0.000	0.309	0.000	0.337	0.000
연령제곱	-0.003	0.000	-0.004	0.000	-0.004	0.000
중졸이하	-0.743	0.000	-0.979	0.000	-0.163	0.015
고졸	-0.365	0.000	-0.517	0.000	0.116	0.061
전문대졸	0.581	0.000	0.490	0.000	0.725	0.000
상수	-4.871	0.000	-4.944	0.000	-8.654	0.000
관측치	31,648		31,648			
로그우도비	-12,404		-24,525			
모형 설명력	0.354		0.254			

<표 2-12>에서 (모형1)은 여자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는 여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여자가 취업할 확률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높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가구주 관계별로는 ‘가구주>배우자>기타가구원’ 순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만48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

(모형2)에서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취업자 결정요인과 거의 동일하다. 만45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등 계수 값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전혀 유의미하지 않고, 만53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표 2-12> 참조).

〈표 2-12〉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여자, 비취업자 기준)

	(모형1) 로짓분석		(모형2) 다항로짓분석			
	취업자		임금		비임금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기혼	-1.333	0.000	-1.172	0.000	-1.134	0.000
배우자	-0.796	0.000	-1.062	0.000	-0.324	0.000
기타가구원	-0.898	0.000	-0.852	0.000	-1.020	0.000
연령	0.289	0.000	0.304	0.000	0.316	0.000
연령제곱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중졸이하	-0.296	0.000	-0.437	0.000	0.071	0.275
고졸	-0.221	0.000	-0.251	0.000	-0.091	0.147
전문대졸	0.310	0.000	0.337	0.000	0.066	0.497
상수	-2.892	0.000	-3.290	0.000	-6.342	0.000
관측치	36,118		36,118			
로그우도비	-21,931		-30,801			
모형 설명력	0.123		0.125			

나. 베이비붐 세대

<표 2-13>에서 (모형1)은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는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취업할 확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다. 그렇지만 학력과 연령은 취업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형2)에서 연령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학력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전문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고졸 이하는 임금근로자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고, 비임금근로자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표 2-13> 참조).

〈표 2-13〉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남녀, 베이비붐 세대)

	(모형1) 로짓분석		(모형2) 다항로짓분석			
	취업자		임금		비임금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여자	-0.881	0.000	-0.689	0.000	-1.233	0.000
기혼	1.590	0.000	1.510	0.000	1.780	0.000
배우자	-1.252	0.000	-1.419	0.000	-0.946	0.000
기타가구원	-1.453	0.000	-1.295	0.000	-1.861	0.000
연령	-0.450	0.262	-0.355	0.406	-0.586	0.206
연령제곱	0.004	0.323	0.003	0.493	0.005	0.240
중졸이하	-0.018	0.823	-0.194	0.023	0.322	0.001
고졸	-0.126	0.095	-0.300	0.000	0.209	0.019
전문대졸	-0.059	0.661	-0.081	0.560	-0.009	0.955
상수	12.861	0.205	10.224	0.344	14.768	0.207
관측치	12,756		12,756			
로그우도비	-6,057		-12,344			
모형 설명력	0.145		0.083			

<표 2-14>에서 (모형1)은 남자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는 남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남자가 취업할 확률은 기혼자와 가구주가 높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이고, 연령은 남자가 취업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모형2)에서 연령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학력은 ‘대졸이상≒전문대졸>고졸>중졸이하’ 순으로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중졸이하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표 2-14> 참조).

〈표 2-14〉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남자, 베이비붐 세대)

	(모형1) 로짓분석		(모형2) 다항로짓분석			
	취업자		임금		비임금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기혼	2.046	0.000	1.952	0.000	2.218	0.000
배우자	-3.046	0.000	-3.171	0.000	-2.886	0.000
기타가구원	-1.331	0.000	-1.038	0.000	-2.017	0.000
연령	-0.005	0.995	0.096	0.906	-0.140	0.867
연령제곱	0.000	0.949	-0.002	0.846	0.001	0.909
중졸이하	-0.888	0.000	-1.116	0.000	-0.499	0.002
고졸	-0.488	0.001	-0.709	0.000	-0.110	0.466
전문대졸	-0.099	0.699	-0.129	0.616	-0.038	0.889
상수	0.479	0.981	-2.062	0.920	2.108	0.920
관측치	6,224		6,224			
로그우도비	-1,745		-5,401			
모형 설명력	0.175		0.074			

<표 2-15>에서 (모형1)은 여자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는 여자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여자가 취업할 확률은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높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가구주 관계별로는 ‘가구주>배우자>기타가구원’ 순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만48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

(모형2)에서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취업자 결정요인과 거의 동일하다. 만45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이 낮아지는 등 계수 값에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학력에 따른 차이가 전혀 유의미하지 않고, 만53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낮아진다(<표 2-15> 참조).

〈표 2-15〉 취업자와 임금-비임금근로 결정요인 로짓분석 결과(여자, 베이비붐 세대)

	(모형1) 로짓분석		(모형2) 다항로짓분석			
	취업자		임금		비임금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계수값	p값
기혼	0.396	0.145	0.407	0.167	0.419	0.271
배우자	-0.768	0.000	-0.975	0.000	-0.347	0.000
기타가구원	-1.214	0.000	-1.221	0.000	-1.192	0.000
연령	-0.656	0.158	-0.584	0.256	-0.750	0.205
연령제곱	0.006	0.195	0.005	0.311	0.007	0.228
중졸이하	0.455	0.000	0.350	0.002	0.653	0.000
고졸	0.191	0.052	0.099	0.357	0.368	0.006
전문대졸	0.083	0.641	0.088	0.646	0.069	0.783
상수	17.918	0.127	16.117	0.215	18.360	0.221
관측치	6,532		6,532			
로그우도비	-4,234		-6,810			
모형 설명력	0.026		0.022			

4. 소결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주요 고용지표와 취업자, 임금근로-비임금근로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731만 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565만 명(경제활동참가율 77.2%), 비경제활동인구는 166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 553만 명(고용률 75.6%)과 실업자 12만 명(실업률 2.1%)으로 구성된다.

둘째, 성별 고용률은 남자 89.3%, 여자 61.7%로 남자가 높다. 학력별 고용률은 중졸이하(71.8%), 고졸(74.9%), 전문대졸(79.6%), 대졸이상(82.3%)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다. 남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고, 여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다. 이는 저학력 남성은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고, 고학력 여성은 취업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고졸(45.4%)과 중졸이하(30.2%) 학력이 3/4을 차지하고, 대졸이상(19.4%)과 전문대졸(5.0%) 학력이 1/4을 차지한다. 남자는 대졸이상(26.7%)과 전문대졸(6.3%)이 1/3인데, 여자는 대졸이상(11.9%)과 전문대졸(3.7%)이 1/6이 안 되는 등 남녀 간에 학력차이가 크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는 혼인상태에서 이혼(6.2%)과 사별(4.0%)이 10.2%다. 남자는 이혼(6.0%)과 사별(1.2%)이 7.2%인데, 여자는 이혼(6.5%)과 사별(6.8%)이 13.3%다. 이처럼 사별한 여성이 많은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 중 40대 후반은 고용률이 77.7%로 40대 초반과 함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고, 50대 초반은 74.2%로 감소세로 접어든 연령층이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 후반까지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며, 임금근로자에서 비취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남녀를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여섯째, 인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만46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정점이 만43세인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 결정요인과 대체로 동일하다. 비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전문대졸 이외에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50세를 정점으로 취업할 확률이 떨어진다.

일곱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을 뿐, 학력과 연령은 취업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결정요인도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고,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전문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고졸이하가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낮고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높다.

제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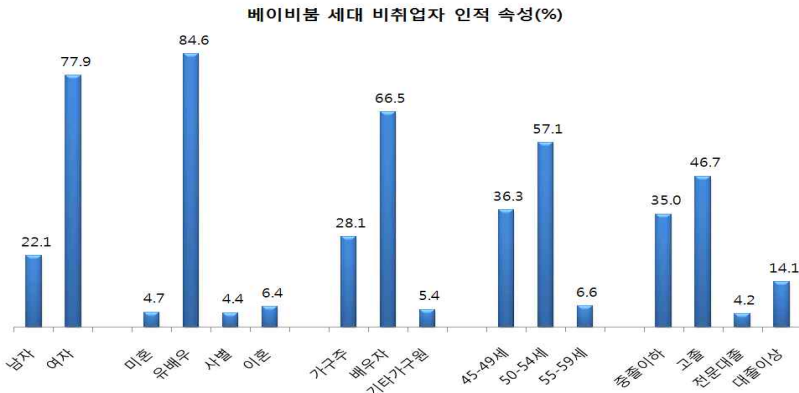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

1. 비취업자 활동상태

2010년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는 178만 명이며,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 166만 명, 실업자 1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취업자의 인적 속성을 살펴보면, 남자 40만 명(22.1%), 여자 139만 명(77.9%)이고, 사별 또는 이혼이 19만 명(10.8%)에 이른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25만 명(14.1%), 전문대졸이 8만 명(4.2%), 고졸이 83만 명(46.7%), 중졸이하가 62만 명(35.0%)이다([그림 3-1]과 <표 3-1>, <표 3-2> 참조).

[그림 3-1] 베이비붐 세대의 비취업자 인적 속성 분포(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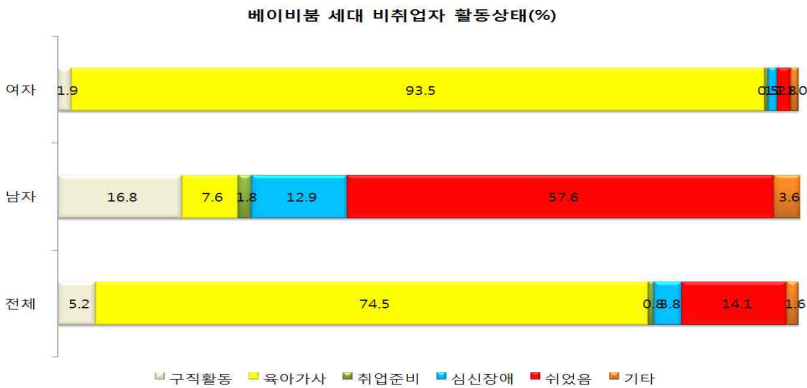
(단위: %)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남녀 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남자는 '쉬었음'이 23만 명(57.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구직활동 7만 명(16.8%), 심신장애 5만 명(12.9%), 육아가사 3만 명(7.6%) 순이다. 이에 비해 여자는 육아가사가 130만 명(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그림 3-2]와 <표 3-1>, <표 3-2> 참조).

[그림 3-2]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 분포(2010년 8월)

(단위: %)



<표 3-1>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1 (2010년 8월, 남녀)

(단위: 천 명)

	비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구직 활동	육아 가사	취업 준비	심신 장애	쉬었음	기타
전체	1,781	117	1,664	92	1,327	14	68	252	28
남자	394	77	317	66	30	7	51	227	14
여자	1,387	40	1,347	26	1,297	7	17	25	14
미혼	83	10	73	7	20		23	29	3
유배우	1,507	85	1,422	67	1,192	9	35	182	21
사별	79	9	70	7	61	1	3	6	1
이혼	114	14	100	10	55	3	7	34	4
가구주	500	80	420	63	226	7	22	167	14
배우자	1,185	33	1,152	25	1,057	6	23	62	12
기타가구원	97	5	92	4	45	-	23	22	3
45-49세	646	48	598	36	487	3	27	80	12
50-54세	1,017	65	952	51	753	10	38	149	16
55-59세	118	5	113	4	87	-	4	22	1
중졸이하	623	41	582	28	449	4	39	95	7
고졸	832	56	776	48	636	5	26	104	14
전문대졸	74	2	72	2	55	2	1	14	1
대졸이상	251	18	233	14	186	2	3	38	6

〈표 3-2〉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활동상태2 (2010년 8월, 남녀)

(단위: %)

	비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구직 활동	육아 가사	취업 준비	심신 장애	쉬었음	기타
전체	100.0	6.6	93.4	5.2	74.5	0.8	3.8	14.1	1.6
남자	100.0	19.5	80.5	16.8	7.6	1.8	12.9	57.6	3.6
여자	100.0	2.9	97.1	1.9	93.5	0.5	1.2	1.8	1.0
미혼	100.0	12.0	88.0	8.4	24.1	-	27.7	34.9	3.6
유배우	100.0	5.6	94.4	4.4	79.1	0.6	2.3	12.1	1.4
사별	100.0	11.4	88.6	8.9	77.2	1.3	3.8	7.6	1.3
이혼	100.0	12.3	87.7	8.8	48.2	2.6	6.1	29.8	3.5
가구주	100.0	16.0	84.0	12.6	45.2	1.4	4.4	33.4	2.8
배우자	100.0	2.8	97.2	2.1	89.2	0.5	1.9	5.2	1.0
기타가구원	100.0	5.2	94.8	4.1	46.4	-	23.7	22.7	3.1
45-49세	100.0	7.4	92.6	5.6	75.4	0.5	4.2	12.4	1.9
50-54세	100.0	6.4	93.6	5.0	74.0	1.0	3.7	14.7	1.6
55-59세	100.0	4.2	95.8	3.4	73.7	-	3.4	18.6	0.8
중졸이하	100.0	6.6	93.4	4.5	72.1	0.6	6.3	15.2	1.1
고졸	100.0	6.7	93.3	5.8	76.4	0.6	3.1	12.5	1.7
전문대졸	100.0	2.7	97.3	2.7	74.3	2.7	1.4	18.9	1.4
대졸이상	100.0	7.2	92.8	5.6	74.1	0.8	1.2	15.1	2.4

2. 비경제활동인구 구직활동 포기 이유

베이비붐 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은 13만 명(8.1%)이고, 이 가운데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11만 명(6.4%)이다. 그럼에도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8.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이전에 찾아봤으나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23.1%),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6.4%)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대부분 실망실업자인 것이다.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5%)에 응답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표 3-3>과 <표 3-4> 참조).

〈표 3-3〉 베이비붐 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와 즉시취업 가능자(2010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경제 활동인구	구직의사	즉시 취업가능	비경제 활동인구	구직의사	즉시 취업가능
전체	1,664	134	107	100.0	8.1	6.4
남자	317	59	49	100.0	18.6	15.5
여자	1,347	75	58	100.0	5.6	4.3
미혼	73	8	6	100.0	11.0	8.2
유배우	1,422	107	87	100.0	7.5	6.1
사별	70	6	5	100.0	8.6	7.1
이혼	100	13	10	100.0	13.0	10.0
가구주	420	58	45	100.0	13.8	10.7
배우자	1,152	72	60	100.0	6.3	5.2
기타가구원	92	4	2	100.0	4.3	2.2
45-49세	598	48	39	100.0	8.0	6.5
50-54세	952	78	62	100.0	8.2	6.5
55-59세	113	8	6	100.0	7.1	5.3
중졸이하	582	40	29	100.0	6.9	5.0
고졸	776	70	55	100.0	9.0	7.1
전문대졸	72	8	8	100.0	11.1	11.1
대졸이상	233	17	16	100.0	7.3	6.9

〈표 3-4〉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안한 이유(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단위: %)

	구직 의사	전공경력 에맞는일 거리가없 을것같아	원하는임 금,근로 조건맞는 일자리없 을것같아	근처에일 거리가없 을것같아	교육기술 경험이부 족해서	나이가 너무어려 거나많다 고고용주 가생각할 것같아	이전에찾 아봤으나 일거리가 없었기때 문에	기타
전체	100.0	4.5	28.4	16.4	1.5	4.5	23.1	21.6
남자	100.0	6.8	28.8	15.3	1.7	3.4	27.1	18.6
여자	100.0	2.7	28.0	17.3	1.3	5.3	20.0	24.0
미혼	100.0	-	12.5	12.5	-	-	25.0	37.5
유배우	100.0	5.6	29.9	16.8	2.8	3.7	21.5	19.6
사별	100.0	-	16.7	33.3	-	16.7	16.7	16.7
이혼	100.0	-	30.8	7.7	-	-	38.5	30.8
가구주	100.0	3.4	25.9	15.5	-	3.4	27.6	25.9
배우자	100.0	5.6	33.3	16.7	4.2	5.6	18.1	18.1
기타가구원	100.0	-	-	25.0	-	-	50.0	25.0
45-49세	100.0	2.1	37.5	14.6	2.1	2.1	18.8	20.8
50-54세	100.0	5.1	25.6	16.7	1.3	6.4	24.4	21.8
55-59세	100.0	12.5	-	12.5	-	-	37.5	50.0
중졸이하	100.0	-	20.0	25.0	-	5.0	20.0	30.0
고졸	100.0	1.4	28.6	14.3	1.4	4.3	24.3	22.9
전문대졸	100.0	12.5	50.0	12.5	-	-	25.0	-
대졸이상	100.0	23.5	41.2	-	5.9	5.9	17.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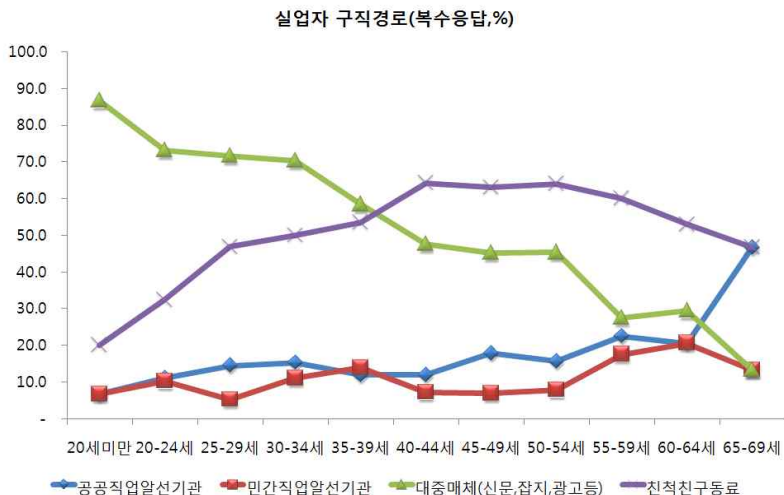
3. 실업자 구직활동

가. 실업자 구직경로

전체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58.2%), ‘친척, 친구, 동료 등 인간관계’(51.0%), 공공직업알선기관(15.2%), 민간직업알선기관(9.9%) 순이다. 이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는 ‘친척, 친구, 동료’(63.2%),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43.6%), 공공직업알선기관(17.1%), 민간직업알선기관(9.4%) 순으로, 전체 실업자에 비해 대중매체 비중은 낮고 인간관계 비중이 높다.

연령계층별로 실업자 구직경로를 살펴보면, 젊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대중매체 비중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그 대신 40~50대에는 인간관계 비중이 60%를 넘어선다. 50대 후반 이후 고령자들은 공공직업알선기관과 민간직업알선기관 비중이 각각 20%선을 넘어선다([그림 3-3]과 <표 3-5> 참조).

[그림 3-3] 실업자 구직경로(2010년 8월)



〈표 3-5〉 실업자 구직 경로(2010년 8월, 남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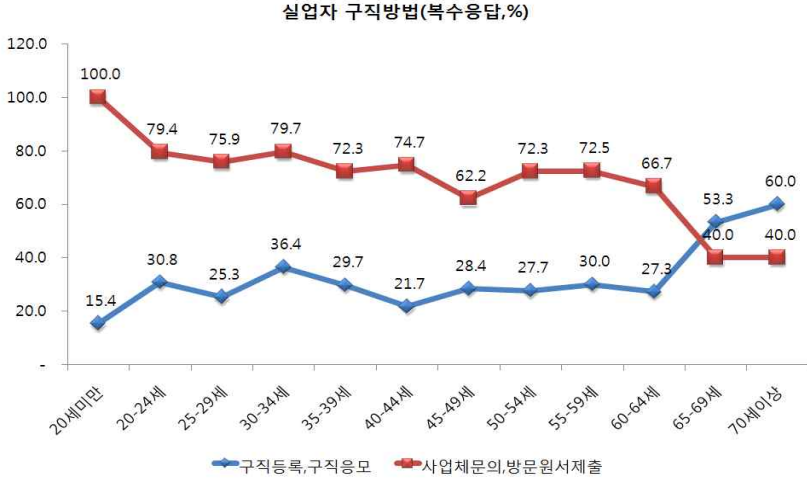
(단위: %)

	실업자	공공직업 알선기관	민간직업 알선기관	대중매체 (신문잡지 광고 등)	친척친구 동료	기타 (학교학원 추천포함)
전체	100.0	15.2	9.9	58.2	51.0	7.8
베이비붐	100.0	17.1	9.4	43.6	63.2	6.8
20세미만	100.0	6.7	6.7	86.7	20.0	6.7
20-24세	100.0	11.1	10.2	73.1	32.4	12.0
25-29세	100.0	14.5	5.2	71.7	46.8	7.5
30-34세	100.0	15.3	11.0	70.3	50.0	5.1
35-39세	100.0	11.9	13.9	58.4	53.5	7.9
40-44세	100.0	11.9	7.1	47.6	64.3	11.9
45-49세	100.0	17.8	6.8	45.2	63.0	6.8
50-54세	100.0	15.6	7.8	45.3	64.1	6.3
55-59세	100.0	22.5	17.5	27.5	60.0	7.5
60-64세	100.0	20.6	20.6	29.4	52.9	5.9
65-69세	100.0	46.7	13.3	13.3	46.7	-
70세이상	100.0	33.3	33.3	16.7	33.3	-

나. 실업자 구직방법

전체 실업자의 구직방법은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73.8%), ‘구직등록, 구직응모’(29.1%), 자영업 준비(7.6%) 순이다.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는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72.0%), ‘구직등록, 구직응모’(29.7%), 자영업 준비(8.5%) 순으로 서로 비슷하다. 공공 또는 민간 직업알선기관 ‘구직등록, 구직응모’는 20~50대 연령층에서 22~36%선을 유지하다가 60대 후반 이후로는 50%선을 넘어선다(〈그림 3-4〉와 〈표 3-6〉 참조).

[그림 3-4] 실업자 구직방법(2010년 8월)



〈표 3-6〉 실업자 구직방법과 희망하는 고용형태(2010년 8월, 남녀, 복수응답)
단위: %

	실업자	구직방법					임금근로 희망비율
		시험응시	구직등록, 구직응모 ¹⁾	사업체문의, 방문 원서제출	자영업 준비	기타	
전체	100.0	3.3	29.1	73.8	7.6	5.7	91.6
베이비붐	100.0	0.8	29.7	72.0	8.5	9.3	90.7
20세미만	100.0		15.4	100.0			100.0
20-24세	100.0	6.5	30.8	79.4	1.9	1.9	98.1
25-29세	100.0	7.5	25.3	75.9	5.7	3.4	94.8
30-34세	100.0	3.4	36.4	79.7	4.2	5.1	94.1
35-39세	100.0	1.0	29.7	72.3	12.9	4.0	85.1
40-44세	100.0	1.2	21.7	74.7	12.0	10.8	86.9
45-49세	100.0		28.4	62.2	18.9	9.5	80.8
50-54세	100.0	1.5	27.7	72.3	6.2	9.2	92.3
55-59세	100.0		30.0	72.5	10.0	5.0	90.0
60-64세	100.0		27.3	66.7	3.0	9.1	94.1
65-69세	100.0		53.3	40.0		13.3	93.3
70세이상	100.0		60.0	40.0			100.0

주1): 주로 공공민간 알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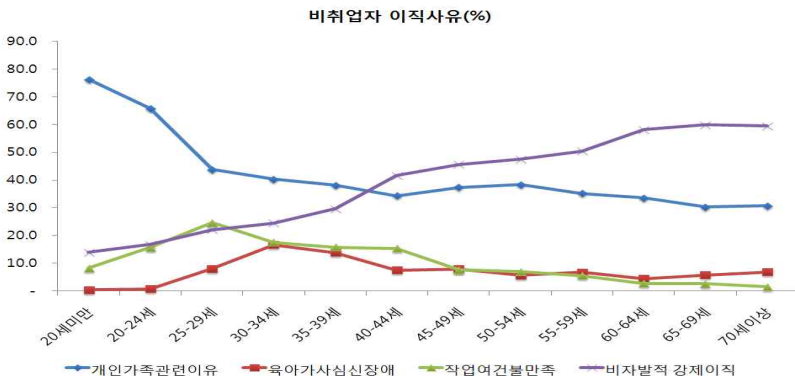
다. 실업자 희망 고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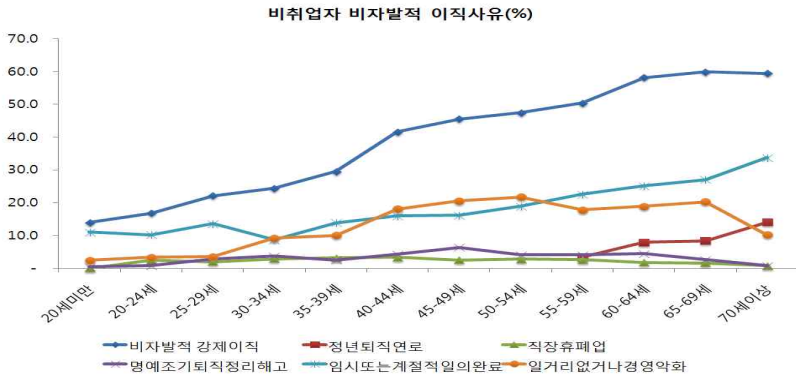
실업자들이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가 91.6%, 비임금근로가 8.4%다.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들도 90.7%가 임금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임금근로 희망자 비율은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81~87%)을 저점으로 U자형을 그리고 있다. 이는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 연령층에서 '자영업 준비'에 응답한 사람이 12~19%에 이르는 것과 일치한다. 50대가 넘어서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도 희망자 비율이 줄어든다(<표 3-6> 참조).

4. 비취업자 이직사유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는 이직사유를 '비자발적 강제이직'(47.1%), '개인·가족관련 이유'(38.5%), '작업여건 불만족'(6.9%), '육아, 가사, 심신장애'(6.2%) 순으로 답하고 있다. 비자발적 강제이직은 '일거리가 없거나 경영악화'(20.7%),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8.2%),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5.1%), '직장휴폐업'(2.3%) 순으로 구성된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자발적 강제이직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그림 3-5]와 <표 3-7> 참조).

[그림 3-5] 비취업자 이직사유(2010년 8월)





〈표 3-7〉 비취업자 이직 사유(2010년 8월, 남녀)

(단위: %)

	응답 률	응답 자	개인 가족 관련 이유	육아 가사 심신 장애	작업 여건 불만 족	비자발적강제이직					
						소계	정년 퇴직 연로	직장 휴폐 업	명예 퇴직 정리 해고	임시 또는 계절 적일 완료	일거 리없 거나 경영 악화
전체	22.9	100.0	43.5	7.0	11.9	36.1	2.1	2.3	3.0	16.8	11.9
베이비붐	31.7	100.0	38.4	6.2	6.9	47.1		3.0	5.1	18.2	20.7
20세미만	7.8	100.0	76.2	0.4	8.2	13.9		-	0.4	11.1	2.5
20-24세	36.2	100.0	65.7	0.7	15.6	16.8		2.4	0.7	10.2	3.4
25-29세	37.7	100.0	43.8	8.0	24.6	22.1		2.0	2.9	13.6	3.6
30-34세	30.4	100.0	40.2	16.7	17.5	24.4		2.9	3.7	8.6	9.2
35-39세	28.0	100.0	38.1	13.8	15.7	29.6		3.1	2.5	13.8	10.1
40-44세	35.7	100.0	34.3	7.5	15.4	41.6		3.3	4.2	16.0	18.1
45-49세	33.7	100.0	37.3	7.9	7.6	45.6		2.5	6.3	16.1	20.6
50-54세	31.2	100.0	38.4	5.7	6.9	47.5		2.8	4.1	18.9	21.7
55-59세	28.7	100.0	35.2	6.7	5.6	50.4	3.3	2.6	4.1	22.6	17.8
60-64세	22.6	100.0	33.5	4.4	2.6	58.1	7.9	1.8	4.4	25.1	18.9
65-69세	18.2	100.0	30.2	5.7	2.6	59.9	8.3	1.6	2.6	27.1	20.3
70세이상	9.8	100.0	30.7	6.8	1.5	59.5	14.0	0.8	0.8	33.7	10.2

5. 소결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178만 명 가운데 여성은 139만 명(77.9%)으로 남성 40만 명(22.1%)보다 훨씬 많다. 혼인상태에서 사별 또는 이혼이 19만 명(10.8%)이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25만 명(14.1%), 전문대졸이 8만 명(4.2%), 고졸이 83만 명(46.7%), 중졸이하가 62만 명(35.0%)으로, 고졸이하가 81.7%를 차지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남녀 차이가 뚜렷하다. 남자는 '쉬었음'이 23만 명(57.6%), 구직활동 7만 명(16.8%), 심신장애 5만 명(12.9%) 순인데, 여자는 육아가사가 130만 명(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은 13만 명(8.1%)이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11만 명(6.4%)이다. 그럼에도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8.4%), '이전에 찾아봤으나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23.1%),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6.4%) 순이다. 이에 비해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5%)는 그 비중이 미미하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친척, 친구, 동료'(63.2%),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43.6%), 공공직업알선기관(17.1%), 민간직업알선기관(9.4%) 순이다. 50대 후반 이후 고령자들은 공공직업알선기관과 민간직업알선기관 비중이 각각 20%선을 넘어선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의 구직방법은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72.0%), '구직등록, 구직응모'(29.7%), 자영업 준비(8.5%) 순이다. 공공 또는 민간 직업알선기관 '구직등록, 구직응모'는 20~50대 연령층에서 22~36%선이다가 60대 후반 이후 50%선을 넘어선다.

여섯째,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는 90.7%가 임금근로를 희망한다.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에는 비임금근로 희망자가 13~19%지만, 50대가 넘어서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 희망자가 줄어든다.

일곱째,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강제이직’(47.1%), ‘개인·가족관련 이유’(38.5%), ‘작업여건 불만족’(6.9%), ‘육아, 가사, 심신장애’(6.2%) 순이다. 여기서 비자발적 강제이직은 ‘일거리가 없거나 경영악화’(20.7%),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8.2%),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5.1%), ‘직장휴폐업’(2.3%) 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자발적 강제이직 비율은 늘어난다.

제4장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실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도 고용의 질은 임금노동자만 분석 가능하다. 그렇지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 문제는 일차적으로 임금노동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통계청이 2010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 임금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살펴본다.

1. 노동력 구성

가. 인적 구성

2010년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의 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남성은 201만 명(58.2%)이고 여성은 144만 명(41.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7만 명(16.4%p) 많다. 대졸이상은 82만 명(23.7%)이고 전문대졸은 20만 명(5.8%)으로, 10명 중 3명꼴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졸은 148만 명(42.8%)이고 중졸이하는 96만 명(27.7%)이다.

남성의 학력수준이 여성보다 높다. 남성은 대졸이상이 65만 명(32.4%)이고 전문대졸이 15만 명(7.3%)으로 10명중 4명꼴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은 대졸이상이 17만 명(11.7%)

이고 전문대졸이 6만 명(3.9%)으로 6명중 1명꼴로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성별 연령과 학력 구성(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전체	45-49세	50-54세	55-59세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수 (천 명)	남자	2,009	849	1,050	110	373	841	146	650
	여자	1,444	616	743	85	582	637	56	169
	전체	3,453	1,465	1,793	195	955	1,478	202	819
비율 (%)	남자	100.0	42.3	52.3	5.5	18.6	41.9	7.3	32.4
	여자	100.0	42.7	51.5	5.9	40.3	44.1	3.9	11.7
	전체	100.0	42.4	51.9	5.6	27.7	42.8	5.8	23.7

둘째,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가 298만 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이혼 25만 명(7.1%), 사별 16만 명(4.7%), 미혼 7만 명(1.9%) 순이다. 특히 여성은 남편과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이 27만 명(18.6%)으로,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남성 14만 명(6.8%)보다 훨씬 많다. 가구주는 244만 명(70.6%)이고 배우자는 94만 명(27.1%), 기타가구원은 8만 명(2.3%)이다(<표 4-2> 참조).

<표 4-2> 성별 혼인과 가구주관계 구성(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 구원
수 (천 명)	남자	2,009	43	1,829	25	113	1,934	30	46
	여자	1,444	23	1,151	137	132	503	906	33
	전체	3,453	66	2,980	162	245	2,437	936	79
비율 (%)	남자	100.0	2.1	91.0	1.2	5.6	96.3	1.5	2.3
	여자	100.0	1.6	79.7	9.5	9.1	34.8	62.7	2.3
	전체	100.0	1.9	86.3	4.7	7.1	70.6	27.1	2.3

나. 일자리 구성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들은 성별로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규모와 노조유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첫째, 남자는 제조업(23.6%), 유통서비스업(19.6%), 건설업(19.4%) 순으로 종사하는 데 비해, 여자는 개인서비스업(25.5%), 사회서비스업(23.6%), 제조업(21.5%)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같은 사회서비스업에서도 남자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9.0%), 교육서비스업(5.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3%) 순인데, 여자는 교육서비스업(9.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9.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4.2%) 순으로 산업별 구성을 달리 하고 있다(<표 4-3> 참조).

<표 4-3> 성별 산업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재 화생산	생산자 서비스	유통서 비스업	개인서 비스업	사회서 비스업
수 (천 명)	남자	2,009	475	389	56	266	393	105	325
	여자	1,444	311	22	17	194	191	368	341
	전체	3,453	786	411	73	460	584	473	666
비율 (%)	남자	100.0	23.6	19.4	2.8	13.2	19.6	5.2	16.2
	여자	100.0	21.5	1.5	1.2	13.4	13.2	25.5	23.6
	전체	100.0	22.8	11.9	2.1	13.3	16.9	13.7	19.3

둘째, 남자는 사무관리전문직(39.9%), 장치기계조작조립원(20.6%), 기능직(20.0%), 단순노무직(12.8%), 판매서비스직(6.1%) 순인데, 여자는 판매서비스직(38.2%), 단순노무직(31.8%), 사무관리전문직(18.2%) 순으로 직업구성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4-4> 참조).

<표 4-4> 성별 직업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전직업	관리자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기능직	장치기 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직
수 (천 명)	남자	2,010	143	309	350	59	64	401	413	257
	여자	1,443	10	141	111	355	196	88	80	459
	전체	3,453	153	450	461	414	260	489	493	716
비율 (%)	남자	100.0	7.1	15.4	17.4	2.9	3.2	20.0	20.6	12.8
	여자	99.9	0.7	9.8	7.7	24.6	13.6	6.1	5.5	31.8
	전체	100.0	4.4	13.0	13.4	12.0	7.5	14.2	14.3	20.7

셋째,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체체는 나쁜 일자리로 통칭된다. 남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26.8%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13.1%인데, 여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10.5%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28.3%로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4-5> 참조).

〈표 4-5〉 성별 종사자규모별 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전체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수 (천 명)	남자	2,010	264	330	465	411	238	301
	여자	1,443	409	240	320	322	94	58
	전체	3,453	673	570	785	733	332	359
비율 (%)	남자	100.0	13.1	16.4	23.1	20.5	11.8	15.0
	여자	99.9	28.3	16.6	22.2	22.3	6.5	4.0
	전체	100.0	19.5	16.5	22.7	21.2	9.6	10.4

넷째, 남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97만 명(35.9%)이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39만 명(19.4%)이다. 이에 비해 여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이 25만 명(17.4%)이고,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8만 명(5.5%)밖에 안 된다(<표 4-6> 참조).

〈표 4-6〉 성별 노조 및 조합원 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전체	무노조	유노조			
				소계	가입대상 아님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수 (천 명)	남자	2,010	1,289	721	185	147	389
	여자	1,443	1,192	251	110	61	80
	전체	3,453	2,481	972	295	208	469
비율 (%)	남자	100.0	64.1	35.9	9.2	7.3	19.4
	여자	100.0	82.6	17.4	7.6	4.2	5.5
	전체	100.0	71.9	28.1	8.5	6.0	13.6

2. 고용안정

가. 비정규직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설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서 차별이 심하며, 사회보험 및 노조가입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

직 고용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진 것은,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또는 임시근로)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표 4-7>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73.5%)이 남성(36.5%)보다 두 배나 많다. 특히 시간제 근로는 여성(15.2%)이 남성(2.8%)보다 5배 이상 많은데, 호출근로를 제외한 모든 고용형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호출근로만 남성(10.8%)이 여성(5.7%)보다 많다(<표 4-7> 참조).

<표 4-7>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정규직	비정 규직	임시 근로	기간제	시간제	호출 근로	특수 고용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수 (천 명)	남자	1,275	734	713	171	56	217	33	15	57	2
	여자	382	1,061	1,039	229	220	82	110	22	77	11
	전체	1,657	1,795	1,752	400	276	299	143	37	134	13
비율 (%)	남자	63.5	36.5	35.5	8.5	2.8	10.8	1.6	0.7	2.8	0.1
	여자	26.5	73.5	72.0	15.9	15.2	5.7	7.6	1.5	5.3	0.8
	전체	48.0	52.0	50.8	11.6	8.0	8.7	4.1	1.1	3.9	0.4

<표 4-8>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을 설명변수로 하고, 비정규직, 임시근로,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을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 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여성, 배우자가 높고,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단순노무직>생산직≒판매서비스직>사무관리전문직' 순으로 높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조가 없거나 비조합원인 경우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종속변수가 임시근로이거나 임시일용직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세부 고용형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기간제는 직업별로는 생산직과 단순노무직,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파트타임은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4-8〉 비정규직 결정요인 분석결과(베이비붐 세대, 로짓분석, 관측치 5,933개)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비정규직		임시근로		기간제		파트타임		임시일용직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1.139	0.000	1.047	0.000	0.409	0.007	1.142	0.000	0.965	0.000
기혼	-0.439	0.132	-0.449	0.112	-0.239	0.473	-0.896	0.027	-0.643	0.035
배우자	0.239	0.064	0.256	0.040	0.084	0.521	0.606	0.000	0.238	0.052
기타가구원	0.141	0.633	0.221	0.433	-0.272	0.389	-0.014	0.972	0.284	0.302
연령	-0.376	0.562	-0.107	0.865	0.273	0.726	-0.198	0.840	-0.149	0.813
연령제곱	0.004	0.579	0.001	0.889	-0.003	0.719	0.002	0.865	0.001	0.859
중졸이하	0.951	0.000	0.970	0.000	1.042	0.000	0.317	0.223	0.673	0.000
고졸	0.692	0.000	0.713	0.000	0.886	0.000	0.347	0.144	0.544	0.000
전문대졸	0.195	0.356	0.098	0.640	0.465	0.077	-0.317	0.365	0.056	0.815
기타재화생산	1.962	0.000	1.913	0.000	1.074	0.000	1.585	0.000	1.840	0.000
생산자서비스업	2.296	0.000	1.721	0.000	2.370	0.000	0.368	0.241	0.353	0.030
유통서비스업	1.067	0.000	0.962	0.000	0.670	0.002	1.229	0.000	0.767	0.000
개인서비스업	1.489	0.000	1.434	0.000	0.270	0.269	0.898	0.002	1.340	0.000
사회서비스업	1.285	0.000	1.163	0.000	2.368	0.000	2.171	0.000	0.622	0.000
관리전문직	-1.629	0.000	-1.444	0.000	-0.691	0.003	-0.291	0.349	-1.541	0.000
사무직	-1.677	0.000	-1.449	0.000	-0.526	0.011	0.107	0.702	-1.277	0.000
판매서비스직	-0.203	0.180	-0.137	0.353	-0.702	0.000	0.012	0.960	0.022	0.877
단순노무직	0.659	0.000	0.597	0.000	0.206	0.171	0.737	0.001	0.443	0.000
1-4인	2.717	0.000	2.576	0.000	0.377	0.190	2.333	0.000	2.847	0.000
5-9인	1.877	0.000	1.789	0.000	-0.060	0.833	1.564	0.005	2.134	0.000
10-29인	1.332	0.000	1.264	0.000	0.697	0.006	1.256	0.021	1.426	0.000
30-99인	0.827	0.000	0.799	0.000	0.708	0.004	0.739	0.178	0.789	0.002
100-299인	0.461	0.048	0.436	0.062	0.743	0.006	0.126	0.837	0.202	0.485
노조유비조합원	-0.590	0.000	-0.524	0.000	0.186	0.210	-0.484	0.026	-0.444	0.002
노조유조합원	-1.906	0.000	-1.973	0.000	-1.011	0.000	-3.263	0.001	-2.432	0.000
상수	6.692	0.683	0.180	0.991	-11.14	0.572	0.054	0.998	2.029	0.898
로그우도비	-2,295		-2,387		-1,777		-1,265		-2,353	
모형 설명력	0.441		0.419		0.165		0.235		0.421	

주: 남성, 미혼, 가구주, 대졸이상, 제조업, 생산직, 300인이상, 노조무비조합원을 기준변수로 사용했고, 가중치를 주고 분석한 결과임.

나. 근속년수

근속년수 평균값은 남자가 10.1년이고 여자가 4.5년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여자(40.7%)가 남자(27.5%)보다 많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중은 남자(42.5%)가 여자(15.4%)보다 많다. 직장이직률(장기근속자 비중 - 단기근속자 비중)은 여자(25.3%)가 남자(15.0%)보다 높고, 신규취업 실패율¹⁾도

1) 신규취업 실패율(failure rate of new job matching)은 단기불안정을 파악하기 위

여자(25.5%)가 남자(19.3%)보다 높다. 그만큼 여성 일자리가 불안정하다(<표 4-9> 참조).

<표 4-9> 성별 근속년수(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학력	근속년수(년)				근속년수 계층(%)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1년 미만	1-2년	2-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남자	10.1	5.8	10.2	1.01	27.5	7.8	5.2	6.9	10.1	42.5
여자	4.5	1.5	7.0	1.53	40.7	15.2	8.9	8.2	11.7	15.4
전체	7.8	2.8	9.4	1.21	33.0	10.9	6.8	7.4	10.8	31.1

3. 임금

가. 임금수준

남자는 월평균임금이 281만원이고 여자는 131만원으로 남녀 간에 격차가 100 : 46.6이다. 시간당 임금은 남자가 15,131원이고 여자가 7,272원으로 여성 임금은 남성의 48.1%다(<표 4-10> 참조).

<표 4-10> 성별 임금수준(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학력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원)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남자	281	250	172	0.61	15,131	11,993	10,078	0.67
여자	131	100	93	0.71	7,272	5,558	5,215	0.72
전체	218	160	162	0.74	11,846	8,289	9,247	0.78

<표 4-11>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년수, 노동시간,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결정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남녀 간에 성별 임금격차가 22.9%,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고용형태별

한 지표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비율) - (근속 1~2년 근로자 비율)'로 계산한다.(Auer & Cazes 2003)

임금격차가 21.2%다. 대졸이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학력별 순임금격차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전문대졸이 86.2%고, 고졸이 81.8%, 중졸이하가 76.2%다. 생산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관리전문직은 147.4%, 사무직은 119.0%, 판매서비스직은 107.4%, 단순노무직은 88.3%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100이라 할 때 100-299인 사업체는 85.6%, 30-99인 사업체는 82.1%, 10-29인 사업체는 80.7%, 5-9인 사업체는 75.3%, 5인 미만 사업체는 67.6%로 격차가 크다. 그렇지만 연령이나 노조유무, 노조가입 여부는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표 4-11> 참조).

<표 4-11> 임금 결정요인 분석결과(베이비붐 세대, 회귀분석, 관측치 5,933개)

	모형1			모형2		
	로그 월임금총액			로그 시간당임금		
	계수	p값	exp(계수)	계수	p값	exp(계수)
여성	-0.260	0.000	0.771	-0.243	0.000	0.785
기혼	0.089	0.015	1.094	0.076	0.048	1.079
배우자	-0.090	0.000	0.914	-0.067	0.000	0.935
기타가구원	-0.076	0.025	0.927	-0.100	0.004	0.905
연령	0.075	0.338	1.078	0.055	0.495	1.057
연령제곱	-0.001	0.314	0.999	-0.001	0.463	0.999
중졸이하	-0.272	0.000	0.762	-0.281	0.000	0.755
고졸	-0.201	0.000	0.818	-0.201	0.000	0.818
전문대졸	-0.148	0.000	0.862	-0.154	0.000	0.857
근속년수	0.021	0.000	1.021	0.021	0.000	1.021
근속제곱	0.000	0.666	1.000	0.000	0.982	1.000
기타재화생산	0.081	0.000	1.084	0.078	0.000	1.081
생산자서비스업	0.132	0.000	1.141	0.128	0.000	1.136
유통서비스업	-0.059	0.001	0.942	-0.068	0.000	0.934
개인서비스업	-0.027	0.173	0.973	-0.065	0.002	0.937
사회서비스업	-0.094	0.000	0.910	-0.059	0.002	0.943
관리전문직	0.388	0.000	1.474	0.423	0.000	1.526
사무직	0.174	0.000	1.190	0.217	0.000	1.243
판매서비스직	0.072	0.000	1.074	0.067	0.001	1.069
단순노무직	-0.124	0.000	0.883	-0.100	0.000	0.905
1-4인	-0.391	0.000	0.676	-0.376	0.000	0.687
5-9인	-0.283	0.000	0.753	-0.305	0.000	0.737
10-29인	-0.214	0.000	0.807	-0.226	0.000	0.798
30-99인	-0.197	0.000	0.821	-0.218	0.000	0.804
100-299인	-0.156	0.000	0.856	-0.173	0.000	0.841
노조유비조합원	0.003	0.872	1.003	0.009	0.596	1.009
노조유조합원	-0.011	0.546	0.989	-0.007	0.726	0.993
로그노동시간	0.619	0.000	1.857			
비정규직	-0.238	0.000	0.788	-0.210	0.000	0.811
상수	1.533	0.436	4.631	8.318	0.000	4097.114
관측치	5,933			5,933		
모형 설명력	0.729			0.686		

주: <표 4-8>과 같음.

나. 저임금계층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 자는 38만 명(11.0%)으로, 9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남자는 11만 명(5.7%)이고 여자는 27만 명(18.4%)이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8.6%, 중간임금계층은 38.9%, 고임금계층은 32.5%로, 15세 이상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은 많고 중간임금계층은 적다. 남성은 고임금계층이 48.1%고 저임금계층이 12.6%인데 비해, 여성은 고임금계층이 10.8%고 저임금계층이 50.8%로 매우 대조적이다(<표 4-12> 참조).

<표 4-12> 법정최저임금 미달자와 저임금계층 비율(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성	법정최저 임금 미달자	저-고임금계층(EU,월)			저-고임금계층(EU,시간)		
			저임금 계층	중간임금 계층	고임금 계층	저임금 계층	중간임금 계층	고임금 계층
수 (천 명)	남자	114	233	754	1,023	254	788	967
	여자	265	741	562	140	732	554	156
	전체	379	974	1,316	1,163	986	1,342	1,123
비율 (%)	남자	5.7	11.6	37.5	50.9	12.6	39.2	48.1
	여자	18.4	51.4	38.9	9.7	50.8	38.4	10.8
	전체	11.0	28.2	38.1	33.7	28.6	38.9	32.5

<표 4-13>에서 (모형1)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년수, 노동시간,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미달자 결정요인을 로짓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2)와 (모형3)은 저임금과 고임금계층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 분석한 결과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을 확률은 여성, 비정규직, 유통서비스업, 단순노무직, 비조합원에서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이러한 특징은 월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모형2),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한 (모형3)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다(<표 4-13> 참조).

〈표 4-13〉 저임금-고임금계층 결정요인 분석결과(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관측치 5,933개)

	모형1 로짓분석		모형2(월임금총액 기준) 다항 로짓분석				모형3(시간당임금 기준) 다항 로짓분석			
	최저임금미달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저임금계층		고임금계층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488	0.003	1.027	0.000	-1.509	0.000	0.987	0.000	-1.010	0.000
기혼	0.207	0.598	-0.207	0.500	0.377	0.279	-0.596	0.042	0.061	0.874
배우자	0.202	0.104	0.396	0.000	-0.501	0.017	0.190	0.071	-0.562	0.005
기타가구원	0.249	0.419	0.426	0.113	-0.249	0.601	0.518	0.035	-0.833	0.049
연령	1.078	0.172	0.317	0.636	1.089	0.205	-0.708	0.259	0.207	0.811
연령제곱	-0.010	0.183	-0.003	0.676	-0.011	0.213	0.007	0.242	-0.002	0.850
중졸이하	1.063	0.000	0.933	0.000	-1.275	0.000	0.815	0.000	-1.438	0.000
고졸	0.671	0.014	0.578	0.007	-0.662	0.000	0.496	0.011	-0.762	0.000
전문대졸	0.634	0.086	0.291	0.348	-0.297	0.139	0.118	0.680	-0.490	0.010
근속년수	-0.052	0.095	-0.093	0.000	0.087	0.000	-0.087	0.000	0.082	0.000
근속제곱	-0.002	0.152	0.001	0.346	0.000	0.623	0.001	0.341	0.001	0.458
기타재화생산	-0.046	0.805	0.031	0.849	1.156	0.000	-0.414	0.005	0.752	0.000
생산자서비스업	-0.582	0.006	-0.441	0.006	0.399	0.049	-0.445	0.003	0.586	0.004
유통서비스업	0.414	0.023	0.488	0.003	-0.077	0.647	0.291	0.044	-0.220	0.188
개인서비스업	0.053	0.781	0.082	0.622	-0.638	0.035	0.145	0.345	-0.923	0.002
사회서비스업	-0.108	0.615	0.573	0.002	0.308	0.086	0.289	0.080	0.382	0.032
관리전문직	-0.032	0.920	-0.479	0.097	2.106	0.000	-0.597	0.018	2.221	0.000
사무직	-0.022	0.930	-0.239	0.303	1.335	0.000	-0.238	0.250	1.399	0.000
판매서비스직	0.096	0.593	0.062	0.700	1.206	0.000	0.277	0.058	1.047	0.000
단순노무직	0.581	0.000	0.685	0.000	-0.621	0.002	0.568	0.000	-0.522	0.010
1-4인	2.350	0.000	1.405	0.000	-1.752	0.000	1.754	0.000	-1.760	0.000
5-9인	2.086	0.000	1.120	0.002	-1.166	0.000	1.588	0.000	-1.172	0.000
10-29인	1.669	0.003	0.958	0.007	-0.647	0.004	1.324	0.000	-0.840	0.000
30-99인	1.712	0.002	0.883	0.014	-0.654	0.002	1.151	0.000	-0.804	0.000
100-299인	1.483	0.011	0.540	0.165	-0.464	0.039	1.180	0.001	-0.484	0.026
노조유비조합원	0.218	0.302	0.349	0.034	0.202	0.201	0.616	0.000	0.480	0.003
노조유조합원	1.080	0.000	0.259	0.277	0.521	0.001	0.807	0.000	0.554	0.001
로그노동시간			-2.808	0.000	-1.021	0.000				
비정규직	1.173	0.000	0.907	0.000	-0.978	0.000	0.610	0.000	-0.887	0.000
상수	-34.72	0.081	-2.539	0.881	-23.25	0.281	13.854	0.382	-5.540	0.798
로그우도비	-1,619				-3,408				-3,718	
모형 설명력	0.211				0.474				0.426	

주: <표 4-8>과 같음.

4. 노동조건

가. 노동시간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4.2시간이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가 24.9%고, 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가 9.1%며, 주5일 근무제가 44.7% 실시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은 남자(45.0시간)가 여자(43.0시간)보다 조금 긴데, 이는 여성 단시간근로가 많은 데서 비롯된다. 남자는 주5일 근무제가 52.3%로 절반 넘게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여자는 34.2%로 1/3 가량만 실시되고 있다(<표 4-14> 참조).

<표 4-14> 성별 주당 노동시간(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구분	노동시간(시간)				노동시간 계층(%)					주5일 근무제 실시(%)
	평균값	중위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36미만	36-40	41-44	45-48	48초과	
남자	45.0	40.0	9.1	0.20	3.6	49.9	7.3	14.5	24.6	52.3
여자	43.0	40.0	12.9	0.30	16.6	35.8	7.8	14.5	25.3	34.2
전체	44.2	40.0	10.9	0.25	9.1	44.0	7.5	14.5	24.9	44.7

<표 4-15>에서 (모형1)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년수, 노동시간,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시간 결정요인을 회귀 분석한 결과다. (모형2)는 단시간과 장시간 근로 결정요인을 다항 로짓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3)은 주5일제 실시 여부를 로짓 분석한 결과다.

(모형1)에서는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여성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4.5% 짧고 비정규직이 7.2% 짧다.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개인서비스업은 노동시간이 10.5% 길고 사회서비스업은 9.0% 짧다. (모형3)에서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을 확률은 중졸이하 저학력층과 비정규직, 무노조 비조합원에서 유의미하게 낮다. 산업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제조업>사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기타재화생산>개인서비스업’ 순이고, 사업장 규모가 클 수록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확률이 높다(<표 4-15> 참조).

<표 4-15> 노동시간 결정요인 분석 결과(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관측치 5,933개)

	모형1 회귀분석		모형2 다항 로짓분석				모형3 로짓분석	
	로그 노동시간		단시간근로		장시간근로		주5일제 실시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046	0.000	0.582	0.005	-0.281	0.022	-0.098	0.423
기혼	0.036	0.195	-0.841	0.043	-0.248	0.371	-0.126	0.667
배우자	-0.060	0.000	0.446	0.002	-0.291	0.011	-0.192	0.098
기타가구원	0.064	0.013	0.145	0.689	0.391	0.091	-0.596	0.048
연령	0.051	0.391	-0.548	0.562	-0.261	0.650	0.122	0.839
연령제곱	0.000	0.400	0.005	0.567	0.003	0.638	-0.001	0.854
중졸이하	0.025	0.097	0.128	0.605	0.557	0.001	-0.314	0.033
고졸	0.000	0.981	0.105	0.644	0.445	0.003	0.013	0.919
전문대졸	0.015	0.395	-0.547	0.124	0.354	0.082	0.231	0.187
근속년수	0.002	0.279	-0.116	0.002	0.013	0.467	0.061	0.000
근속제곱	0.000	0.115	0.003	0.050	-0.003	0.000	-0.002	0.002
기타재화생산	0.008	0.550	0.977	0.001	0.109	0.412	-1.118	0.000
생산자서비스업	0.011	0.423	-0.124	0.666	-0.355	0.020	0.953	0.000
유통서비스업	0.022	0.085	1.147	0.000	0.630	0.000	-0.633	0.000
개인서비스업	0.100	0.000	0.863	0.001	1.145	0.000	-1.482	0.000
사회서비스업	-0.094	0.000	1.586	0.000	-0.302	0.075	-0.468	0.001
관리전문직	-0.092	0.000	0.469	0.138	-0.825	0.000	0.401	0.011
사무직	-0.113	0.000	0.475	0.110	-0.735	0.000	1.405	0.000
판매서비스직	0.013	0.358	0.104	0.660	-0.084	0.535	0.657	0.000
단순노무직	-0.064	0.000	0.563	0.004	-0.320	0.005	0.425	0.000
1-4인	-0.041	0.022	1.163	0.022	0.970	0.000	-4.898	0.000
5-9인	0.058	0.001	0.554	0.282	1.115	0.000	-4.715	0.000
10-29인	0.030	0.054	0.176	0.727	0.638	0.007	-3.862	0.000
30-99인	0.055	0.000	0.044	0.932	0.712	0.002	-3.676	0.000
100-299인	0.044	0.009	-0.567	0.334	0.772	0.001	-2.733	0.000
노조유비조합원	-0.017	0.176	-0.271	0.237	-0.401	0.010	0.272	0.035
노조유조합원	-0.011	0.406	-1.004	0.201	0.173	0.233	0.484	0.000
비정규직	-0.075	0.000	3.849	0.000	0.338	0.001	-0.547	0.000
상수	2.510	0.092	8.034	0.738	5.216	0.719	0.570	0.970
로그우도비			-3,861				-2,623	
모형 설명력	0.105		0.224				0.357	

주: <표 4-8>과 같음.

나. 사회보험 가입 및 기타 노동조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63.3%이며,²⁾ 남자는 74%, 여자는 48%로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도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하지만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남자 43.2%, 여자 37.2%로 격차가 크지 않고, 교육훈련 경험은 남자 24.6%, 여자 25.3%로 거의 동일하다(<표 4-16> 참조).

<표 4-16> 성별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단위 %)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근로계 약서면 작성	교육 훈련 경험
남자	74.4	74.5	74.3	72.4	72.2	54.5	67.0	43.2	24.6
여자	47.7	47.7	48.0	42.9	45.6	29.9	37.7	37.2	25.3
전체	63.3	63.3	63.3	60.1	61.1	44.2	54.7	40.7	24.9

<표 4-17>은 인적속성(성, 혼인, 가구주관계, 연령, 학력)과 일자리속성(산업, 직업, 규모, 노조, 근속년수, 비정규직)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분석한 결과다. (모형3)에서 성과 혼인, 연령, 학력 등 인적 속성은 고용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과 무노조 비조합원,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교육훈련 경험을 분석한 (모형9)도 결과는 마찬가지다(<표 4-17> 참조).

2) 공무원, 교원 등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은 가입으로 처리했음.

〈표 4-17〉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조건적용 결정요인 분석결과(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관측치 5,933개, 로짓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380	0.013	-0.353	0.019	-0.213	0.134	-0.204	0.210
기혼	0.051	0.885	-0.103	0.772	-0.069	0.818	0.089	0.826
배우자	-0.146	0.284	-0.189	0.161	-0.175	0.177	-0.153	0.288
기타가구원	-0.423	0.155	-0.660	0.018	-0.628	0.011	-0.415	0.240
연령	-0.393	0.596	-0.294	0.696	0.142	0.841	-0.627	0.439
연령제곱	0.004	0.587	0.003	0.670	-0.001	0.867	0.006	0.428
중졸이하	0.711	0.001	0.637	0.003	0.322	0.108	0.654	0.008
고졸	0.717	0.000	0.728	0.000	0.532	0.003	0.506	0.025
전문대졸	0.977	0.000	0.990	0.000	0.925	0.000	0.971	0.003
근속년수	0.055	0.032	0.051	0.045	0.055	0.015	0.163	0.000
근속제곱	-0.002	0.180	-0.002	0.182	-0.003	0.004	-0.005	0.000
기타재화생산	-1.412	0.000	-1.493	0.000	-0.914	0.000	-1.213	0.000
생산자서비스업	1.176	0.000	1.192	0.000	1.050	0.000	1.197	0.000
유통서비스업	0.188	0.283	0.244	0.165	0.105	0.520	-0.123	0.526
개인서비스업	-0.828	0.000	-0.812	0.000	-0.871	0.000	-0.695	0.003
사회서비스업	1.241	0.000	1.239	0.000	1.083	0.000	0.515	0.012
관리전문직	-0.489	0.041	-0.649	0.006	-0.820	0.000	-0.145	0.586
사무직	-0.302	0.227	-0.311	0.210	-0.506	0.026	-0.392	0.139
판매서비스직	-0.781	0.000	-0.830	0.000	-0.891	0.000	-0.695	0.000
단순노무직	-0.203	0.141	-0.241	0.079	-0.256	0.043	-0.367	0.015
1-4인	-2.511	0.000	-2.491	0.000	-1.832	0.000	-1.626	0.000
5-9인	-1.772	0.000	-1.700	0.000	-1.075	0.003	-0.990	0.005
10-29인	-1.124	0.006	-1.021	0.011	-0.455	0.197	-0.491	0.152
30-99인	-0.894	0.032	-0.821	0.044	-0.212	0.554	-0.012	0.972
100-299인	0.007	0.989	-0.160	0.732	0.601	0.137	0.550	0.157
노조유비조합원	0.419	0.026	0.453	0.016	0.623	0.000	-0.152	0.436
노조유조합원	2.787	0.000	2.658	0.000	0.658	0.041	2.550	0.000
비정규직	-4.429	0.000	-4.515	0.000	-3.748	0.000	-5.933	0.000
상수	14.737	0.430	12.198	0.521	0.029	0.999	20.525	0.314
로그우도비	-1,612		-1,603		-1,883		-1,380	
모형 설명력	0.587		0.589		0.517		0.654	

주: <표 4-8>과 같음.

〈표 4-17〉 사회보험가입 및 노동조건적용 결정요인 분석결과(계수)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모형9)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로계약 서면		교육훈련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계수	p값
여성	-0.176	0.212	0.327	0.010	-0.220	0.133	0.063	0.563	0.172	0.167
기혼	0.092	0.783	0.192	0.505	0.253	0.473	-0.407	0.092	-0.044	0.878
배우자	-0.036	0.768	-0.330	0.008	-0.162	0.238	0.009	0.929	-0.105	0.374
기타가구원	0.128	0.666	0.168	0.588	-0.437	0.227	0.027	0.897	0.271	0.272
연령	0.211	0.763	0.111	0.868	-0.132	0.853	0.316	0.549	0.265	0.657
연령제곱	-0.002	0.769	-0.001	0.850	0.002	0.822	-0.003	0.603	-0.003	0.618
중졸이하	0.506	0.014	-0.092	0.591	0.059	0.759	-0.119	0.382	-0.273	0.057
고졸	0.368	0.046	-0.017	0.908	0.108	0.520	0.308	0.009	-0.089	0.441
전문대졸	0.785	0.005	0.279	0.192	0.046	0.859	0.640	0.000	0.082	0.624
근속년수	0.137	0.000	0.067	0.000	0.054	0.010	0.026	0.071	0.045	0.003
근속제곱	-0.004	0.000	0.000	0.566	-0.001	0.133	-0.003	0.000	0.000	0.706
기타재화생산	-1.065	0.000	-0.930	0.000	-0.723	0.000	-0.630	0.000	0.399	0.008
생산자서비스업	0.715	0.000	-0.429	0.009	1.132	0.000	1.048	0.000	1.225	0.000
유통서비스업	0.052	0.749	-1.377	0.000	-0.142	0.384	-0.188	0.098	0.722	0.000
개인서비스업	-0.215	0.226	-1.253	0.000	-0.560	0.007	-0.759	0.000	0.449	0.007
사회서비스업	0.303	0.095	-0.289	0.049	0.695	0.000	-0.187	0.106	1.398	0.000
관리전문직	0.250	0.248	-0.574	0.002	0.379	0.063	0.116	0.412	-0.114	0.440
사무직	0.621	0.004	-0.440	0.009	0.426	0.030	-0.032	0.811	0.163	0.220
판매서비스직	-0.447	0.006	-0.691	0.000	-0.054	0.755	0.233	0.066	0.415	0.002
단순노무직	-0.410	0.002	-0.226	0.074	0.060	0.674	0.091	0.383	-0.286	0.029
1-4인	-1.509	0.000	-1.453	0.000	-1.355	0.000	-1.984	0.000	-1.528	0.000
5-9인	-1.330	0.000	-1.154	0.000	-0.943	0.001	-1.470	0.000	-1.137	0.000
10-29인	-1.116	0.001	-0.517	0.006	-0.587	0.037	-0.576	0.000	-0.669	0.000
30-99인	-1.136	0.001	-0.241	0.184	-0.317	0.267	-0.329	0.010	-0.343	0.012
100-299인	-0.303	0.429	-0.189	0.369	0.282	0.382	0.236	0.109	-0.014	0.929
노조유비조합원	-0.170	0.321	0.273	0.034	0.524	0.001	0.511	0.000	0.526	0.000
노조유조합원	1.022	0.000	1.294	0.000	0.873	0.000	0.889	0.000	1.126	0.000
비정규직	-3.713	0.000	-2.064	0.000	-3.433	0.000	-0.382	0.000	-0.281	0.009
상수	-1.840	0.917	-1.481	0.930	4.728	0.792	-7.904	0.552	-7.299	0.626
로그우도비	-1,885		-2,290		-1,850		-3,293		-2,750	
모형 설명력	0.525		0.438		0.547		0.179		0.255	

주: <표 4-8>과 같음.

5. 자발적 취업 여부

현재의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40.8%로 여자(53.3%)가 남자(31.9%)보다 많다. 비자발적 취업사유는 '생활비 등 수입 필요'가 35.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자는 44.6%, 남자는 28.2%에 이르고 있다(<표 4-18> 참조).

<표 4-18> 성별 취업동기(2010년 8월,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자발적 취업		자발적 취업사유			비자발적 취업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 등수입 필요	원하는 일자리 없어	전공경력맞는 일자리 무	기타
남자	68.1	31.9	25.7	38.7	3.7	28.2	2.2	0.6	0.8
여자	46.7	53.3	19.5	18.4	8.8	44.6	4.3	1.0	3.5
전체	59.2	40.8	23.1	30.2	5.8	35.0	3.1	0.8	1.9

6. 소결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남성은 201만 명(58.2%) 여성은 144만 명(41.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대졸이상이 82만 명(23.7%), 전문대졸 20만 명(5.8%), 고졸 148만 명(42.8%), 중졸이하 96만 명(27.7%)으로, 10명 중 3명이 전문대졸 이상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27만 명(18.6%)으로,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남성 14만 명(6.8%)보다 두 배 많다.

둘째, 성별로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규모와 노조유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남자는 제조업(23.6%), 유통서비스업(19.6%), 건설업

(19.4%) 순인데, 여자는 개인서비스업(25.5%), 사회서비스업(23.6%), 제조업(21.5%) 순이다. 남자는 사무관리전문직(39.9%), 장치기계조작조립원(20.6%), 기능직(20.0%) 순인데, 여자는 판매서비스직(38.2%), 단순노무직(31.8%), 사무관리전문직(18.2%) 순이다. 그만큼 성별 직업분리가 뚜렷하다. 남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26.8%, 5인 미만 사업장에 13.1% 취업해 있는데, 여자는 각각 10.5%와 28.3% 취업해 있다. 남자는 노조 조합원이 39만 명(19.4%)인데, 여자는 8만 명(5.5%)이다.

셋째,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73.5%)이 남성(36.5%)보다 두 배 높다. 시간제 근로는 여성(15.2%)이 남성(2.8%)보다 5배 이상 많고, 호출근로 이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호출근로만 남성(10.8%)이 여성(5.7%)보다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여성과 저학력층에서 높다.

넷째, 근속년수 평균은 남자(10.1년)가 여자(4.5년)보다 2배 이상 길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남자(27.5%)가 여자(40.7%)보다 적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중은 남자(42.5%)가 여자(15.4%)보다 많다. 직장이직률(장기근속자 비중 - 단기근속자 비중)은 여자(25.3%)가 남자(15.0%)보다 높고, 신규취업 실패율도 여자(25.5%)가 남자(19.3%)보다 높다. 그만큼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다섯째, 남녀 간에 월평균임금 격차는 100:46.6이고, 시간당 임금격차는 100:48.1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성별 순임금격차가 22.9%,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가 21.2%다. 대졸이상을 100이라 할 때 학력별 순임금격차는 전문대졸 86.2%, 고졸 81.8%, 중졸이하 76.2%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100이라 할 때 100-299인 사업체는 85.6%, 30-99인 사업체는 82.1%, 10-29인 사업체는 80.7%, 5-9인 사업체는 75.3%, 5인 미만 사업체는 67.6%로 기업규모 간 격차가 크다.

여섯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 자는 38만 명(11.0%)으로, 9명 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 남자는 11만 명(5.7%)이고 여자는 27만 명(18.4%)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을 확률은 여성, 비정규직, 유통서비스업, 단순노무직, 비조합원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거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일곱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8.6%, 중간임금계층은 38.9%, 고임금계층은 32.5%로, 15세 이상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이 많고 중간임금계층이 적다. 남성은 고임금계층이 48.1% 저임금계층이 12.6%인데, 여성은 고임금계층이 10.8% 저임금계층이 50.8%로 대조적이다.

여덟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44.2시간이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는 24.9%고, 주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는 9.1%며, 주5일 근무제는 44.7% 실시되고 있다. 여자(43.0시간)가 남자(45.0시간)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단시간근로가 많기 때문이다. 남자(52.3%)는 주5일 근무제가 절반 넘게 실시되고 있는데, 여자(34.2%)는 1/3만 실시되고 있다.

아홉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63.3%이며, 남자는 74%, 여자는 48%로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도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하지만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남자 43.2%, 여자 37.2%로 격차가 크지 않고, 교육훈련 경험은 남자 24.6%, 여자 25.3%로 거의 동일하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성과 혼인, 연령, 학력 등 인적 속성은 고용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과 무노조 비조합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진다.

열째,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이 40.8%로 여자(53.3%)가 남자(31.9%)보다 많다. 비자발적 취업사유는 '생활비 등 수입 필요'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자는 44.6%, 남자는 28.2%에 이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질은 성과 학력,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등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제5장

고령자 취업과 구직 실태

이 장에서는 통계청이 2009년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고령층 취업실태와 구직실태, 계속근로 희망 등을 분석한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는 아직 고령층 부가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10년 5월 조사에 1955년 출생자가 포함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5년 뒤, 10년 뒤를 전망하려면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분석이 유의미하다.

1. 취업실태

가. 현재 취업상태

2009년 5월 현재 고령층(55~79세) 911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446만 명(48.9%)이다. 고령층도 절반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50대 후반은 고용률 66.4%로 3명 중 2명꼴로 취업자다. 그렇지만 60대 초반은 54.5%, 60대 후반은 43.5%, 70대 초반은 35.3%, 70대 후반은 21.3%로,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낮아진다.

남자는 고용률이 61.7%고 여자는 37.9%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낮아지지만, 남자는 60대 후반(54.3%), 여자는 50대 후반(52.5%)까지 절반 이상이 취업자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50대 후반 남자 고용률은 80.5%로, 5명 중 4명꼴로 계속 일하고 있다(<표 5-1> 참조).

〈표 5-1〉 현재 취업상태 및 과거 취업경험(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취업자	취업경험 현재 미취업	평생취업 경험없음	55~79세 인구	취업자	취업경험 현재 미취업	평생취업 경험없음	55~79세 인구
남녀	55-59세	1,750	799	86	2,635	66.4	30.3	3.3	100.0
	60-64세	1,152	872	90	2,114	54.5	41.2	4.3	100.0
	65-69세	808	946	103	1,857	43.5	50.9	5.5	100.0
	70-74세	537	870	116	1,523	35.3	57.1	7.6	100.0
	75-79세	209	694	79	982	21.3	70.7	8.0	100.0
	전연령	4,456	4,181	474	9,111	48.9	45.9	5.2	100.0
남자	55-59세	1,055	254	1	1,310	80.5	19.4	0.1	100.0
	60-64세	688	341	2	1,031	66.7	33.1	0.2	100.0
	65-69세	458	381	4	843	54.3	45.2	0.5	100.0
	70-74세	287	362	1	650	44.2	55.7	0.2	100.0
	75-79세	108	266	0	374	28.9	71.1	0.0	100.0
	전연령	2,596	1,604	8	4,208	61.7	38.1	0.2	100.0
여자	55-59세	695	545	85	1,325	52.5	41.1	6.4	100.0
	60-64세	464	531	88	1,083	42.8	49.0	8.1	100.0
	65-69세	350	565	99	1,014	34.5	55.7	9.8	100.0
	70-74세	250	508	115	873	28.6	58.2	13.2	100.0
	75-79세	101	428	79	608	16.6	70.4	13.0	100.0
	전연령	1,860	2,577	466	4,903	37.9	52.6	9.5	100.0

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근속기간과 이직연령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일자리)에서 근속년수 평균은 20.3년(중앙값 19.0년)이다. 남자는 23.3년(중앙값 21.7년)이고 여자는 17.4년(12년)으로,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일자리)에서

일자리를 그만둔 이직연령 평균은 53.2세(중앙값 55세)다. 남자는 55.1세(중앙값 56세)고 여자는 51.6세(54세)로, 근속년수와는 달리 남녀 간에 격차가 크지 않다(<표 5-2> 참조).

〈표 5-2〉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근속기간과 이직연령(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근속기간(년)					이직연령(만 나이)				
		취업 경험 (천 명)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이직 경험 (천 명)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남녀	55-59세	2,549	16.0	14.5	10.6	0.67	1,615	47.6	50.0	8.9	0.19
	60-64세	2,024	18.3	17.0	12.2	0.67	1,452	51.7	55.0	9.2	0.18
	65-69세	1,753	20.9	20.0	14.0	0.67	1,317	54.8	57.0	10.2	0.19
	70-74세	1,408	25.2	23.6	16.0	0.63	1,082	57.4	60.0	10.9	0.19
	75-79세	903	27.8	29.6	17.3	0.62	754	59.4	61.0	12.7	0.21
	전연령	8,636	20.3	19.0	14.0	0.69	6,220	53.2	55.0	10.9	0.21
남자	55-59세	1,309	19.3	20.0	10.0	0.52	749	49.8	50.0	6.2	0.12
	60-64세	1,029	21.8	20.5	11.3	0.52	718	54.0	55.0	6.6	0.12
	65-69세	839	24.3	23.3	12.4	0.51	614	57.1	58.0	7.0	0.12
	70-74세	650	28.1	28.0	14.3	0.51	489	59.1	60.0	8.3	0.14
	75-79세	374	30.6	30.0	15.4	0.50	301	60.9	61.0	9.7	0.16
	전연령	4,201	23.3	21.7	12.6	0.54	2,870	55.1	56.0	8.2	0.15
여자	55-59세	1,240	12.5	10.0	10.2	0.82	866	45.8	50.0	10.4	0.23
	60-64세	995	14.6	10.2	12.0	0.82	734	49.4	52.0	10.8	0.22
	65-69세	914	17.8	12.4	14.6	0.82	703	52.8	56.0	11.9	0.23
	70-74세	758	22.7	20.0	17.0	0.75	593	56.1	59.5	12.5	0.22
	75-79세	528	25.7	22.3	18.2	0.71	453	58.4	60.0	14.2	0.24
	전연령	4,436	17.4	12.0	14.7	0.84	3,350	51.6	54.0	12.6	0.24

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가장 오랜 기간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26.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업부진, 조업중단'(20.3%), '가족 돌보기 위해'(14.4%), '정년퇴직'(11.1%) 순이다.

남자는 '사업부진, 조업중단'(24.1%), '정년퇴직'(21.5%), '건강이 좋지 않아서'(19.2%) 순인데, 여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32.2%), '가족 돌보기 위해'(25.8%), '사업부진, 조업중단'(17.0%) 순으로, 남녀 간에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표 5-3> 참조).

〈표 5-3〉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주된 이유(2009년 5월)

(단위: %)

성별	연령 계층	정년 퇴직	권고 사직, 명예 퇴직	정리 해고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업 폐업	가족 돌보 기위 해	건강 이종 지않 아	일그 만들 나이 되어	기타	전체 (이직 경험)
남녀	55-59세	5.5	7.9	2.4	29.1	8.4	14.9	19.0	2.8	10.0	100.0
	60-64세	12.8	7.0	2.7	21.8	7.6	15.0	22.0	4.2	6.8	100.0
	65-69세	14.4	6.2	2.4	18.2	5.0	13.8	27.3	7.6	5.0	100.0
	70-74세	13.3	3.8	1.3	14.3	4.8	14.1	32.4	11.4	4.6	100.0
	75-79세	10.6	3.3	1.2	10.8	3.8	13.6	39.3	12.3	5.0	100.0
	전연령	11.1	6.1	2.1	20.3	6.3	14.4	26.2	6.8	6.6	100.0
남자	55-59세	10.4	13.5	2.9	35.7	9.2	0.7	14.2	2.3	11.1	100.0
	60-64세	23.6	11.4	3.5	26.9	8.9	1.1	15.3	2.6	6.6	100.0
	65-69세	27.4	10.8	3.4	20.1	5.7	1.1	19.9	7.0	4.6	100.0
	70-74세	26.4	6.5	1.8	15.5	5.7	1.8	25.4	12.9	3.9	100.0
	75-79세	24.2	7.3	1.3	10.9	6.0	1.3	29.8	14.2	5.0	100.0
	전연령	21.5	10.6	2.8	24.1	7.5	1.2	19.2	6.4	6.7	100.0
여자	55-59세	1.3	3.0	2.0	23.4	7.7	27.3	23.1	3.2	9.0	100.0
	60-64세	2.3	2.7	1.9	16.9	6.4	28.6	28.5	5.7	6.9	100.0
	65-69세	3.0	2.3	1.6	16.6	4.4	24.8	33.7	8.1	5.4	100.0
	70-74세	2.5	1.5	0.8	13.3	4.0	24.2	38.2	10.1	5.2	100.0
	75-79세	1.5	0.7	1.1	10.8	2.4	21.8	45.6	11.0	5.1	100.0
	전연령	2.1	2.2	1.6	17.0	5.4	25.8	32.2	7.1	6.6	100.0

라. 이직사유별 이직자수와 이직연령

이직경험이 있는 고령층(55~79세) 622만 명 가운데 정년퇴직은 69만 명(11.1%)이다. 정년퇴직 연령은 평균 58.7세(중앙값 58세)이며, 정년퇴직은 50대(57.9%)와 60대(39.4%) 때 이루어진다.

사업부진·조업중단(126만 명), 휴업폐업(40만 명), 권고사직·명예퇴직(38만 명), 정리해고(13만 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사람은 217만 명(34.9%)이다. 비자발적 이직은 평균 51.5~53.7세(중앙값 52~55세)에 이루어지는데, 정년퇴직보다 평균 5~7세(3~6세) 앞선다. 연령대별로는 50대(48~61%)에 비자발적 이직이 가장 많지만, 40대(19~29%)와 60대(14~22%), 30대(2~6%) 등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일어나고 있다.

남자는 정년퇴직이 62만 명(21.5%)이고, 사업부진·조업중단(69만 명), 권고사직·명예퇴직(30만 명), 휴업폐업(21만 명), 정리해고(8만 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사람이 129만 명(44.9%)이다. 이에 비해 여자는 정년퇴직이 7만 명(2.1%)이고, 사업부진·조업중단(57만 명), 휴업폐업(18만 명), 권고사직·명예퇴직(8만 명), 정리해고(5만 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일자리)을 그만둔 사람이 88만 명(26.2%)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다. 그 대신 '건강이 좋지 않아서'(108만 명), '가족 돌보기 위해'(86만 명),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어'(24만 명) 등 개인 또는 가정 문제를 이유로 한 이직이 223만 명(66.7%)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직한 여성의 이직연령 평균은 42.3세(중앙값 44세)로 가장 젊은데, 50대(27.7%)와 20대(27.2%) 때 이직한 사람이 많다(<표 5-4> 참조).

〈표 5-4〉 이직사유별 이직자수와 이직연령(2009년 5월)

(단위: 천 명, 만 나이, %)

	이직사유	수 (천 명)	이직연령		인직연령별 분포(%)						
			평균값	중앙값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남녀	정년퇴직	688	58.7	58.0			1.3	58.7	38.6	1.3	
	권고사직, 명예퇴직	378	53.7	54.0	1.1	2.1	19.3	60.7	15.0	1.8	
	정리해고	133	53.7	55.0	1.5	5.2	20.1	47.8	22.4	3.0	
	사업부진, 조업중단	1,263	53.1	53.4	0.5	3.9	23.5	50.7	19.1	2.3	
	휴업폐업	395	51.5	52.0	1.8	5.8	28.8	48.0	13.6	2.0	
	가족 돌보기 위해	897	42.7	45.0	26.3	13.6	20.5	28.0	10.4	1.3	
	건강이 좋지 않아	1,632	57.0	57.0	0.9	2.5	14.6	40.1	30.7	11.3	
	일 그만둘 나이 되어	423	59.2	60.0	1.7	1.2	5.9	32.5	47.9	10.9	
	경제적 여유 있어서	30	47.8	50.0	10.0	6.7	30.0	36.7	13.3	3.3	
	여가 즐기기 위해	38	52.7	53.6	5.6		8.3	69.4	16.7		
	기타	344	46.8	48.0	12.6	11.4	29.2	33.6	11.7	1.5	
	전체	6,220	53.2	55.0	5.2	4.7	17.4	43.7	24.0	4.9	
남자	정년퇴직	618	58.7	58.0			1.5	57.9	39.4	1.3	
	권고사직, 명예퇴직	303	53.7	54.0		2.3	21.5	60.1	13.9	2.3	
	정리해고	81	53.9	54.0		4.9	20.7	48.8	22.0	3.7	
	사업부진, 조업중단	692	53.1	54.0	0.3	3.6	23.4	51.4	19.8	1.4	
	휴업폐업	214	51.5	51.0	0.9	7.4	30.6	44.0	14.4	2.8	
	가족 돌보기 위해	34	53.0	52.3	2.9	8.8	23.5	35.3	26.5	2.9	
	건강이 좋지 않아	552	56.8	57.0	0.5	2.2	16.6	39.2	31.3	10.1	
	일 그만둘 나이 되어	186	60.4	60.0		0.5	5.9	27.6	54.6	11.4	
	경제적 여유 있어서	8	52.6	50.0			33.3	33.3	22.2	11.1	
	여가 즐기기 위해	8	55.2	56.4			14.3	57.1	28.6		
	기타	175	47.6	48.0	1.7	14.9	39.7	35.6	6.9	1.1	
	전체	2,870	55.1	56.0	0.4	3.3	17.5	48.0	26.8	4.0	
여자	정년퇴직	70	58.4	58.0				66.7	31.9	1.4	
	권고사직, 명예퇴직	75	53.9	55.0	5.3	1.3	10.5	63.2	19.7		
	정리해고	51	53.3	55.0	3.8	5.8	19.2	46.2	23.1	1.9	
	사업부진, 조업중단	571	53.0	53.0	0.7	4.2	23.7	49.8	18.2	3.3	
	휴업폐업	180	51.5	52.0	2.8	3.9	26.7	52.8	12.8	1.1	
	가족 돌보기 위해	864	42.3	44.0	27.2	13.8	20.4	27.7	9.7	1.3	
	건강이 좋지 않아	1,080	57.1	57.0	1.0	2.6	13.5	40.5	30.4	12.0	
	일 그만둘 나이 되어	237	58.3	60.0	3.0	1.7	5.9	36.3	42.6	10.5	
	경제적 여유 있어서	22	46.1	47.6	14.3	9.5	28.6	38.1	9.5		
	여가 즐기기 위해	30	52.1	53.1	6.9		6.9	72.4	13.8		
	기타	169	45.9	50.0	23.8	7.7	18.5	31.5	16.7	1.8	
	전체	3,350	51.6	54.0	9.4	6.0	17.2	40.1	21.6	5.7	

2.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가.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고령층(55~79세) 911만 명 가운데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경험한 사람은 116만 명(12.7%)이고, 구직활동에 나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00만 명(11.0%)이다. 구직활동 경험은 남자(15.7%)가 여자(10.1%)보다 많고, 50대 후반(17.6%), 60대 초반(15.3%), 60대 후반(11.8%), 70대 초반(7.2%), 70대 후반(4.1%)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적다. 구직활동에 나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도 남자(13.6%)가 여자(8.8%)보다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줄어든다(<표 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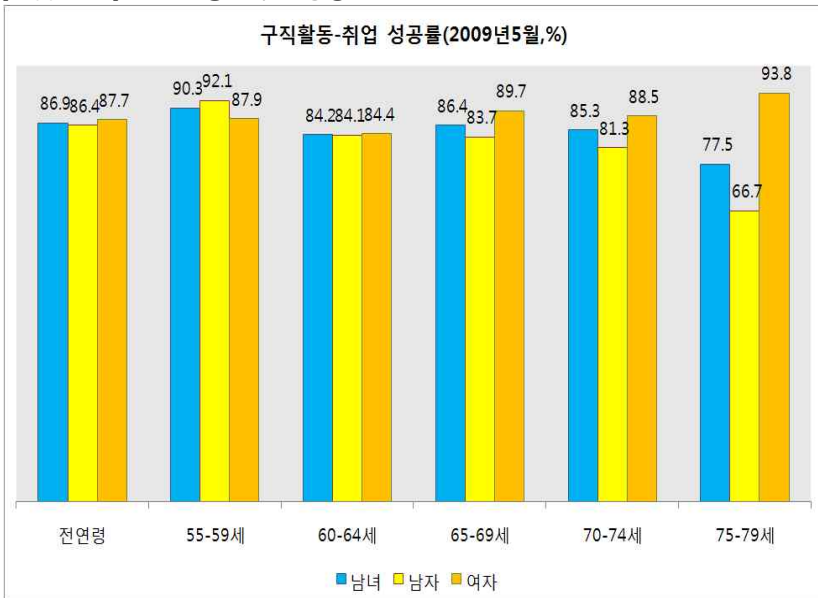
〈표 5-5〉 구직활동과 취업경험 및 구직-취업 성공률(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구직- 취업성 공률 (%)
		55-79 인구	구직 경험	취업 경험	구직 취업 성공	55-79 인구	구직 경험	취업 경험	구직 취업 성공	
남녀	55-59세	2,635	463	1,963	418	100.0	17.6	74.5	15.9	90.3
	60-64세	2,113	323	1,314	272	100.0	15.3	62.2	12.9	84.2
	65-69세	1,857	220	947	190	100.0	11.8	51.0	10.2	86.4
	70-74세	1,523	109	630	93	100.0	7.2	41.4	6.1	85.3
	75-79세	983	40	266	31	100.0	4.1	27.1	3.2	77.5
	전연령	9,111	1,155	5,120	1,004	100.0	12.7	56.2	11.0	86.9
남자	55-59세	1,310	265	1,160	244	100.0	20.2	88.5	18.6	92.1
	60-64세	1,030	201	776	169	100.0	19.5	75.3	16.4	84.1
	65-69세	843	123	528	103	100.0	14.6	62.6	12.2	83.7
	70-74세	651	48	328	39	100.0	7.4	50.4	6.0	81.3
	75-79세	375	24	128	16	100.0	6.4	34.1	4.3	66.7
	전연령	4,209	661	2,920	571	100.0	15.7	69.4	13.6	86.4
여자	55-59세	1,325	198	803	174	100.0	14.9	60.6	13.1	87.9
	60-64세	1,083	122	538	103	100.0	11.3	49.7	9.5	84.4
	65-69세	1,014	97	419	87	100.0	9.6	41.3	8.6	89.7
	70-74세	872	61	302	54	100.0	7.0	34.6	6.2	88.5
	75-79세	608	16	138	15	100.0	2.6	22.7	2.5	93.8
	전연령	4,902	494	2,200	433	100.0	10.1	44.9	8.8	87.7

나. 구직-취업 성공률

구직활동에 나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86.9%로 높은 편이다. 구직-취업 성공률은 여자(87.7%)가 남자(86.4%)보다 조금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후반(90.3%)이 가장 높고 70대 후반(77.5%)이 가장 낮다. 그렇지만 6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는 84~86%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또한 50대 후반을 제외한 60~70대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표 5-5>와 [그림 5-1] 참조).

[그림 5-1] 구직활동-취업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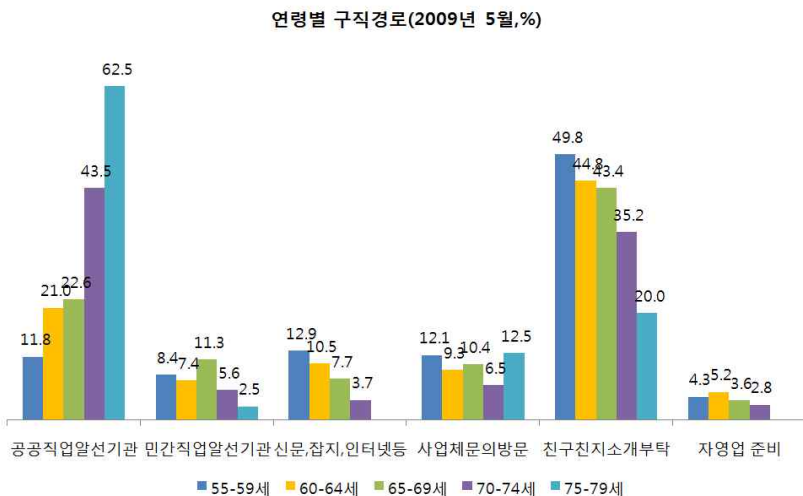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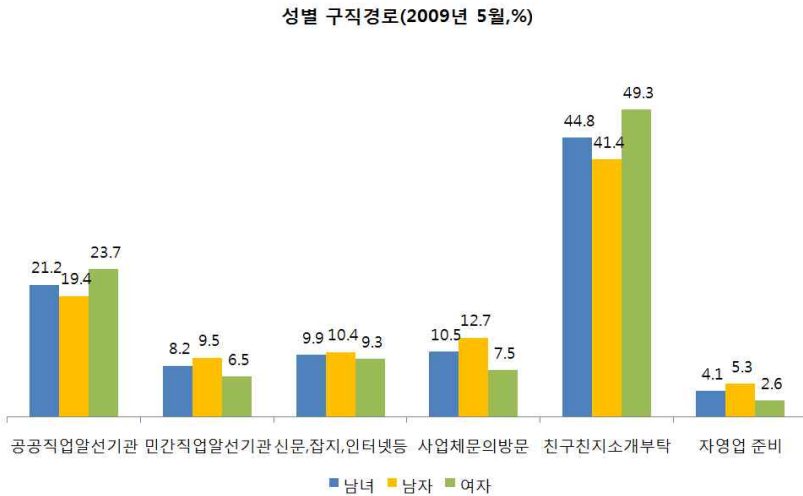


다. 구직경로

2009년 5월 현재 고령층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직경로는 '친구, 친지 소개 부탁'(44.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노동부 등 공공직업알선기관'(21.2%), '사업체 문의, 방문'(10.5%), '신문, 잡지, 인터넷 등'(9.9%), '민간직업알선기관'(8.2%), '자영업 준비'(4.1%) 순이다.

50대 후반에는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이 49.8%로 절반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70대 후반에는 그 비중이 20%로 줄어든다. 그 대신 공공직업 알선기관은 50대 후반(11.8%)에서 70대 후반(62.5%) 사이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5-2]와 <표 5-6> 참조).

[그림 5-2] 구직경로



〈표 5-6〉 지난 1년간 구직활동 경험자의 구직경로(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구직 경험자 (천 명)	비율(%)								
			노동부 고용안 정센터 등	기타 공공직 업알선 기관	민간 직업 알선 기관	신문, 잡지, 인터 넷등	사업 체 문의 방문	친구 친지 소개 부탁	자영업 준비	기타	전체
남녀	55-59세	464	6.0	5.8	8.4	12.9	12.1	49.8	4.3	0.6	100.0
	60-64세	324	9.9	11.1	7.4	10.5	9.3	44.8	5.2	1.9	100.0
	65-69세	221	5.9	16.7	11.3	7.7	10.4	43.4	3.6	0.9	100.0
	70-74세	108	7.4	36.1	5.6	3.7	6.5	35.2	2.8	2.8	100.0
	75-79세	40	15.0	47.5	2.5		12.5	20.0		2.5	100.0
	전연령	1,157	7.5	13.7	8.2	9.9	10.5	44.8	4.1	1.3	100.0
남자	55-59세	266	6.8	6.0	8.6	10.9	14.7	47.0	5.3	0.8	100.0
	60-64세	202	11.4	6.4	7.9	11.9	11.4	42.1	6.9	2.0	100.0
	65-69세	123	5.7	12.2	14.6	9.8	11.4	40.7	4.9	0.8	100.0
	70-74세	47	8.5	38.3	10.6	8.5	6.4	23.4	2.1	2.1	100.0
	75-79세	24	16.7	41.7	4.2		20.8	12.5		4.2	100.0
	전연령	662	8.5	10.9	9.5	10.4	12.7	41.4	5.3	1.4	100.0
여자	55-59세	198	5.1	5.6	8.1	15.7	8.6	53.5	3.0	0.5	100.0
	60-64세	122	7.4	18.9	6.6	8.2	5.7	49.2	2.5	1.6	100.0
	65-69세	98	6.1	22.4	7.1	5.1	9.2	46.9	2.0	1.0	100.0
	70-74세	61	6.6	34.4	1.6		6.6	44.3	3.3	3.3	100.0
	75-79세	16	12.5	56.3				31.3			100.0
	전연령	495	6.3	17.4	6.5	9.3	7.5	49.3	2.6	1.2	100.0

라. 비구직 비취업자의 비구직 사유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취업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건강상 이유'(38.3%), '나이가 많아'(29.9%), '가사일 또는 가족들 반대'(17.3%),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3%) 순이다.

남자는 '건강상 이유'(41.2%)와 '나이가 많아'(36.0%) 다음으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4.1%)가 많은데, 여자는 '건강상 이유'(36.8%)와 '나이가 많아'(26.8%) 다음으로 '가사일 또는 가족들 반대'(25.1%)가 많다(〈표 5-7〉 참조).

〈표 5-7〉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비구직 미취업 (천 명)	비율(%)						
			적당한 일자리 없을것 같아	가사일 가족들 반대	건강상 이유로	일을하 고싶지 않아서	나이가 많아서	기타	전체
남녀	55-59세	801	14.1	31.3	35.5	6.1	8.7	4.2	100.0
	60-64세	901	12.8	23.5	37.3	5.2	18.9	2.3	100.0
	65-69세	1,023	8.7	16.7	40.7	4.5	28.3	1.2	100.0
	70-74세	1,010	4.1	10.2	38.2	3.8	42.8	1.0	100.0
	75-79세	785	2.4	5.7	39.1	2.9	49.6	0.3	100.0
	전연령	4,520	8.3	17.3	38.3	4.5	29.9	1.7	100.0
남자	55-59세	204	28.9	2.9	47.1	5.9	7.4	7.8	100.0
	60-64세	289	22.1	1.0	43.3	7.3	22.5	3.8	100.0
	65-69세	363	14.6	1.9	41.0	4.7	36.4	1.4	100.0
	70-74세	374	6.1	0.8	39.0	4.0	48.4	1.6	100.0
	75-79세	264	4.2	0.8	37.9	1.9	54.9	0.4	100.0
	전연령	1,494	14.1	1.4	41.2	4.7	36.0	2.6	100.0
여자	55-59세	597	9.0	41.0	31.5	6.2	9.2	3.0	100.0
	60-64세	612	8.3	34.2	34.5	4.2	17.2	1.6	100.0
	65-69세	660	5.5	24.8	40.5	4.4	23.8	1.1	100.0
	70-74세	636	2.8	15.7	37.7	3.6	39.5	0.6	100.0
	75-79세	521	1.5	8.3	39.7	3.5	46.8	0.2	100.0
	전연령	3,026	5.5	25.1	36.8	4.4	26.8	1.3	100.0

마. 직업훈련 경험

고령층(55~79세) 910만 명 가운데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15만 명(1.6%)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남자(7만5천 명)와 여자(7만4천 명)는 교육훈련 경험자가 거의 동일하며, 연령 별로는 50대 후반(7만 명)이 절반을 차지한다(<표 5-8> 참조).

〈표 5-8〉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 경험(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55-79 세 인구	직업 교육 훈련 받음	55-79 세 인구	직업 교육 훈련 받음	직업교육(훈련)기관						없었 음
						공공 단체 운영 훈련 기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법인	비영 리법 인및 단체	사업 주또 는사 업주 단체	사설 학원	기타	
남녀	55-59세	2,633	69	100.0	2.6	0.6	0.4	0.3	0.6	0.4	0.3	97.4
	60-64세	2,113	39	100.0	1.8	0.6	0.2	0.3	0.3	0.2	0.2	98.2
	65-69세	1,855	24	100.0	1.3	0.2	0.2	0.4	0.3	0.1	0.1	98.7
	70-74세	1,521	9	100.0	0.6	0.1	0.1	0.1	0.1	0.1	0.1	99.4
	75-79세	982	8	100.0	0.8	0.3	0.1	0.4				99.2
	전연령	9,104	149	100.0	1.6	0.4	0.2	0.3	0.3	0.2	0.2	98.4
남자	55-59세	1,309	31	100.0	2.4	0.8	0.2	0.1	0.8	0.2	0.3	97.6
	60-64세	1,030	21	100.0	2.0	0.7	0.2	0.3	0.4	0.2	0.3	98.0
	65-69세	842	14	100.0	1.7	0.2	0.2	0.6	0.4	0.1	0.1	98.3
	70-74세	649	5	100.0	0.8	0.2	0.2	0.2	0.3			99.2
	75-79세	374	4	100.0	1.1	0.5		0.5				98.9
	전연령	4,204	75	100.0	1.8	0.5	0.2	0.3	0.5	0.1	0.2	98.2
여자	55-59세	1,324	38	100.0	2.9	0.4	0.6	0.5	0.5	0.6	0.2	97.1
	60-64세	1,083	18	100.0	1.7	0.6	0.3	0.3	0.2	0.3	0.1	98.3
	65-69세	1,013	10	100.0	1.0	0.2	0.2	0.3	0.2		0.1	99.0
	70-74세	872	4	100.0	0.5			0.1		0.1	0.2	99.5
	75-79세	608	4	100.0	0.7	0.2	0.2	0.3				99.3
	전연령	4,900	74	100.0	1.5	0.3	0.3	0.3	0.2	0.2	0.1	98.5

바. 최근 일자리와 생애 주된 일자리의 관련성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경력(일)과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1%이고, ‘약간 관련 있다’가 5.3%, ‘별로 관련 없다’가 10.7%, ‘전혀 관련 없다’가 17.6%다. 즉 10명 중 3명꼴로 과거 경력(일)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표 5-9>참조).

〈표 5-9〉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의 관련성(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취업 경험자 (천 명)	비율(%)				
			전혀 관련 없음	별로 관련 없음	약간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	취업경험자
남녀	55-59세	1,964	15.2	10.4	10.3	64.2	100.0
	60-64세	1,314	19.0	11.7	10.0	59.2	100.0
	65-69세	946	20.0	11.2	10.8	58.0	100.0
	70-74세	631	19.0	9.8	7.3	63.9	100.0
	75-79세	266	15.8	7.5	5.3	71.4	100.0
	전연령	5,121	17.6	10.7	9.7	62.1	100.0
남자	55-59세	1,160	15.0	9.1	10.8	65.1	100.0
	60-64세	776	20.0	11.9	10.8	57.3	100.0
	65-69세	527	22.2	10.8	12.5	54.5	100.0
	70-74세	329	22.2	11.9	6.4	59.6	100.0
	75-79세	128	16.4	8.6	5.5	69.5	100.0
	전연령	2,920	18.5	10.4	10.4	60.7	100.0
여자	55-59세	804	15.4	12.2	9.6	62.8	100.0
	60-64세	538	17.7	11.5	8.9	61.9	100.0
	65-69세	419	17.2	11.7	8.6	62.5	100.0
	70-74세	302	15.6	7.6	8.3	68.5	100.0
	75-79세	138	15.2	6.5	5.1	73.2	100.0
	전연령	2,201	16.3	10.9	8.8	64.0	100.0

3. 계속근로 희망

가. 계속근로 의사와 취업동기

2009년 5월 고령층(55~79세) 911만 명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525만 명(57.6%)이다. 연령별로는 50대 후반(76.5%), 60대 초반(66.9%), 60대 후반(52.4%), 70대 초반(40.4%), 70대 후반(23.8%) 순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속근로 희망자가 줄고 있다.

남자는 계속근로 희망자가 72.3%고, 여자는 45.0%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수록 계속근로 희망자가 줄지만, 남자는 70대 초반(49.8%), 여자는 50대 후반(53.0%)까지 절반 이상이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남자 50대 후반(89.7%)은 10명 중 9명, 60대 초반(81.4%)은 10명 중 8명이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32.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19.4%)에 많이 응답하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마찬가지다(<표 5-10> 참조).

<표 5-10> 계속근로 의사와 주된 동기(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55-79세 인구	계속 근로 희망	전체	계속 근로 희망	계속근로희망 주된 동기(이유)					계속 근로 희망 안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	건강 유지	무료 해서	
남녀	55-59세	2,635	2,015	100.0	76.5	24.2	45.8	2.2	1.4	2.6	23.5
	60-64세	2,111	1,412	100.0	66.9	22.8	38.5	1.1	1.5	2.9	33.1
	65-69세	1,855	972	100.0	52.4	18.5	28.6	0.6	1.6	3.1	47.6
	70-74세	1,524	615	100.0	40.4	14.4	21.1	0.4	1.2	3.1	59.6
	75-79세	982	234	100.0	23.8	8.2	10.5	0.1	1.7	3.1	76.2
	전연령	9,107	5,248	100.0	57.6	19.4	32.6	1.1	1.5	2.9	42.4
남자	55-59세	1,310	1,175	100.0	89.7	30.5	52.0	3.7	1.5	1.6	10.3
	60-64세	1,029	838	100.0	81.4	31.4	43.6	2.0	1.7	2.5	18.6
	65-69세	842	570	100.0	67.7	26.5	34.7	1.1	2.5	3.0	32.3
	70-74세	650	324	100.0	49.8	21.1	22.6	0.8	1.5	3.8	50.2
	75-79세	375	135	100.0	36.0	14.9	13.3	0.3	3.2	3.7	64.0
	전연령	4,206	3,042	100.0	72.3	27.1	38.5	2.0	1.9	2.6	27.7
여자	55-59세	1,325	840	100.0	63.4	18.0	39.6	0.8	1.4	3.5	36.6
	60-64세	1,082	574	100.0	53.0	14.7	33.5	0.3	1.3	3.2	47.0
	65-69세	1,013	402	100.0	39.7	11.8	23.6	0.2	0.8	3.3	60.3
	70-74세	874	291	100.0	33.3	9.5	19.9	0.1	1.0	2.6	66.7
	75-79세	607	99	100.0	16.3	4.1	8.7		0.8	2.6	83.7
	전연령	4,901	2,206	100.0	45.0	12.8	27.6	0.3	1.1	3.1	55.0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생활비 보
 탐’, ‘일하는 즐거움’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취업자는 ‘생활비 보
 탐’과 ‘일하는 즐거움’에 49.8%, 30.6% 순으로 응답하고, 미취업자는 각각
 16.2%와 8.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표 5-11>과 <표 5-12> 참조).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55-79세 인구	계속 근로 희망	전체	계속 근로 희망	계속근로희망 주된 동기(이유)					계속 근로 희망 안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	건강 유지	무료 혜서	
남녀	55-59세	1,747	1,605	100.0	91.9	31.0	54.2	2.9	1.5	2.2	8.1
	60-64세	1,151	1,047	100.0	91.0	31.4	53.3	1.7	1.7	2.9	9.0
	65-69세	807	673	100.0	83.4	30.9	46.0	1.2	1.7	3.6	16.6
	70-74세	537	417	100.0	77.7	29.2	41.0	0.9	1.9	4.7	22.3
	75-79세	208	139	100.0	66.8	25.0	31.7	0.5	2.4	7.2	33.2
	전연령	4,450	3,881	100.0	87.2	30.6	49.8	1.9	1.7	3.1	12.8
남자	55-59세	1,053	1,003	100.0	95.3	34.2	54.3	4.0	1.4	1.1	4.7
	60-64세	687	648	100.0	94.3	36.5	51.5	2.6	1.6	1.9	5.7
	65-69세	457	410	100.0	89.7	36.8	46.2	1.8	2.0	3.1	10.3
	70-74세	286	234	100.0	81.8	34.6	39.2	1.4	2.4	4.2	18.2
	75-79세	109	78	100.0	71.6	33.0	30.3	0.9	1.8	5.5	28.4
	전연령	2,592	2,373	100.0	91.6	35.3	49.5	2.8	1.7	2.2	8.4
여자	55-59세	694	602	100.0	86.7	26.1	54.0	1.2	1.6	3.7	13.3
	60-64세	464	399	100.0	86.0	23.7	56.0	0.2	1.7	4.3	14.0
	65-69세	350	263	100.0	75.1	23.1	45.7	0.6	1.4	4.3	24.9
	70-74세	251	183	100.0	72.9	23.1	43.0	0.4	1.2	5.2	27.1
	75-79세	99	61	100.0	61.6	16.2	33.3		3.0	9.1	38.4
	전연령	1,858	1,508	100.0	81.2	24.0	50.4	0.6	1.6	4.5	18.8

〈표 5-12〉 계속근로 의사와 주된 동기(2009년 5월, 미취업자)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55-79세 인구	계속 근로 희망	전체	계속 근로 희망	계속근로희망 주된 동기(이유)					계속 근로 희망 안함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	건강 유지	무료 혜서	
남녀	55-59세	884	405	100.0	45.8	10.9	29.3	1.0	1.4	3.2	54.2
	60-64세	962	366	100.0	38.0	12.7	20.6	0.5	1.2	2.9	62.0
	65-69세	1,048	299	100.0	28.5	8.9	15.3	0.1	1.5	2.8	71.5
	70-74세	986	197	100.0	20.0	6.3	10.2	0.1	0.9	2.3	80.0
	75-79세	775	95	100.0	12.3	3.6	4.8	0.1	1.5	1.9	87.7
	전연령	4,655	1,362	100.0	29.3	8.6	16.2	0.4	1.3	2.6	70.7
남자	55-59세	255	170	100.0	66.7	15.7	42.7	2.7	2.0	3.1	33.3
	60-64세	343	191	100.0	55.7	21.0	27.7	0.9	2.0	3.8	44.3
	65-69세	385	160	100.0	41.6	14.3	21.0	0.3	3.1	2.9	58.4
	70-74세	363	89	100.0	24.5	10.2	9.6	0.3	0.8	3.6	75.5
	75-79세	268	58	100.0	21.6	7.5	6.3	0.4	3.7	3.0	78.4
	전연령	1,614	668	100.0	41.4	13.9	20.9	0.8	2.3	3.3	58.6
여자	55-59세	629	235	100.0	37.4	8.9	23.8	0.3	1.1	3.2	62.6
	60-64세	619	175	100.0	28.3	8.1	16.6	0.3	0.8	2.4	71.7
	65-69세	663	139	100.0	21.0	5.7	11.9		0.6	2.7	79.0
	70-74세	623	108	100.0	17.3	4.0	10.6		1.0	1.6	82.7
	75-79세	507	37	100.0	7.3	1.6	3.9		0.4	1.4	92.7
	전연령	3,041	694	100.0	22.8	5.8	13.7	0.1	0.8	2.3	77.2

나. 계속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계속근로 희망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수준(38.6%), 계속근로 가능성(21.7%), 일의 양과 시간대(17.3%) 순으로 주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 응답은 줄어들고, 일의 양과 시간대 응답이 많아진다. 그 결과 70대 후반에는 일의 양과 시간대(30.8%), 임금수준(29.5%), 계속근로 가능성(14.1%) 순으로 순위가 바뀐다.

성별로 일자리 선택기준에 차이가 난다. 즉 남자는 임금수준(37.7%),

계속근로 가능성(24.7%), 일의 양과 시간대(12.9%) 순인데, 여자는 임금 수준(39.8%), 일의 양과 시간대(23.3%), 계속근로 가능성(17.6%) 순으로, 2위와 3위가 뒤바뀐다. 이는 70대 고령자와 여성은 건강과 가정일 등을 이유로 ‘일의 양과 시간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말해준다(<표 5-13> 참조).

<표 5-13> 계속근로 희망자의 일자리 선택기준(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계속 근로 희망자 (천 명)	비율(%)							
			임금 수준	일의양 시간대	일내용 (직종)	출퇴근 거리등 편리성	계속 근로 가능성	과거취 업경험 연관성	기타	전체
남녀	55-59세	2,015	42.0	13.9	8.2	3.0	22.1	8.1	2.6	100.0
	60-64세	1,413	39.6	15.9	7.4	3.8	22.4	8.8	2.0	100.0
	65-69세	971	36.4	18.8	7.2	4.1	22.7	9.2	1.6	100.0
	70-74세	616	32.3	23.7	8.6	4.4	20.3	9.7	1.0	100.0
	75-79세	234	29.5	30.8	11.1	2.1	14.1	11.1	1.3	100.0
	전연령	5,249	38.6	17.3	8.0	3.5	21.7	8.8	2.0	100.0
남자	55-59세	1,175	41.9	8.7	8.9	2.0	25.3	9.9	3.4	100.0
	60-64세	838	39.5	11.1	8.0	2.5	24.9	11.1	2.9	100.0
	65-69세	570	34.0	16.3	8.4	2.6	25.8	10.5	2.3	100.0
	70-74세	326	29.1	20.9	10.7	4.6	22.4	11.0	1.2	100.0
	75-79세	135	27.4	28.1	11.1	3.0	18.5	11.1	0.7	100.0
	전연령	3,044	37.7	12.9	8.8	2.6	24.7	10.5	2.7	100.0
여자	55-59세	840	42.1	21.3	7.3	4.4	17.6	5.7	1.5	100.0
	60-64세	575	39.8	23.0	6.6	5.6	18.8	5.6	0.7	100.0
	65-69세	401	39.7	22.4	5.5	6.2	18.2	7.2	0.7	100.0
	70-74세	290	35.9	26.9	6.2	4.1	17.9	8.3	0.7	100.0
	75-79세	99	32.3	34.3	11.1	1.0	8.1	11.1	2.0	100.0
	전연령	2,205	39.8	23.3	6.8	4.9	17.6	6.5	1.1	100.0

다.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

계속근로 희망자 525만 명 가운데 374만 명(71.2%)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151만 명(28.8%)이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희망은 여자(43.4%)가 남자(18.8%)보다 많고,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표 5-14> 참조).

〈표 5-14〉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200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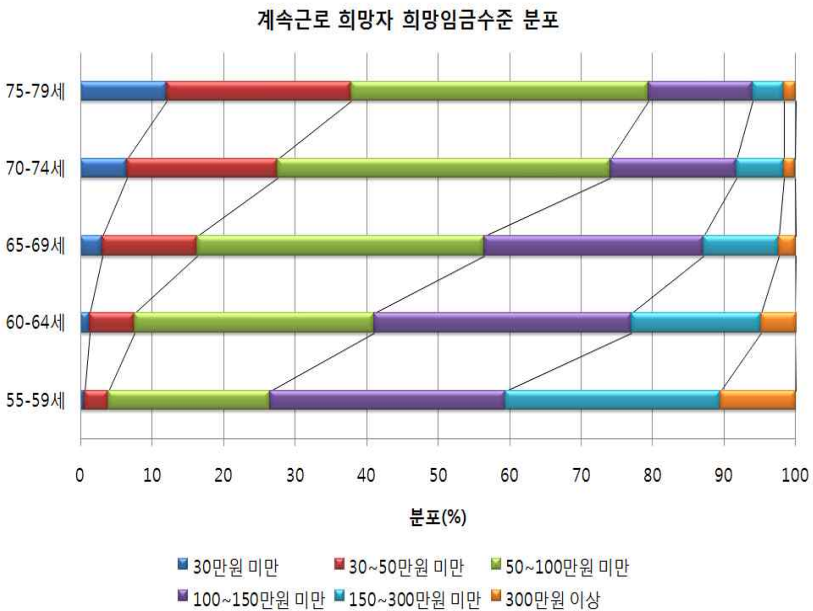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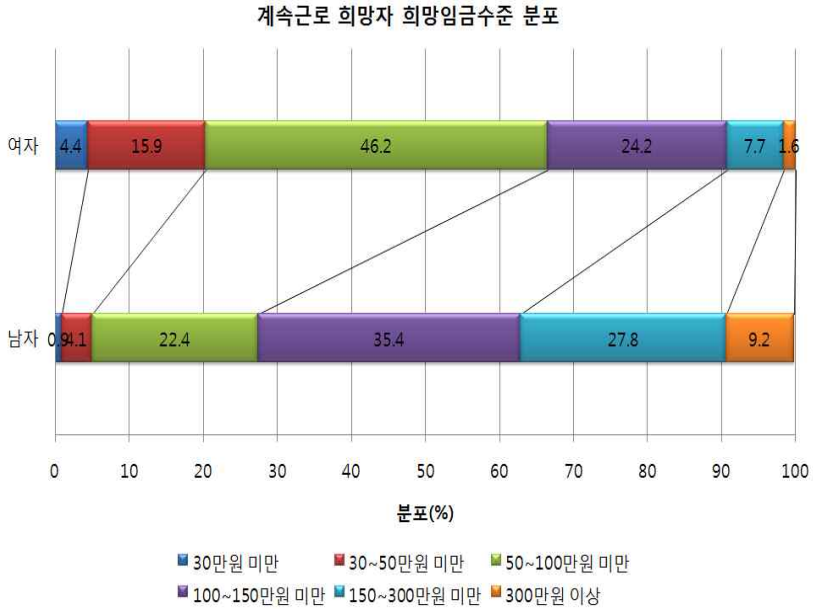
성별	연령 계층	수(천 명)			비율(%)		
		계속근로 희망자	전일제	시간제	계속근로 희망자	전일제	시간제
남녀	55-59세	2,016	1,627	389	100.0	80.7	19.3
	60-64세	1,414	1,051	363	100.0	74.3	25.7
	65-69세	974	628	346	100.0	64.5	35.5
	70-74세	615	322	293	100.0	52.4	47.6
	75-79세	233	113	120	100.0	48.5	51.5
	전연령	5,252	3,741	1,511	100.0	71.2	28.8
남자	55-59세	1,176	1,070	106	100.0	91.0	9.0
	60-64세	839	722	117	100.0	86.1	13.9
	65-69세	571	428	143	100.0	75.0	25.0
	70-74세	325	195	130	100.0	60.0	40.0
	75-79세	134	76	58	100.0	56.7	43.3
	전연령	3,045	2,491	554	100.0	81.8	18.2
여자	55-59세	840	557	283	100.0	66.3	33.7
	60-64세	575	329	246	100.0	57.2	42.8
	65-69세	403	200	203	100.0	49.6	50.4
	70-74세	290	127	163	100.0	43.8	56.2
	75-79세	99	37	62	100.0	37.4	62.6
	전연령	2,207	1,250	957	100.0	56.6	43.4

라.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임금수준

계속근로 희망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50~100만원 미만'(32.4%)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30.7%), '150만원 이상'(25.4%) 순이다. 남자는 150만원 이상이 37%고 100만원 이상이 72.4%인데, 여자는 각각 9.3%와 33.5%로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연령 계층별로도 50대 후반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이 73.5%인데, 60대 초반은 59.1%, 60대 후반은 43.6%, 70대 초반은 25.8%, 70대 후반은 20.6%로, 나이가 들수록 희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그림 5-3]과 <표 5-15> 참조).

[그림 5-3] 계속근로 희망자의 희망 임금수준 분포(2009년 5월)

(단위: %)



〈표 5-15〉 계속근로 희망자의 월평균 희망 임금수준 분포(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계속 근로 희망자 (천 명)	비율(%)						계속 근로 희망자
			30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남녀	55-59세	2,016	0.5	3.4	22.6	32.9	30.1	10.5	100.0
	60-64세	1,414	1.3	6.2	33.5	36.0	18.2	4.9	100.0
	65-69세	974	3.0	13.3	40.1	30.7	10.5	2.4	100.0
	70-74세	615	6.5	21.1	46.5	17.6	6.7	1.5	100.0
	75-79세	233	12.0	25.8	41.6	14.6	4.3	1.7	100.0
	전연령	5,252	2.4	9.1	32.4	30.7	19.4	6.0	100.0
남자	55-59세	1,176	0.3	0.7	8.4	32.9	41.7	16.0	100.0
	60-64세	839	0.2	1.8	21.0	42.7	26.9	7.4	100.0
	65-69세	571	0.7	6.0	34.2	40.1	15.9	3.2	100.0
	70-74세	325	4.0	13.5	45.2	24.0	10.2	2.8	100.0
	75-79세	134	4.5	17.9	49.3	20.1	5.2	3.0	100.0
	전연령	3,045	0.9	4.1	22.4	35.4	27.8	9.2	100.0
여자	55-59세	840	0.8	7.3	42.4	33.0	13.9	2.7	100.0
	60-64세	575	2.8	12.5	51.7	26.3	5.6	1.2	100.0
	65-69세	403	6.2	23.8	48.6	17.4	2.7	1.2	100.0
	70-74세	290	9.3	29.7	47.9	10.3	2.8		100.0
	75-79세	99	22.2	36.4	31.3	7.1	3.0		100.0
	전연령	2,207	4.4	15.9	46.2	24.2	7.7	1.6	100.0

4. 연금 수령

지난 1년간 연금(개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수령자는 398만 명(43.7%)으로, 남자 207만 명(49.2%), 여자 191만 명(38.9%)이다. 연령별로 50대 후반은 7.4%, 60대 초반은 41%만 연금을 수령하는데 비해, 60대 후반은 63.9%, 70대 초반은 67.0%, 70대 후반은 72.2%로 다수가 연금을 수령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평균 34만원(중앙값 12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이 44.6%, 25만원 미만이 73.5%를 차지한다. 특히 70대 이상은 10만원 미만이 2/3를 넘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는 다른 연금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값 기준으로 월평균 연금수령액을 살펴보면, 50대 후반은 50만원, 60대 초반은 21만원, 60대 후반은 12만원, 70대는 8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연금수령액이 줄고 있다(<표 5-16> 과 <표 5-17> 참조).

〈표 5-16〉 연금수령자 비율과 월평균 연금수령액 (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55-79세 인구	연금수령자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			
		(천 명)	수 (천 명)	비율	평균값	중앙값	표준 편차	변이 계수
남녀	55-59세	2,636	196	7.4	86.3	50.0	83.8	0.97
	60-64세	2,113	866	41.0	48.6	21.0	65.0	1.34
	65-69세	1,856	1,186	63.9	30.2	12.0	52.2	1.73
	70-74세	1,523	1,021	67.0	23.9	8.0	47.2	1.98
	75-79세	981	708	72.2	22.8	8.0	45.2	1.99
	전연령	9,109	3,977	43.7	34.0	12.0	57.0	1.67
남자	55-59세	1,310	111	8.5	109.3	70.0	88.5	0.81
	60-64세	1,030	599	58.2	56.9	26.1	70.2	1.23
	65-69세	843	630	74.7	43.3	19.0	64.9	1.50
	70-74세	651	457	70.2	35.8	9.2	61.4	1.71
	75-79세	374	275	73.5	36.9	8.0	63.9	1.73
	전연령	4,208	2,072	49.2	48.3	19.0	69.1	1.43
여자	55-59세	1,326	85	6.4	56.1	27.0	66.2	1.18
	60-64세	1,083	267	24.7	30.0	17.0	46.5	1.55
	65-69세	1,013	556	54.9	15.4	8.0	25.0	1.63
	70-74세	872	564	64.7	14.2	8.0	27.7	1.96
	75-79세	607	433	71.3	13.8	8.0	23.4	1.70
	전연령	4,901	1,905	38.9	18.5	8.0	33.5	1.81

〈표 5-17〉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 분포(2009년 5월)

성별	연령 계층	연금 수령자 (천 명)	비율(%)								연금 수령자
			10 만원 미만	10~25 만원 미만	25~50 만원 미만	50~ 100 만원 미만	100~ 150 만원 미만	150~ 200 만원 미만	200~ 250 만원 미만	250 만원 이상	
남녀	55-59세	197	4.1	23.9	21.3	16.8	9.1	8.6	8.6	7.6	100.0
	60-64세	866	5.2	50.9	19.7	11.2	2.7	3.1	4.2	3.0	100.0
	65-69세	1,187	43.8	31.2	13.3	4.0	2.2	2.4	1.3	1.9	100.0
	70-74세	1,023	66.5	19.6	5.1	1.5	2.6	2.0	1.8	1.1	100.0
	75-79세	708	73.6	12.9	4.0	2.5	3.0	1.7	1.3	1.1	100.0
	전연령	3,981	44.6	28.9	11.3	5.3	2.9	2.6	2.4	2.1	100.0
남자	55-59세	112	3.6	13.4	15.2	24.1	8.9	12.5	10.7	11.6	100.0
	60-64세	599	1.7	45.6	22.0	14.9	3.2	3.7	5.2	3.8	100.0
	65-69세	629	25.9	36.4	18.8	6.4	3.2	4.1	2.1	3.2	100.0
	70-74세	458	50.0	26.6	8.3	1.7	4.4	3.5	3.3	2.2	100.0
	75-79세	275	54.9	22.5	5.5	2.9	4.4	4.0	3.3	2.5	100.0
	전연령	2,073	26.9	33.8	15.4	8.3	3.9	4.3	3.9	3.5	100.0
여자	55-59세	85	4.7	37.6	29.4	7.1	9.4	3.5	5.9	2.4	100.0
	60-64세	267	13.1	62.9	14.6	3.0	1.5	1.9	1.9	1.1	100.0
	65-69세	558	64.0	25.3	7.2	1.3	1.1	0.5	0.4	0.4	100.0
	70-74세	565	79.8	13.8	2.5	1.2	1.2	0.7	0.5	0.2	100.0
	75-79세	433	85.5	6.7	3.0	2.3	2.1	0.2	-	0.2	100.0
	전연령	1,908	63.8	23.5	6.9	2.0	1.8	0.8	0.8	0.5	100.0

5. 소결

200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다가올 미래인 고령층의 취업실태와 구직실태 및 계속근로 희망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55~79세) 911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446만 명(48.9%)으로 절반은 계속 일 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낮아지지만, 50대 후반은 66.4%, 60대 초반은 54.5%로 60대 초반까지는 절반 이상이 계속 일하고 있다. 남자는 60대 후반(54.3%), 여자는 50대 후반(52.5%)까지 절반 이상이 취업자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일자리)에서 근속년수 평균은 20.3년(중앙값 19.0년)이고, 일자리를 그만둔 이직연령 평균은 53.2세(중앙값 55세)다. 남자는 이직연령 평균이 55.1세(중앙값 56세)고 여자는 51.6세(54세)다.

셋째, 이직경험이 있는 고령층 622만 명 가운데 정년퇴직은 69만 명(11.1%)이고, 정년퇴직 연령은 평균 58.7세(중앙값 58세)다. 남자는 정년퇴직이 62만 명(21.5%)인데 여자는 7만 명(2.1%)밖에 안 된다.

넷째, 사업부진·조업중단, 휴업폐업, 권고사직·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217만 명(34.9%)이다. 비자발적 이직연령 평균은 51.5~53.7세(중앙값 52~55세)인데, 정년퇴직보다 평균 5~7세(3~6세) 앞서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129만 명(44.9%)이고 여자는 88만 명(26.2%)이다.

다섯째, 고령층 911만 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경험한 사람은 116만 명(12.7%)이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00만 명(11.0%)으로, 구직활동에 나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86.9%로 높은 편이다.

여섯째, 고령층 구직경로는 '친구, 친지 소개 부탁'(44.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노동부등 공공직업알선기관'(21.2%), '사업체 문의, 방문'(10.5%), '신문, 잡지, 인터넷 등'(9.9%), '민간직업알선기관'(8.2%), '자영업 준비'(4.1%) 순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이 줄어

들과 공공직업알선기관 비중이 늘어난다.

일곱째, 고령층 911만 명 가운데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15만 명(1.6%)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남자(7만5천 명)와 여자(7만4천 명) 교육훈련 경험자가 동일하며, 50대 후반(7만 명)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덟째,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경력(일)과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1%이고, '약간 관련 있다'가 5.3%, '별로 관련 없다'가 10.7%, '전혀 관련 없다'가 17.6%다. 10명 중 3명은 과거 경력(일)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고령층 911만 명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525만 명(57.6%)이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근로 희망자가 줄어들지만, 50대 후반 76.5%, 60대 초반 66.9%, 60대 후반 52.4%로, 60대 후반까지는 절반 이상이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남자는 70대 초반(49.8%), 여자는 50대 후반(53.0%)까지 절반 이상이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32.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19.4%) 순이다.

열째, 계속근로 희망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수준(38.6%), 계속근로가능성(21.7%), 일의 양과 시간대(17.3%)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 응답이 줄고, 일의 양과 시간대 응답이 늘어난다.

열한째, 계속근로 희망자 525만 명 가운데 374만 명(71.2%)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151만 명(28.8%)이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희망은 여자(43.4%)가 남자(18.8%)보다 많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열두째, 계속근로 희망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만원 이상이 25.4%, 100만원 이상이 56.1%다. 남자는 150만원 이상이 37.0%, 100만원 이상이 72.4%인데, 여자는 9.3%와 33.5%로 격차가 크다. 연령계층별로도 50대 후반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이 73.5%인데, 60대 초반은 59.1%, 60대 후반은 43.6%, 70대 초반은 25.8%, 70대 후반은 20.6%로, 나이가 들수록 희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열셋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는 398만 명(43.7%)으로, 남자 207만 명(49.2%), 여자 191만 명(38.9%)이다. 50대 후반은 7.4%, 60대 초반은 41%만 연금을 수령한데 비해, 60대 후반은 63.9%, 70대 초반은 67.0%, 70대 후반은 72.2%로 다수가 연금을 수령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열넷째,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평균 34만원(중앙값 12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이 44.6%, 25만원 미만이 73.5%다. 70대 이상은 10만원 미만이 2/3가 넘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는 다른 연금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값 기준으로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50대 후반 50만원, 60대 초반 21만원, 60대 후반 12만원, 70대 8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고 있다.

제6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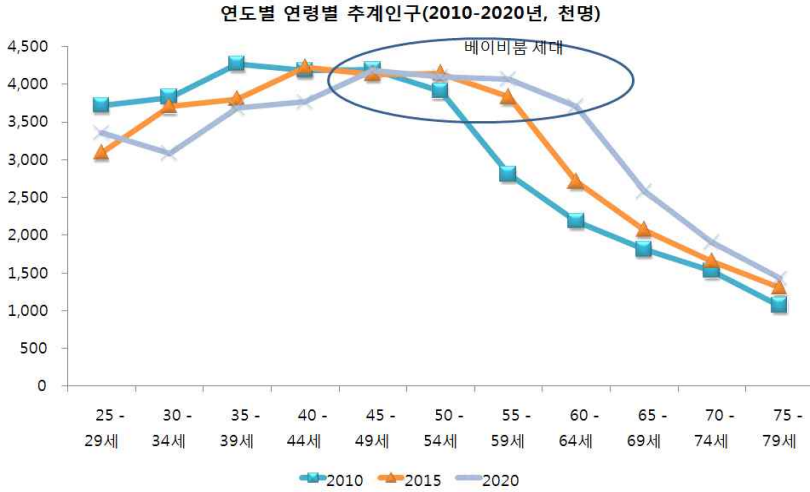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편의상 2010년에는 만45~54세, 2015년에는 만50~59세, 2020년에는 만55~64세 연령층 자료를 사용해서, 2015년과 2020년의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를 추계한다.³⁾

1. 추계 인구

통계청은 2050년까지 연령별 추계인구를 발표하고 있다. 2010년 만45~54세 연령층은 810만 명, 2015년 만50~59세 연령층은 798만 명, 2020년 만55~64세 연령층은 778만 명이다. 이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729만 명, 2015년 717만 명, 2020년 699만 명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1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 인구 규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1]과 <표 6-1>, <표 6-2> 참조).

3) 연령효과, 세대효과, 시대(시간) 효과가 중첩되어 있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림 6-1] 연도별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표 6-1〉 연도별 연령계층별 추계인구(남녀)

	수(천 명)					비율(%)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47,008	48,138	48,875	49,277	49,326	100.0	100.0	100.0	100.0	100.0
0 - 4세	3,260	2,545	2,201	2,073	1,919	6.9	5.3	4.5	4.2	3.9
5 - 9세	3,521	3,234	2,517	2,178	2,051	7.5	6.7	5.2	4.4	4.2
10 - 14세	3,130	3,463	3,188	2,482	2,148	6.7	7.2	6.5	5.0	4.4
15 - 19세	3,842	3,136	3,402	3,133	2,440	8.2	6.5	7.0	6.4	4.9
20 - 24세	3,854	3,743	3,113	3,378	3,112	8.2	7.8	6.4	6.9	6.3
25 - 29세	4,353	3,844	3,721	3,096	3,360	9.3	8.0	7.6	6.3	6.8
30 - 34세	4,248	4,301	3,828	3,707	3,086	9.0	8.9	7.8	7.5	6.3
35 - 39세	4,273	4,233	4,270	3,804	3,684	9.1	8.8	8.7	7.7	7.5
40 - 44세	4,020	4,248	4,184	4,225	3,767	8.6	8.8	8.6	8.6	7.6
45 - 49세	2,921	3,960	4,192	4,135	4,181	6.2	8.2	8.6	8.4	8.5
50 - 54세	2,366	2,868	3,908	4,145	4,096	5.0	6.0	8.0	8.4	8.3
55 - 59세	2,006	2,270	2,805	3,830	4,070	4.3	4.7	5.7	7.8	8.3
60 - 64세	1,817	1,927	2,187	2,711	3,711	3.9	4.0	4.5	5.5	7.5
65 - 69세	1,381	1,683	1,811	2,071	2,581	2.9	3.5	3.7	4.2	5.2
70 - 74세	922	1,246	1,527	1,654	1,908	2.0	2.6	3.1	3.4	3.9
75 - 79세	608	762	1,067	1,306	1,429	1.3	1.6	2.2	2.6	2.9
80세이상	483	676	952	1,350	1,783	1.0	1.4	1.9	2.7	3.6
베이비붐세대	7,470	7,385	7,287	7,171	6,987	15.9	15.3	14.9	14.6	14.2

자료: KOSIS

〈표 6-2〉 연도별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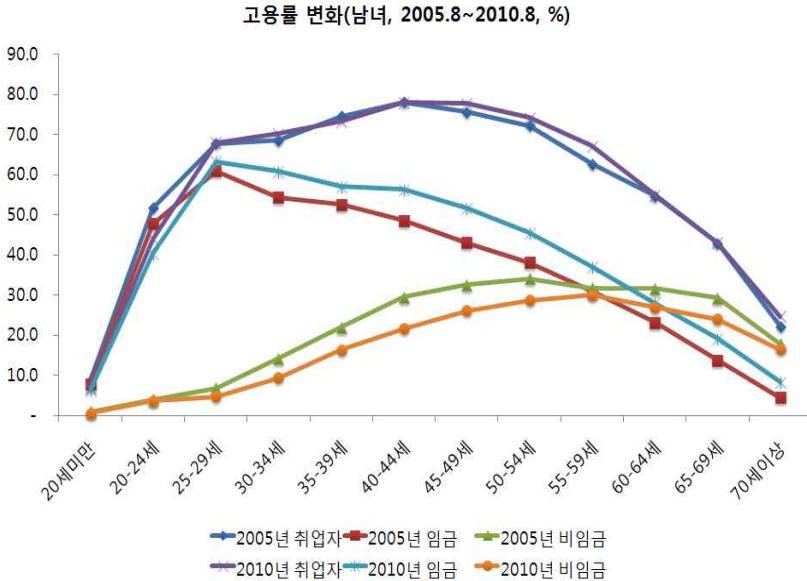
	남자					여자				
	2000	2005	2010	2015	2020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23,667	24,191	24,540	24,707	24,680	23,341	23,947	24,334	24,570	24,646
0 - 4세	1,716	1,325	1,141	1,074	990	1,544	1,220	1,060	999	929
5 - 9세	1,877	1,696	1,310	1,129	1,062	1,644	1,538	1,207	1,049	989
10 - 14세	1,651	1,842	1,671	1,291	1,113	1,479	1,621	1,517	1,191	1,035
15 - 19세	1,987	1,645	1,808	1,641	1,268	1,855	1,492	1,594	1,493	1,172
20 - 24세	1,990	1,933	1,641	1,805	1,638	1,865	1,809	1,472	1,573	1,473
25 - 29세	2,232	1,980	1,922	1,632	1,795	2,121	1,864	1,799	1,464	1,565
30 - 34세	2,177	2,210	1,977	1,919	1,631	2,071	2,091	1,851	1,787	1,454
35 - 39세	2,181	2,162	2,194	1,965	1,909	2,093	2,072	2,076	1,839	1,776
40 - 44세	2,045	2,169	2,132	2,167	1,943	1,975	2,079	2,053	2,059	1,824
45 - 49세	1,483	2,012	2,125	2,093	2,131	1,438	1,949	2,067	2,042	2,049
50 - 54세	1,194	1,443	1,966	2,083	2,056	1,172	1,425	1,942	2,062	2,040
55 - 59세	981	1,128	1,395	1,905	2,024	1,025	1,142	1,410	1,925	2,046
60 - 64세	852	914	1,068	1,326	1,816	965	1,013	1,119	1,385	1,895
65 - 69세	595	758	834	985	1,230	786	925	978	1,087	1,351
70 - 74세	353	508	659	730	874	569	738	868	924	1,034
75 - 79세	215	270	411	529	595	393	492	656	776	834
80세이상	136	198	287	434	604	348	478	664	916	1,179
베이비붐세대	3,801	3,758	3,676	3,581	3,442	3,669	3,627	3,611	3,590	3,546

자료: KOSIS

2. 고용률 변화(2005~2010년)

2010년 8월에는 고용률이 2005년 8월보다 0.3%p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2.9%p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3.4%p 감소했다. 연령계층별로 24세 이하와 35~44세 연령층 고용률은 감소했지만, 45세 이상 장년층과 고령층 고용률은 증가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24세 이하 청년층만 감소하고 25세 이상 연령은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그림 6-2와 <표 6-3> 참조). 이러한 추세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다(<표 6-4>와 <표 6-5> 참조).

[그림 6-2] 연령계층별 고용률 변화



〈표 6-3〉 고용률 변화(남녀, 2005.8~2010.8, 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

	2005년			2010년			증감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전체	59.4	39.0	20.5	59.1	41.9	17.1	-0.3	2.9	-3.4
20세 미만	8.7	7.8	0.9	6.9	6.3	0.5	-1.8	-1.5	-0.4
20-24세	51.7	47.7	4.0	43.9	40.3	3.6	-7.8	-7.4	-0.4
25-29세	67.7	60.9	6.7	67.9	63.3	4.6	0.2	2.4	-2.1
30-34세	68.5	54.3	14.2	70.2	60.8	9.4	1.7	6.5	-4.8
35-39세	74.6	52.6	22.0	73.2	57.0	16.3	-1.4	4.4	-5.7
40-44세	78.0	48.6	29.4	77.9	56.3	21.6	-0.1	7.7	-7.8
45-49세	75.6	43.0	32.6	77.7	51.6	26.1	2.1	8.6	-6.5
50-54세	72.2	38.1	34.1	74.2	45.5	28.7	2.0	7.4	-5.4
55-59세	62.6	30.9	31.7	67.1	37.0	30.0	4.5	6.1	-1.7
60-64세	54.6	23.1	31.6	54.9	28.0	26.9	0.3	4.9	-4.7
65-69세	42.9	13.7	29.2	43.0	19.1	23.9	0.1	5.4	-5.3
70세 이상	22.2	4.4	17.8	24.7	8.3	16.4	2.5	3.9	-1.4
베이비붐	76.5	44.7	31.8	75.6	47.2	28.4	-0.9	2.5	-3.4

〈표 6-4〉 고용률 변화(남자, 2005.8~2010.8, 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

	2005년			2010년			증감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전체	71.3	46.5	24.9	70.4	49.2	21.2	-0.9	2.7	-3.7
베이비붐	90.6	52.5	38.1	89.3	54.5	34.9	-1.3	2.0	-3.2
20세미만	7.9	7.2	0.8	5.2	5	0.2	-2.7	-2.2	-0.6
20-24세	42.8	38.8	4.0	37.7	34	3.7	-5.1	-4.8	-0.3
25-29세	73.1	65.0	8.1	69.9	64.1	5.8	-3.2	-0.9	-2.3
30-34세	89.5	71.9	17.5	87.4	76.3	11.1	-2.1	4.4	-6.4
35-39세	92.0	66.2	25.9	91.2	70.8	20.4	-0.8	4.6	-5.5
40-44세	91.8	57.0	34.7	91.6	65.4	26.2	-0.2	8.4	-8.5
45-49세	89.9	50.6	39.3	90.9	59.5	31.4	1.0	8.9	-7.9
50-54세	86.5	45.5	40.9	88.5	53.1	35.4	2.0	7.6	-5.5
55-59세	77.4	39.6	37.7	81.5	44.5	37.1	4.1	4.9	-0.6
60-64세	65.8	28.6	37.3	68.6	34.3	34.3	2.8	5.7	-3.0
65-69세	53.5	18.9	34.4	53.4	23.8	29.6	-0.1	4.9	-4.8
70세이상	31.4	4.8	26.7	34.2	10.2	24	2.8	5.4	-2.7

〈표 6-5〉 고용률 변화(여자, 2005.8~2010.8, 생산가능인구 대비)
(단위: %)

	2005년			2010년			증감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전체	48.2	31.8	16.4	48.1	35	13.2	-0.1	3.2	-3.2
20세미만	9.6	8.6	1.0	8.7	7.8	0.9	-0.9	-0.8	-0.1
20-24세	58.1	54.2	3.9	48.6	45.1	3.5	-9.5	-9.1	-0.4
25-29세	62.0	56.7	5.4	65.8	62.5	3.3	3.8	5.8	-2.1
30-34세	46.7	35.9	10.8	52.2	44.5	7.7	5.5	8.6	-3.1
35-39세	56.5	38.6	18.0	54.5	42.4	12	-2.0	3.8	-6.0
40-44세	63.8	39.8	24.0	63.8	46.9	16.9	-0.0	7.1	-7.1
45-49세	61.1	35.3	25.8	64.2	43.5	20.7	3.1	8.2	-5.1
50-54세	57.8	30.6	27.2	59.8	37.9	21.9	2.0	7.3	-5.3
55-59세	48.1	22.3	25.8	52.7	29.6	23	4.6	7.3	-2.8
60-64세	44.3	18.0	26.3	41.6	21.9	19.7	-2.7	3.9	-6.6
65-69세	34.0	9.2	24.8	34.3	15.2	19.1	0.3	6.0	-5.7
70세이상	16.8	4.2	12.5	18.7	7.2	11.5	1.9	3.0	-1.0
베이비붐	62.2	36.8	25.4	61.7	39.9	21.8	-0.5	3.1	-3.6

3. 베이비붐 세대 은퇴규모

가. 추계 1 (2010년 고용률 적용)

<표 6-6>과 <표 6-7>, <표 6-8>은 2010년 8월 연령계층별 고용률(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적용해서, 2015년과 2020년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규모를 추계한 결과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45만 명(남자 24만 명, 여자 21만 명) 감소하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79만 명(남자 45만 명, 여자 34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임금근로자는 각각 48만 명, 68만 명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3만 명 증가했다가 11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표 6-6>과 <표 6-7>, <표 6-8> 참조).

<표 6-6> 은퇴규모 추계1 (남녀, 2010년 8월 고용률 적용)

(단위: 천 명)

	2010년 8월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15세이상	24,007	17,048	6,959	25,144	17,826	7,275	25,536	18,104	7,389
20세미만	230	212	18	216	197	16	168	154	12
20-24세	1,163	1,068	95	1,483	1,361	122	1,366	1,254	112
25-29세	2,518	2,347	171	2,102	1,960	142	2,281	2,127	155
30-34세	2,702	2,339	363	2,602	2,254	348	2,166	1,876	290
35-39세	3,109	2,418	691	2,785	2,168	620	2,697	2,100	600
40-44세	3,277	2,367	910	3,291	2,379	913	2,934	2,121	814
45-49세	3,272	2,173	1,099	3,213	2,134	1,079	3,249	2,157	1,091
50-54세	2,922	1,793	1,129	3,076	1,886	1,190	3,039	1,864	1,176
55-59세	1,918	1,059	859	2,570	1,417	1,149	2,731	1,506	1,221
60-64세	1,219	622	597	1,488	759	729	2,037	1,039	998
65-69세	793	352	441	891	396	495	1,110	493	617
70세이상	884	298	586	1,065	358	707	1,265	425	840
베이비붐	5,529	3,453	2,076	5,081	2,973	2,105	4,291	2,290	1,997
고용률(%)	75.6	47.2	28.4	70.9	41.5	29.4	61.4	32.8	28.6
은퇴규모				-448	-480	29	-789	-682	-107

주: 베이비붐 세대 규모는 2015년은 50-59세, 2020년은 55-64세 연령층 규모에 0.9를 곱해 구했음.

〈표 6-7〉 은퇴규모 추계1 (남자, 2010년 8월 고용률 적용)

(단위: 천 명)

	2010년8월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15세이상	14,003	9,781	4,222	14,935	10,437	4,497	15,146	10,585	4,561
20세미만	91	87	4	85	82	3	66	63	3
20-24세	427	385	42	680	614	67	618	557	61
25-29세	1,321	1,212	109	1,141	1,046	95	1,255	1,151	104
30-34세	1,722	1,504	218	1,677	1,464	213	1,425	1,244	181
35-39세	1,979	1,537	442	1,792	1,391	401	1,741	1,352	389
40-44세	1,953	1,394	559	1,985	1,417	568	1,780	1,271	509
45-49세	1,937	1,268	669	1,903	1,245	657	1,937	1,268	669
50-54세	1,749	1,050	699	1,843	1,106	737	1,820	1,092	728
55-59세	1,161	633	528	1,553	848	707	1,650	901	751
60-64세	745	372	373	910	455	455	1,246	623	623
65-69세	444	198	246	526	234	292	657	293	364
70세이상	474	141	333	579	173	406	709	211	498
베이비붐	3,297	2,010	1,287	3,056	1,758	1,300	2,606	1,371	1,236
고용률	89.3	54.5	34.9	85.4	49.1	36.3	75.7	39.8	35.9
은퇴규모				-241	-252	13	-451	-387	-63

〈표 6-8〉 은퇴규모 추계1 (여자, 2010년 8월 고용률 적용)

(단위: 천 명)

	2010년 8월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15세이상	9,998	7,264	2,734	10,261	7,466	2,816	10,434	7,592	2,863
20세미만	139	125	14	130	116	13	102	91	11
20-24세	735	682	53	764	709	55	716	664	52
25-29세	1,194	1,134	60	963	915	48	1,030	978	52
30-34세	979	834	145	933	795	138	759	647	112
35-39세	1,130	880	250	1,002	780	221	968	753	213
40-44세	1,326	975	351	1,314	966	348	1,164	855	308
45-49세	1,336	905	431	1,311	888	423	1,315	891	424
50-54세	1,172	743	429	1,233	781	452	1,220	773	447
55-59세	757	426	331	1,014	570	443	1,078	606	471
60-64세	473	249	224	576	303	273	788	415	373
65-69세	347	154	193	373	165	208	463	205	258
70세이상	410	157	253	489	188	301	570	219	350
베이비붐	2,234	1,443	791	2,023	1,216	805	1,680	919	760
고용률	61.7	39.9	21.8	56.3	33.9	22.4	47.4	25.9	21.4
은퇴규모				-211	-227	14	-343	-298	-45

나. 추계 2 (2010년 고용률 + 추세 적용)

요즈음 고령자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6-2]와 <표 6-4> 참조). 이에 따라 2010년 8월 연령계층별 고용률을 그대로 적용한 추계1은 2015년과 2020년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규모를 과소 추계하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를 과대 추계했을 가능성이 크다.

<표 6-9>와 <표 6-10>, <표 6-11>은 2010년 연령계층별 고용률에 2005~2010년 연령계층별 고용률 변화(<표 6-3> 참조)를 반영해서 2015년과 2020년 연령계층별 고용률(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규모를 추계한 결과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22만 명(남자 13만 명, 여자 9만 명) 감소하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67만 명(남자 32만 명, 여자 38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임금근로자는 6만 명 증가했다가 39만 명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는 각각 23만 명, 29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표 6-9>와 <표 6-10>, <표 6-11> 참조).

<표 6-9> 은퇴규모 추계2 (남녀, 2010년 8월 고용률 + 추세 적용)

(단위: 천 명)

	2010년 8월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15세이상	24,007	17,048	6,959	25,016	19,060	5,829	25,277	20,610	4,450
20세미만	230	212	18	160	150	3	81	81	-7
20-24세	1,163	1,068	95	1,219	1,111	108	881	794	87
25-29세	2,518	2,347	171	2,108	2,034	77	2,295	2,288	13
30-34세	2,702	2,339	363	2,665	2,495	171	2,271	2,277	-6
35-39세	3,109	2,418	691	2,731	2,336	403	2,594	2,424	181
40-44세	3,277	2,367	910	3,287	2,704	583	2,927	2,701	226
45-49세	3,272	2,173	1,099	3,300	2,489	810	3,424	2,877	548
50-54세	2,922	1,793	1,129	3,158	2,193	966	3,203	2,470	733
55-59세	1,918	1,059	859	2,742	1,651	1,084	3,097	2,002	1,083
60-64세	1,219	622	597	1,496	892	602	2,060	1,403	649
65-69세	793	352	441	893	507	385	1,115	772	343
70세이상	884	298	586	1,172	526	647	1,521	824	696
베이비붐	5,529	3,453	2,076	5,311	3,459	1,845	4,641	3,065	1,559
고용률(%)	75.6	47.2	28.4	74.1	48.2	25.7	66.4	43.9	22.3
은퇴규모				-218	6	-231	-670	-394	-286

주: 베이비붐 세대 규모는 2015년은 50-59세, 2020년은 55-64세 연령층 규모에 0.9를 곱해 구했음.

〈표 6-10〉 은퇴규모 추계2 (남자, 2010년 8월 고용률 + 추세 적용)
(단위: 천 명)

	2010년 8월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15세이상	14,003	9,781	4,222	14,744	11,010	3,712	14,759	11,747	2,969
20세미만	91	87	4	41	46	-7	-3	8	-13
20-24세	427	385	42	588	527	61	450	400	51
25-29세	1,321	1,212	109	1,089	1,031	57	1,140	1,118	22
30-34세	1,722	1,504	218	1,637	1,549	90	1,357	1,388	-28
35-39세	1,979	1,537	442	1,776	1,482	293	1,710	1,527	179
40-44세	1,953	1,394	559	1,981	1,599	384	1,772	1,597	179
45-49세	1,937	1,268	669	1,923	1,432	492	1,980	1,647	332
50-54세	1,749	1,050	699	1,885	1,264	623	1,902	1,404	502
55-59세	1,161	633	528	1,631	941	695	1,816	1,099	727
60-64세	745	372	373	947	530	415	1,347	830	514
65-69세	444	198	246	525	283	244	654	413	246
70세이상	474	141	333	626	264	361	825	435	386
베이비붐	3,297	2,010	1,287	3,164	1,985	1,186	2,847	1,736	1,116
고용률	89.3	54.5	34.9	44.1	27.7	16.5	40.7	24.8	16.0
은퇴규모				-133	-25	-101	-318	-249	-70

〈표 6-11〉 은퇴규모 추계2 (여자, 2010년 8월 고용률 + 추세 적용)
(단위: 천 명)

	2010년 8월			2015년			20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15세이상	9,998	7,264	2,734	10,239	8,149	2,133	10,390	8,980	1,475
20세미만	139	125	14	116	105	12	81	73	8
20-24세	735	682	53	615	566	49	436	396	40
25-29세	1,194	1,134	60	1,019	1,000	18	1,149	1,160	-14
30-34세	979	834	145	1,031	949	82	919	897	22
35-39세	1,130	880	250	965	850	110	897	888	-
40-44세	1,326	975	351	1,314	1,112	202	1,164	1,114	49
45-49세	1,336	905	431	1,374	1,056	319	1,442	1,227	215
50-54세	1,172	743	429	1,274	932	342	1,302	1,071	231
55-59세	757	426	331	1,103	710	389	1,266	904	356
60-64세	473	249	224	539	357	181	686	563	123
65-69세	347	154	193	376	230	146	471	367	104
70세이상	410	157	253	539	267	275	686	402	289
베이비붐	2,234	1,443	791	2,140	1,478	658	1,757	1,320	431
고용률	61.7	39.9	21.8	29.8	20.6	9.2	25.1	18.9	6.2
은퇴규모				-94	35	-133	-382	-158	-227

4. 소결

현대경제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2009)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에 걸쳐 임금근로자 311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추정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과급효과와 대응방안”(2010)은 향후 10년간 전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를 69만 명으로 연평균 7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그렇지만 이 장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0~15년에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는 22~45만 명 감소하고, 2015~20년에 67~79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2010~20년에 은퇴할 베이비붐 세대는 89~12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311만 명보다는 적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 69만 명보다는 많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를 과대평가한 데 비해, 삼성경제연구소는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6-12〉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종합)

(단위: 천 명)

		2010~15년			2015~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시나리오1	남녀	448	480	-29	789	682	107
	남자	241	252	-13	451	387	63
	여자	211	227	-14	343	298	45
시나리오2	남녀	218	-6	231	670	394	286
	남자	133	25	101	318	249	70
	여자	94	-35	133	382	158	227

주: 시나리오1은 2010년 고용률을 2015년, 2020년에 적용

시나리오2는 2010년 고용률에 2005-10년 고용률 변화 추세를 반영해서 2015년, 2020년에 적용

제7장

베이비붐 세대 고용서비스 실태

1. 고용보험 가입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비대상 포함)는 219만 명이고, 미가입자가 127만 명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률은 63.3%다.

남자는 74.3%, 여자는 48.0%가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83.5%), 전문대졸(79.7%), 고졸(61.8%), 중졸이하(44.9%)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보험 적용률이 낮다.

산업별로 가구내고용활동(0.0%), 숙박음식점업(17.1%), 농림어업(25.7%),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35.3%), 건설업(35.4%), 도소매업(51.0%), 금융보험업(51.0%) 등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직업별로는 판매직(33.8%), 단순노무직(44.9%), 기능직(47.2%), 서비스직(47.8%)이 매우 낮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 21.5%로 가장 낮고, 5-9인 사업장은 44.0%인데 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5.5%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0%가 넘는데 무노조 사업장은 51.8%다. 상용직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6.0%인데 임시직은 28.1%, 일용직은 5.6%이고, 정규직은 96.5%, 비정규직은 32.7%다(<표 7-1> 참조).

〈표 7-1〉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2010년 8월)

	수(천 명)				가입/비대상 비율(%)
	노동자 수	미가입	가입	비대상	
전체	3,452	1,267	1,825	360	63.3
남자	2,009	516	1,221	272	74.3
여자	1,443	751	604	88	48.0
미혼	66	27	31	8	59.1
유배우	2,981	1,014	1,623	344	66.0
사별	163	87	74	2	46.6
이혼	244	139	98	7	43.0
중졸이하	954	526	417	11	44.9
고졸	1,478	565	823	90	61.8
전문대졸	202	41	135	26	79.7
대졸이상	819	135	451	233	83.5
농림어업	35	26	9		25.7
제조업	785	181	604		76.9
전기가스수도사업	18	1	14	3	94.4
하수환경복원업	14	1	12	1	92.9
건설업	412	266	146		35.4
금융보험업	143	70	71	2	51.0
부동산임대업	57	20	37		64.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	8	64	3	89.3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186	34	152		81.7
도소매업	294	144	150		51.0
운수업	208	30	178		85.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	81	6	59	16	92.6
숙박음식점업	286	237	49		17.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4	10	9	5	58.3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	116	75	41		35.3
가구내고용활동등	47	47			
공공행정국방	239	30	42	167	87.4
교육서비스업	258	41	61	156	84.1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67	39	121	7	76.6
관리자	152	7	133	12	95.4
전문가	449	90	207	152	80.0
사무직	462	56	278	128	87.9
서비스직	414	216	160	38	47.8
판매직	260	172	88	-	33.8
농림어업숙련직	16	10	6	-	37.5
기능직	489	258	226	5	47.2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93	63	419	11	87.2
단순노무직	715	394	308	13	44.9

	수(천 명)				가입/비대상 비율(%)
	노동자 수	미가입	가입	비대상	
1-4인	673	528	143	2	21.5
5-9인	570	319	243	8	44.0
10-29인	785	250	486	49	68.2
30-99인	733	132	467	134	82.0
100-299인	332	22	254	56	93.4
300인 이상	359	16	232	111	95.5
무노조	2,480	1,196	1,198	86	51.8
유노조비조합원	503	50	282	171	90.1
유노조조합원	469	20	345	104	95.7
상용	1,949	77	1,512	360	96.0
임시	1,022	735	286	1	28.1
일용	482	455	27		5.6
정규직	1,657	58	1,245	354	96.5
비정규직	1,796	1,209	581	6	32.7

2. 국민연금 가입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15만 명(무급가족종사자 38만 명 제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381만 명이고, 미가입자가 134만 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률은 취업자 대비 74.0%다.

취업자 기준으로 남자는 83.3%, 여자는 57.9%가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89.1%), 전문대졸(81.9%), 고졸(73.0%), 중졸이하(61.8%)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

산업별로 가구내고용활동(17.0%), 숙박음식점업(49.1%), 농림어업(61.6%), 건설업(62.6%), 도소매업(69.3%) 등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56.0%), 서비스직(60.9%), 판매직(65.5%), 기능직(68.1%)이 매우 낮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62.6%로 가장 낮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98.9%다.

임금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비조합원은 92.7%, 조합원은 99.1%인데 무노조 사업장은 65.3%다. 상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98.9%인데 임시직은 46.7%, 일용직은 30.1%이고, 정

규직은 99.2%, 비정규직은 50.5%다. 고용주는 85.0%, 자영업자는 69.4%다(<표 7-2> 참조).

〈표 7-2〉 인적 속성과 일자리 속성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2010년 8월,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국민연금 가입자(천 명)				국민연금 가입률(%)		
	임금노동자		비임금근로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소계	가입	소계	가입			
전체	3,454	2,551	1,698	1,261	73.9	74.3	74.0
남자	2,010	1,697	1,258	1,024	84.4	81.4	83.3
여자	1,444	854	440	237	59.1	53.9	57.9
미혼	66	48	24	13	72.7	54.2	67.8
유배우	2,980	2,256	1,527	1,154	75.7	75.6	75.7
사별	162	101	49	35	62.3	71.4	64.5
이혼	245	146	95	56	59.6	58.9	59.4
중졸이하	955	567	453	303	59.4	66.9	61.8
고졸	1,478	1,065	842	629	72.1	74.7	73.0
전문대졸	202	170	79	60	84.2	75.9	81.9
대졸이상	819	749	324	269	91.5	83.0	89.1
농림어업	35	15	194	126	42.9	64.9	61.6
제조업	786	647	182	154	82.3	84.6	82.7
전기가스수도사업	17	17	1	1	100.0	100.0	100.0
하수환경복원업	13	13	2	2	100.0	100.0	100.0
건설업	412	237	150	115	57.5	76.7	62.6
금융보험업	143	107	10	9	74.8	90.0	75.8
부동산임대업	57	43	50	33	75.4	66.0	7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5	70	32	29	93.3	90.6	92.5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185	161	13	9	87.0	69.2	85.9
도소매업	293	184	392	291	62.8	74.2	69.3
운수업	209	196	208	180	93.8	86.5	90.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	81	80	7	6	98.8	85.7	97.7
숙박음식점업	286	93	217	154	32.5	71.0	49.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4	18	31	16	75.0	51.6	61.8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	116	71	149	92	61.2	61.7	61.5
가구내고용활동등	47	8			17.0		17.0
공공행정국방	238	216			90.8		90.8
교육서비스업	259	232	45	31	89.6	68.9	86.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67	135	16	15	80.8	93.8	82.0

	국민연금 가입자(천 명)				국민연금 가입률(%)		
	임금노동자		비임금근로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소계	가입	소계	가입			
관리자	153	151	67	63	98.7	94.0	97.3
전문가	450	405	184	143	90.0	77.7	86.4
사무직	462	425	32	27	92.0	84.4	91.5
서비스직	414	245	251	160	59.2	63.7	60.9
판매직	260	143	364	266	55.0	73.1	65.5
농림어업숙련직	17	9	193	126	52.9	65.3	64.3
기능직	489	321	211	156	65.6	73.9	68.1
장치기계조작조립원	492	451	322	276	91.7	85.7	89.3
단순노무직	715	399	74	43	55.8	58.1	56.0
1-4인	673	273	1,526	1,103	40.6	72.3	62.6
5-9인	571	339	129	118	59.4	91.5	65.3
10-29인	785	611	35	32	77.8	91.4	78.4
30-99인	734	655	8	8	89.2	100.0	89.4
100-299인	331	317			95.8		95.8
300인이상	360	356			98.9		98.9
무노조	2,481	1,619			65.3		65.3
유노조비조합원	504	467			92.7		92.7
유노조조합원	468	464			99.1		99.1
상용	1,950	1,929			98.9		98.9
임시	1,022	477			46.7		46.7
일용	482	145			30.1		30.1
고용주			528	449		85.0	85.0
자영업자			1,169	811		69.4	69.4
정규직	1,657	1,643			99.2		99.2
비정규직	1,795	907			50.5		50.5

3. 취업알선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친척, 친구, 동료 등 인간관계’(63.2%),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43.6%), 공공직업알선기관(17.1%), 민간직업알선기관(9.4%) 순이다. 50대 후반 이후 고령자들은 공공직업알선기관과 민간직업알선기관 비중이 각각 20%선을 넘어서나. 고령자(55~79세)는 ‘친구, 친지 소개 부탁’(44.8%)이 가장 많고, 다음으

로는 ‘노동부등 공공직업알선기관’(21.2%), ‘사업체 문의, 방문’(10.5%), ‘신문, 잡지, 인터넷 등’(9.9%), ‘민간직업알선기관’(8.2%), ‘자영업 준비’(4.1%) 순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이 줄고 공공직업알선기관 비중이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의 구직방법도 ‘공공 또는 민간 직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구직응모’가 29.7%를 차지하고, 60대 후반 고령층에서는 50%선을 넘어선다. 이상을 종합하면 베이비붐 세대나 고령자들이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직업훈련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9%다. 베이비붐 세대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함에도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에 응답한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 또한 고령자(55~79세) 911만 명 가운데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만 명(1.6%)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나마도 50대 후반(7만 명)이 절반을 차지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베이비붐 세대나 고령자들은 직업훈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베이비붐 세대 고용서비스 실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비대상 포함)는 219만 명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63.3%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15만 명(무급가족종사자 38만 명 제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381만 명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74.0%다.

둘째, 취약계층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낮다. 성별로는 여성, 학력별로는 저학력층,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기능직, 사업장 규모별

로는 중소기업체, 무노조 사업장, 비정규직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낮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나 고령자들은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업훈련에 대한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서비스는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알선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제8장

맺는 말

제2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8월)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주요 고용지표와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실태와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731만 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565만 명(경제활동참가율 77.2%), 비경제활동인구는 166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 553만 명(고용률 75.6%)과 실업자 12만 명(실업률 2.1%)으로 구성된다.

둘째, 성별 고용률은 남자 89.3%, 여자 61.7%로 남자가 높다. 학력별 고용률은 중졸이하(71.8%), 고졸(74.9%), 전문대졸(79.6%), 대졸이상(82.3%) 순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다. 남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고, 여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낮다. 이는 저학력 남성은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가 줄어들고, 고학력 여성은 취업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고졸(45.4%)과 중졸이하(30.2%) 학력이 3/4을 차지하고, 대졸이상(19.4%)과 전문대졸(5.0%) 학력이 나머지 1/4이다. 남자는 대졸이상(26.7%)과 전문대졸(6.3%)이 1/3인데, 여자는 대졸이상(11.9%)과 전문대졸(3.7%)이 1/6이 안 되는 등 남녀 간에 학력차이가 크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는 혼인상태에서 이혼(6.2%)과 사별(4.0%)이

10.2%다. 남자는 이혼(6.0%)과 사별(1.2%)이 7.2%인데, 여자는 이혼(6.5%)과 사별(6.8%)이 13.3%다. 이처럼 사별한 여성이 많은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나이가 많고 남자의 평균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 중 40대 후반은 고용률이 77.7%로 40대 초반과 함께 고용률이 가장 높고, 50대 초반은 74.2%로 감소세로 접어든 연령층이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임금근로자 비중은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 후반까지 계속 증가한다. 따라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며, 임금근로자에서 비취업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남녀를 구분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여섯째, 인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순으로 취업할 확률이 높다. 연령별로는 만46세를 정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 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정점이 만43세인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 결정요인과 대체로 동일하다. 비임금근로자 결정요인은 전문대졸 이외에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50세를 정점으로 취업할 확률이 떨어진다.

일곱째,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취업자 결정요인을 로짓분석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을 뿐, 학력과 연령은 취업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결정요인도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고,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학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전문대졸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고졸이하의 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낮고 비임금근로자가 될 확률은 높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8월)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의 활동상태와 구직활동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178만 명 가운데 여성은 139만 명(77.9%)으로 남성 40만 명(22.1%)보다 훨씬 많다. 혼인상태에서 사별 또는 이혼이 19만 명(10.8%)이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25만 명(14.1%),

전문대졸이 8만 명(4.2%), 고졸이 83만 명(46.7%), 중졸이하가 62만 명(35.0%)으로, 고졸이하가 81.7%를 차지한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의 활동상태는 남녀 간에 차이가 뚜렷하다. 남자는 '쉬었음'이 23만 명(57.6%), 구직활동 7만 명(16.8%), 심신장애 5만 명(12.9%) 순인데, 여자는 육아가사가 130만 명(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은 13만 명(8.1%)이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11만 명(6.4%)이다. 그럼에도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28.4%), '이전에 찾아봤으나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23.1%),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6.4%) 순이다. 이에 비해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5%)는 그 비중이 미미하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의 구직경로는 '친척, 친구, 동료'(63.2%), '신문, 잡지, 광고 등 대중매체'(43.6%), 공공직업알선기관(17.1%), 민간직업알선기관(9.4%) 순이다. 50대 후반 이후 고령자들은 공공직업알선기관과 민간직업알선기관 비중이 각각 20%선을 넘어선다.

다섯째,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의 구직방법은 '사업체 문의, 방문, 원서제출'(72.0%), '구직등록, 구직응모'(29.7%), 자영업 준비(8.5%) 순이다. 공공 또는 민간 직업알선기관 '구직등록, 구직응모'는 20~50대 연령층에서 22~36%선이다가 60대 후반 이후 50%선을 넘어선다.

여섯째, 베이비붐 세대 실업자는 90.7%가 임금근로를 희망한다.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에는 비임금근로 희망자가 13~19%지만, 50대가 넘어서면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 희망자가 줄어든다.

일곱째, 베이비붐 세대 비취업자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강제이직'(47.1%), '개인·가족관련 이유'(38.5%), '작업여건 불만족'(6.9%), '육아, 가사, 심신장애'(6.2%) 순이다. 여기서 비자발적 강제이직은 '일거리가 없거나 경영악화'(20.7%),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8.2%),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5.1%), '직장휴폐업'(2.3%) 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비자발적 강제이직 비율은 늘어난다.

제4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0년 8월)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의 노동력 구성과 고용의 질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남성은 201만 명(58.2%) 여성은 144만 명(41.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대졸이상이 82만 명(23.7%), 전문대졸 20만 명(5.8%), 고졸 148만 명(42.8%), 중졸이하 96만 명(27.7%)으로, 10명 중 3명이 전문대졸 이상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다.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27만 명(18.6%)으로, 부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남성 14만 명(6.8%)보다 두 배 많다.

둘째, 성별로 종사하는 산업과 직업, 사업체규모와 노조유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남자는 제조업(23.6%), 유통서비스업(19.6%), 건설업(19.4%) 순인데, 여자는 개인서비스업(25.5%), 사회서비스업(23.6%), 제조업(21.5%) 순이다. 남자는 사무관리전문직(39.9%), 장치기계조작조립원(20.6%), 기능직(20.0%) 순인데, 여자는 판매서비스직(38.2%), 단순노무직(31.8%), 사무관리전문직(18.2%) 순이다. 그만큼 성별 직업분리가 뚜렷하다. 남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26.8%, 5인 미만 사업장에 13.1% 취업해 있는데, 여자는 각각 10.5%와 28.3% 취업해 있다. 남자는 노조 조합원이 39만 명(19.4%)인데, 여자는 8만 명(5.5%)이다.

셋째, 비정규직 비율은 여성(73.5%)이 남성(36.5%)보다 두 배 높다. 시간제 근로는 여성(15.2%)이 남성(2.8%)보다 5배 이상 많고, 호출근로 이외의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호출근로만 남성(10.8%)이 여성(5.7%)보다 많다. 다른 조건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은 여성과 저학력층에서 높다.

넷째, 근속년수 평균은 남자(10.1년)가 여자(4.5년)보다 2배 이상 길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중은 남자(27.5%)가 여자(40.7%)보다 적고,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중은 남자(42.5%)가 여자(15.4%)보다 많다. 직장이직률(장기근속자 비중 - 단기근속자 비중)은 여자(25.3%)가 남자(15.0%)보다 높고, 신규취업 실패율도 여자(25.5%)가 남자(19.3%)보다 높다. 그만큼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다섯째, 남녀 간에 월평균임금 격차는 100:46.6이고, 시간당 임금격차

는 100 : 48.1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성별 순임금격차가 22.9%, 고용형태별 순임금격차가 21.2%다. 대졸이상을 100이라 할 때 학력별 순임금격차는 전문대졸 86.2%, 고졸 81.8%, 중졸이하 76.2%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100이라 할 때 100-299인 사업체는 85.6%, 30-99인 사업체는 82.1%, 10-29인 사업체는 80.7%, 5-9인 사업체는 75.3%, 5인 미만 사업체는 67.6%로 기업규모 간 격차가 크다.

여섯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원) 미달 자는 38만 명(11.0%)으로, 9명 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다. 남자는 11만 명(5.7%)이고 여자는 27만 명(18.4%)이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을 확률은 여성, 비정규직, 유통서비스업, 단순노무직, 비조합원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거나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높다.

일곱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8.6%, 중간임금계층은 38.9%, 고임금계층은 32.5%로, 15세 이상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저임금계층과 고임금계층이 많고 중간임금계층이 적다. 남성은 고임금계층이 48.1% 저임금계층이 12.6%인데, 여성은 고임금계층이 10.8% 저임금계층이 50.8%로 대조적이다.

여덟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주44.2시간이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는 24.9%고, 주36시간 미만 단시간근로는 9.1%며, 주5일 근무제는 44.7% 실시되고 있다. 여자(43.0시간)가 남자(45.0시간)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것은 단시간근로가 많기 때문이다. 남자(52.3%)는 주5일 근무제가 절반 넘게 실시되고 있는데, 여자(34.2%)는 1/3만 실시되고 있다.

아홉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은 63.3%이며, 남자는 74%, 여자는 48%로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도 남녀 간에 격차가 크다. 하지만 근로계약 서면작성은 남자 43.2%, 여자 37.2%로 격차가 크지 않고, 교육훈련 경험은 남자 24.6%, 여자 25.3%로 거의 동일하다.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성과 혼인, 연령, 학력 등 인적 속성은 고용보험 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과 무노조 비조합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

열째,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이 40.8%로 여자(53.3%)가 남자(31.9%)보다 많다. 비자발적 취업사유는 ‘생활비 등 수입 필요’가 3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자는 44.6%, 남자는 28.2%에 이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질은 성과 학력, 산업과 직업,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등에 따라 그 격차가 매우 크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 부가조사(2009년 5월) 자료를 사용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다가올 미래인 고령층의 취업실태와 구직실태 및 계속근로 희망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층(55~79세) 911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446만 명(48.9%)으로 절반은 계속 일 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고용률이 낮아지지만, 50대 후반은 66.4%, 60대 초반은 54.5%로 60대 초반까지는 절반 이상이 계속 일하고 있다. 남자는 60대 후반(54.3%), 여자는 50대 후반(52.5%)까지 절반 이상이 취업자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

둘째,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직장(일자리)에서 근속년수 평균은 20.3년(중앙값 19.0년)이고, 일자리를 그만둔 이직연령 평균은 53.2세(중앙값 55세)다. 남자는 이직연령 평균이 55.1세(중앙값 56세)고 여자는 51.6세(54세)다.

셋째, 이직경험이 있는 고령층 622만 명 가운데 정년퇴직은 69만 명(11.1%)이고, 정년퇴직 연령은 평균 58.7세(중앙값 58세)다. 남자는 정년퇴직이 62만 명(21.5%)인데 여자는 7만 명(2.1%)밖에 안 된다.

넷째, 사업부진·조업중단, 휴업폐업, 권고사직·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217만 명(34.9%)이다. 비자발적 이직연령 평균은 51.5~53.7세(중앙값 52~55세)인데, 정년퇴직보다 평균 5~7세(3~6세) 앞서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이 129만 명(44.9%)이고 여자는 88만 명(26.2%)이다.

다섯째, 고령층 911만 명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경험한

사람은 116만 명(12.7%)이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100만 명(11.0%)으로, 구직활동에 나서 취업에 성공할 확률은 86.9%로 높은 편이다.

여섯째, 고령층 구직경로는 ‘친구, 친지 소개 부탁’(44.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노동부등 공공직업알선기관’(21.2%), ‘사업체 문의, 방문’(10.5%), ‘신문, 잡지, 인터넷 등’(9.9%), ‘민간직업알선기관’(8.2%), ‘자영업 준비’(4.1%) 순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친지 소개 부탁’이 줄어들고 공공직업알선기관 비중이 늘어난다.

일곱째, 고령층 911만 명 가운데 지난 1년간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15만 명(1.6%)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남자(7만5천 명)와 여자(7만4천 명) 교육훈련 경험자가 동일하며, 50대 후반(7만 명)이 절반을 차지한다.

여덟째, 지난 1년간 취업한 일자리가 생애 주된 경력(일)과 ‘매우 관련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2.1%이고, ‘약간 관련 있다’가 5.3%, ‘별로 관련 없다’가 10.7%, ‘전혀 관련 없다’가 17.6%다. 10명 중 3명은 과거 경력(일)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홉째, 고령층 911만 명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525만 명(57.6%)이다. 나이가 들수록 계속근로 희망자가 줄어들지만, 50대 후반 76.5%, 60대 초반 66.9%, 60대 후반 52.4%로, 60대 후반까지는 절반 이상이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남자는 70대 초반(49.8%), 여자는 50대 후반(53.0%)까지 절반 이상이 계속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돈이 필요해서’(32.6%)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19.4%) 순이다.

열째, 계속근로 희망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때 임금수준(38.6%), 계속근로가능성(21.7%), 일의 양과 시간대(17.3%)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임금수준 응답이 줄고, 일의 양과 시간대 응답이 늘어난다.

열한째, 계속근로 희망자 525만 명 가운데 374만 명(71.2%)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151만 명(28.8%)이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 희망은 여자(43.4%)가 남자(18.8%)보다 많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난다.

열두째, 계속근로 희망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150만원 이상이 25.4%, 100만원 이상이 56.1%다. 남자는 150만원 이상이 37.0%, 100만원 이상이 72.4%인데, 여자는 9.3%와 33.5%로 격차가 크다. 연령 계층별로도 50대 후반은 월평균 100만원 이상이 73.5%인데, 60대 초반은 59.1%, 60대 후반은 43.6%, 70대 초반은 25.8%, 70대 후반은 20.6%로, 나이가 들수록 희망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열셋째,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는 398만 명(43.7%)으로, 남자 207만 명(49.2%), 여자 191만 명(38.9%)이다. 50대 후반은 7.4%, 60대 초반은 41%만 연금을 수령한데 비해, 60대 후반은 63.9%, 70대 초반은 67.0%, 70대 후반은 72.2%로 다수가 연금을 수령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열넷째, 연금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평균 34만원(중앙값 12만원)이며, 10만원 미만이 44.6%, 25만원 미만이 73.5%다. 70대 이상은 10만원 미만이 2/3가 넘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 이외에는 다른 연금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값 기준으로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50대 후반 50만원, 60대 초반 21만원, 60대 후반 12만원, 70대 8만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연금수령액이 줄어 들고 있다.

제6장에서는 2010~20년에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를 추계했다. “2010~15년에 22~45만 명 감소하고, 2015~20년에 67~79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2010~20년에 은퇴할 베이비붐 세대는 89~12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311만 명보다는 적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 69만 명보다는 많은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를 과대평가한 데 비해, 삼성경제연구소는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8-1〉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규모

(단위: 천 명)

		2010~15년			2015~20년		
		취업자	임금	비임금	취업자	임금	비임금
시나리오1	남녀	448	480	-29	789	682	107
	남자	241	252	-13	451	387	63
	여자	211	227	-14	343	298	45
시나리오2	남녀	218	-6	231	670	394	286
	남자	133	25	101	318	249	70
	여자	94	-35	133	382	158	227

주: 시나리오1은 2010년 고용률을 2015년, 2020년에 적용

시나리오2는 2010년 고용률에 2005-10년 고용률 변화 추세를 반영해서 2015년, 2020년에 적용

제7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고용서비스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노동자 345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비대상 포함)는 219만 명이며, 고용보험 가입률은 63.3%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15만 명(무급가족종사자 38만 명 제외)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381만 명이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74.0%다.

둘째, 취약계층일수록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낮다. 성별로는 여성, 학력별로는 저학력층,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기능직, 사업장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체, 무노조 사업장, 비정규직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모두 낮다. 이들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실업부조 등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나 고령자들은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업훈련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서비스는 공공직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알선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노사정 간에 논의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력이 고령화 되는 추세에서 정년연장은 필요하다. 하지만 고령자 가운데 정년퇴직자

가 11.1%밖에 안 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중소기업체 비정규직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다. 설령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더라도, 정년퇴직 후 최종 은퇴할 때까지 10여년은 고령자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며,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감면,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2010), “세대간 일자리 공유를 위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 자료집.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위임(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노동연구원.
- 권혜자(2010), “청년층 일자리 변화와 연령세대별 고용정책”, 고용정보원 중간보고, 미발간자료.
- 권혜자(2010), “청년층 일자리와 베이비붐 세대 및 고령층 일자리의 관계”.
- 김기홍(2010), “고령 인력의 고용지원 서비스 실태 조사 분석”.
- 김동배(2010), “고령자 고용과 임금유연화”.
- 김준영(2010), “일본의 베이비 붐 세대 고용지원 정책: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중심으로”.
- 노동부(2010),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제도 개편방안”.
- 박덕배(2010), “베이비붐 세대(1955~63), 노후대책 막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경제현안.
- 박찬임 · 박성재 · 김화순 · 김종일(2007),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이용실태 및 서비스 강화방안』, 노동연구원.
- 방하남 · 강석훈 · 신동균 · 안종범 · 이정우 · 권문일(2009), 『점진적 은퇴와 부분연금제도 연구』, 노동연구원.
-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10),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Work Life] 연구』, 노동연구원.
- 송양민(2010), 『밥 돈 자유』, 21세기북스.
- 이철선(2009),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09-25(통권 407호).
- 장인성(2009),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연구 제5호.
- 장지연(2010),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해외사례연구: 공공 민간 협력시스템을 중심으로”
- 장지연 · 부가정 · 이해정 · 신현구 · 이철희 · 장숙량 · 조성일 · Berkman(2008),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노동연구원.
- 장지연 · 신동균 · 신경아 · 이해정(2009), 『중 · 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노동연구원.

- 정호성(2007), “일본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퇴직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130호.
- 정호성외(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집필자

김 유 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한 고용서비스 정책과제

인 쇄 2010년 12월 23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 행 인 정 인 수

발 행 처 **한국고용정보원**

15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공원길 5

☎ 02-2629-7114

홈페이지 www.keis.or.kr

조판 및 인쇄 다 인

☎ 02-796-0062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재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269-9 93330